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어는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하나를 하여도 명백하게 하는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기호에 맞는 언어이며 우리의 민족성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참다운 언어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권 374폐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가장 인민적이고 전투적이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확고히 구현된 사회주의적민족어의 전형으로 개화발전한 평양문화어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남김없이 떨치며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발음과 어휘, 문법을 비롯한 언어의 모든 구성부분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기호에 맞게 다듬어져 평양문화어는 우리의 민족성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는 참다운 민족표준어로 발전하였으며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사람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적극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언어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더욱 철저히 살리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문화수준을 지니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언어문화를 확립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문화어발음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발음의 원리와 요구를 정확히 지켜나갈 때 말을 보다 명확하고 류창하게 할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말의 우수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다.

이 책에서는 발음에 대한 기초상식들과 함께 문화어발음을 관통하고있는 우리 말의 말소리법칙과 발음규범들, 혼돈하기 쉬운 발음자료들과 주의하여야 할 발음자료들을 소개하고있다.

《Ⅰ. 발음편》에서는 발음원리와 기초적인 술어들, 우리 말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법칙적인 현상들을 발음생리적인것과 관습적인 것의 두가지로 갈라 원리적인 설명을 주었다.

《Ⅱ. 규범편》에서는 우리 말 발음규범에 규제된 내용들을 풀어서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현실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주의하여야 할 발음들에 대하여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Ⅲ. 발음참고자료》에서는 사이소리끼우기와 한자말의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자료들을 형태부를 단위로 묶어서 제시하여주었으며 긴소리로 나는 단어들의 발음과 관련한 자료와 간단한 읽기련습자료들을 첨부하였다.

차 례

Ⅰ. 발음편

Ⅱ. 규 범 편

Ⅲ. 발음참고자료

Ⅰ. 발 음 편

우리 말은 말소리가 풍부하고 발음토대가 아주 세련되여있어 발음을 똑똑하고 류창하게 할수 있다.

문화어발음법의 요구대로 발음을 잘하자면 발음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발음과 관련한 언어학적기초지식들을 잘 아는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과학적원리와 관습적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한 가장 완성된 우리 말 발음법의 원리와 우수성에 대해 더 잘 리해할수 있으며 발음을 발음규범의 요구에 맞게 정확하게 해나갈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문화어발음법에 관통되여있는 언어적내용들과 규범적내용들을 리해하는데서 기초로 되는 언어학적기초지식들을 간단히 언급한다.

1. 발음과 발음요소

1) 언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인간생활의 힘있는 수단이다. 인간의 활동은 언어를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호상관계는 언어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91폐지)

사람들의 생활, 인간생활은 언어를 떠나서 생각할수도 이루어질수도 없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언어는 우리가 매일과 같이 사용하고있는 말과 글의 전체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와 감정을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 쓰는 말과 글 전체가 곧 언어이다.

언어는 개별적인 민족어로 존재한다. 언어의 구체적인 실체는 바로 조선어나 로어, 중국어, 영어와 같은 개별적인 민족어이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인 언어, 모든 민족의 말과 글을 다 대신할수 있는 전세계적인 언어, 세계어란 없다. 이런것으로 하여 언어는 민족문제와 련관되고 국가문제와 련관되며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는 사회적현상으로 되는것이다. 이런데로부터 언어학에서는 언어란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특징짓는 표징이라고 정의하는것이다.

언어의 민족적특성은 언어의 모든 구성요소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언어를 이루는 필수요소들에는 발음, 글자, 어휘, 문법등이 있다. 언어를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민족어단위로 고유한 체계를 이루고 존재한다.

언어의 주요한 필수요소의 하나인 발음만 보더라도 사람의 발음을 위한 발음기관은 세계 그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지 다 공통적이지만 그것을 리용하여 말소리를 내고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에서는 민족어마다 차이를 가진다.

2) 말의 언어

언어는 사람들의 사유과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사회적현상이면서 동시에 직감적으로 느낄수 있는 물질적재료로 실현되는 물질적인 현상이다.

언어는 사유의 물질적인 외피라고 말한다. 이것은 언어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을 담아 표현하는 물질적인 《그릇》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말하면 언어라는 물질적형식에는 뜻이라고 하는 내용적의미가 담겨진다는것이다. 아무런 뜻도 없는 언어형식이나 어떤 언어적외피도 띠지 않은 사유란 없다.

그러면 언어는 어떤 형식으로 실현되는가?

언어의 실현형식은 크게 말과 글로 갈라볼수 있다. 말은 《입으로 표현하고》, 《귀로 듣는》 형식으로, 글은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는》 형식으로 실현된다. 구체적으로 말은 입으로 소리를 내고 음파의 형태로 귀를 통해 지각되는 물질적인 전달경로를 가진다. 글은 흔히 손으로 씌여지고 눈을 통해 지각되는 물질적인 경로를 가진다. 바로 이것이 언어의 물질적외피가 실현된것이다.

말과 글을 구별하여 말의 언어와 글의 언어를 갈라 생각할수 있다. 이것은 언어가 사람들의 사유를 담는 물질적인 《그릇》이라고 할 때 그 물질적그릇의 형식에 따라 언어를 가른 경우이다. 말의 형태로 실현되는 언어를 음성언어, 입말언어라고 하고 글의 형태로 실현되는 언어를 문자언어, 글말언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언어의 두가지 실현형태가운데서 말은 1차적이며 글은 2차적인 것이다. 말이 1차적이라는것은 말의 언어가 언어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말은 언어생활의 제1차적인 실현수단이며 없어서는 안될 인간교제의 기본수단이다. 글이 2차적이라는것은 글이 말의 언어를 시각적기호로 표시하는 보조적수단으로 존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발생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말의 언어가 먼저 존재하였고 글은 말을 적기 위한 수단으로 출현하였으며 또 발생한 이후에도 글은 개혁되기도 하고 사멸하기도 하였다. 사람의 경우에 글을 모르는 사람(《문맹자》라고 부른다.)이라도 말은 할수 있다는것, 또 일부 민족고유의 글자가 없이 다른 글자를 빌려다 쓰는 언어들도 있다는것 등은 말의 1차성과 글의 2차성을 설명하는 실례들이다.

말의 언어는 발음을 통해 실현되고 물질화된다.

3) 발음

발음이란 그 말뜻으로는 《소리를 내는것》 또는 《내여진 소리》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람들이 말을 할 목적으로 발음기관을 리용하여 소리를 내는 과정이나 또는 그렇게 만들어 내는 소리를 의미한다.

우선 발음은 말을 하기 위해서 내는 사람의 소리나 소리를 내는 과정이다. 말로 실현되지 못하는 소리는 아무리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 하여도 발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실례로 웃음소리나 혀차

는 소리는 발음이라고 하지 않으며 또 새소리같은것을 모방하는것도 발음한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일정한 사상(내용)을 담고 교제수단의 역할을 하는 말을 이루는데 참가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것을 발음한다고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입말언어의 물질적수단으로 실현되여 말뜻과 련결된 소리를 내는 과정을 발음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발음을 놓고 말할 때 우리는 《발음이 좋다》느니, 《발음을 잘한다》느니 하는 표현을 쓰는것이다.

다음으로 발음은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내는 과정이나 또는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소리이다. 《누구의 발음은 아주 듣기 좋다》거나 《누구의 발음을 흉내낸다》거나 할 때의 《발음》은 곧 《소리》로서의 발음이다.

발음기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리만을 우리는 발음이라고 한다. 사람의 말을 흉내내여 소리내는 앵무새의 소리를 발음이라 하지 않는것도 이때문이다. 최신정보기술을 응용하여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도구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음성재생이나 음성합성이라고 하지 결코 발음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발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사람만이 낼수 있는 사람고유의 행동이며 산물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유일한 사회적존재로서 언어를 소유하고 자기의 의사를 말과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하기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고유한 발음행위를 할수 있는것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리용하여 말의 언어를 만들어내는것일가?

4) 발음기관

발음은 일정한 발음기관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발음기관이란 소리원천(음원)으로부터 만들어진 소리를 구체적인 개개의 말소리로 되게 하는데 참가하는 인체의 부위들을 말한다.

발음기관으로는 페로부터 입과 코에 이르기까지 숨길이 이어지는 통로에 있는 모든 인체기관들이 다 포함될수 있다. 즉 입부분의 입술, 이몸, 이발, 혀, 입천장과 코안부분, 목청부분, 목구멍부분, 기관지와 횡격막, 페 등이 발음기관으로 될수 있다.

목안부분, 입안부분, 코안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날숨의 통로는 일종의 울림통의 역할을 한다. 혀와 목젖에 의해 이 통로의 모양새가 변하는데 따라 여러가지로 소리가 변하게 된다.

발음기관에서 중요한것은 목청, 혀, 입천장, 이몸, 이발, 입술 등이다. 이것들은 날숨의 통로를 여러가지로 변화시키거나 장애를 조성하여 구체적인 말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참가한다.

목청을 한자말로는 《성대》라고 한다. 목청은 말소리를 내는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청은 사람의 목의 앞부분에 약간 도드라져나온 울대에 있는데 이 울대는 남자의 경우 눈으로 보고도 알수 있고 손으로 만져서도 확인할수 있다. 바로 여기서 소리의 근원이 되는 떨림이 만들어진다. 울대부위에 손을 대고 《아야어여오요》하고 소리를 내면 목청이 진동하는것을 쉽게 느낄수 있다.

목청의 진동수에 따라 목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성대의 진동수는 목청의 두께, 길이, 탄력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성대가 길고 두꺼울수록 진동수가 적어서 소리가 낮아지며 짧고 얇을수록 진동수가 많아져 소리가 높아진다. 남자보다는 녀자가,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소리가 높은것이 보통이다.

목젖은 입안의 제일 뒤쪽에 붙어있다. 목젖은 코안으로 날숨이 나가는것을 조절하는데 이로 하여 코안울림소리(례:[ㅁ])와 입안소리(례:[ㅂ])를 갈라 발음할수 있게 한다.

목젖이 붙어있는 앞에 있는 입안의 웃부분을 입천장이라고 한다. 입천장에서 목젖이 붙어있는 뒤쪽의 무른 부분을 뒤천장, 그앞의 굳은 부분을 앞천장이라고 한다. 혀를 우로 올려 더듬으면 주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앞천장이고 그뒤로 무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뒤천장이다.

발음기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작용하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혀이다.

혀의 여러 부위들은 주위의 다른 발음기관들과 함께 장애를 조성하여 소음적인 소리를 직접 내기도 하며 혀의 높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입안의 크기를 변경시켜 목청에서 낸 소리를 여러가

지로 다듬어내기도 한다. 실례로 [ㄴ]와 [ㄹ]는 혀끝과 웃이몸사이에서, [ㄷ]는 혀앞과 웃이몸사이에서, [ㅅ], [ㅈ]는 혀앞부분과 앞천장사이에서, [ㅎ], [ㄱ]는 혀뿌리와 뒤천장사이에서 이루어지며 [ㅣ]는 혀의 높이를 높인 상태에서, [ㅏ]는 혀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입술도 적극적인 능동적발음기관의 하나이다. 입술은 날숨이 나가는 통로의 맨끝에 있으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미 난 소리를 다듬기도 한다. 실례로 두 입술을 붙여 날숨을 막았다가 터치면 [ㅂ], [ㅍ], [ㅁ]와 같은 소리를 낼수 있으며 입술을 오무리거나 벌리여 [ㅗ]나 [ㅜ], [ㅡ]나 [ㅣ]와 같은 소리들을 갈라서 낼수 있다.

5) 발음요소

발음기관을 움직여 만들어내는 말의 소리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발음요소란 발음을 이루는데 참가하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는 발음할수 없는 발음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발음요소에는 말소리와 운률적요소의 두가지가 있다.

말소리는 발음을 이루는데 참가하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실현되는 발음의 구성단위가 아니다. 발음은 말소리들의 련속적인 흐름이며 말소리들은 이 흐름을 이루는 개별적인 점이라고 볼수 있다. 이때 이 개별적인 점들은 홀로는 존재할수 없고 오직 일정한 발음단위속에서만 존재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발음을 이루는데 참가하게 된다.

실례로 《고기》라는 말의 발음은 [ㄱ]와 [ㅗ], [ㄱ]와 [ㅣ]라는 말소리들이 련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발음덩어리로 묶이여 이루어진다.

운률적요소는 말소리와는 성격이 다른 발음의 구성요소이다.

말소리들이 시간적으로 앞서고 뒤서는 관계에 의해 순차적으로 배렬되여 하나의 흐름을 이루면서 발음을 구성하는데 참가한다면 운률적요소는 말소리들이 련결된데 덧붙으면서 간접적으로 그

흐름을 통일적인 발음으로 이루어주는데 참가한다.

운률적요소에는 크게 소리마루와 억양이 있다. 운률적요소는 소리의 높이나 길이와 같이 말소리흐름에 덧붙으면서 말소리흐름을 통일적인것으로 꾸며준다.

례를 들어 누구의 물음에 대답하는 말로 하는 《고기.》와 반문하는 투로 묻는 《고기?》의 발음을 생각해보자. 《고기.》는 앞부분을 뒤부분보다 높게 발음하며 《고기?》는 반대로 뒤부분을 앞부분보다 높여서 발음한다. 이때의 두 발음은 말소리구성은 같지만 운률적요소의 구성형식은 다르다. 알림의 《고기.》와 물음의 《고기?》는 운률적요소의 작용에 의해 구별이 되는것이다.

운률적요소는 발음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덧붙는 요소일뿐 주되는 구성요소로는 되지 못한다.

※ 운률적요소의 덧붙는 성질은 같은 높이로 여러개의 말소리를 발음할수도 있고 반대로 한가지 소리를 내면서 소리높이나 길이를 변경시킬수 있는데서 잘 알수 있다.

발음을 구성하는 기본구성요소는 말소리이다.

2. 말소리와 그 갈래

1) 소리

발음은 발음기관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여 말을 하는 과정이다.

물리적현상으로서의 소리는 물체가 진동할 때 만들어지는 음파가 사람의 귀에 울리여 지각되는 현상이다. 모든 물체는 움직일때 공기를 진동시켜 파동을 일으키는데 이 파동이 귀에 자극되여 소리로 느껴지는것을 음파라고 한다.

소리는 물리적인 현상이므로 그에 고유한 량적 및 질적측면을 가진다.

소리의 량적측면으로는 소리의 높이와 세기, 길이가 있다.

소리의 높이는 소리파동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단위시

간동안에 일어나는 떨기수로 나타낸다. 1초동안에 일어나는 떨기의 수를 주파수라고 하고 Hz(헤르쯔)로 단위를 표시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소리가 나게 된다. 현악기에서 소리높이는 줄의 길이와 굵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줄이 짧고 가늘수록 보다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것이다. 사람의 경우에는 목청의 길이와 두께에 의해 소리높이가 결정된다.

소리의 세기는 소리파동의 떨기너비에 의해 결정되는데 떨기너비가 클수록 보다 센 소리가 나온다. 현악기에서 소리의 세기가 그것을 얼마나 세게 튕기는가 하는데 따른다면 말소리의 세기는 날숨의 세기 즉 목청이 얼마나 크게 떨리는가 하는데 따른다. 소리세기의 측정단위는 dB(데시벨)이다. 소리압력이 20Pa(파스칼)에 일치하는 소리의 세기를 0dB로 하는데 이 준위는 대체로 1 000Hz일때의 소리들림한계와 일치한다.

소리의 길이는 소리파동의 떨기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의 경우 목청이 오래 떨면 긴 소리가 되며 짧게 떨면 짧은 소리가 된다.

한편 소리는 그의 질적측면에 따라 가락소리와 막소리로 나눈다.

가락소리는 소리파동의 떨기가 규칙적이고 일정한 높이를 가지는 소리이다. 가락소리를 음악적인 소리라고 하여 《악음》이라고도 한다. 악기들의 소리는 가락소리이다.

막소리는 소리파동의 떨기가 고르롭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소리로서 가락소리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문닫는 소리라든가 유리 깨

> 사람이 귀로 들을수 있는 소리파의 주파수범위는 약 20～20 000Hz이다. 주파수가 20 000Hz이상인 소리는 사람의 귀로 들을수 없으며 이런 소리파를 초음파라고 한다.
>
> 성별에 따른 말소리의 음역(소리구간)을 보면 조선어에서 남자의 경우는 보통 90～180Hz이고 녀자의 경우는 200～270Hz이다.

지는 소리라든가 하는것들은 다 막소리들이다. 이것을 악음에 상대해서 《소음》이라고도 부른다.

소리는 이러한 량적 및 질적측면들로 구분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느낌을 일으킨다. 소리느낌은 하나의 언어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소리에 대하여 내리는 공통적인 인상이며 평가이다. 소리느낌은 민족적특성을 가지며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르다.

2) 말소리

발음은 말소리들로 이루어진다.

말소리란 넓은 의미에서는 말의 소리 전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학술용어로서의 말소리는 발음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학술적으로 좀더 정식화한다면 말소리는 발음기관을 움직여서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가장 작은 소리단위이다. 말소리를 한자말로 《어음》이라고 하고 이를 전문하는 학문분야를 《어음론》이라고 한다. 통속적으로 말해서 말소리는 말을 이루는데 참가하는 개별적인 소리들이다.

말소리는 크게 소리의 질적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가른다. 즉 말소리에는 가락소리로 나는것과 막소리로 나는것이 있다.

말소리는 어느것이나 발음기관을 리용해서 날숨을 여러가지로 가공하여 얻는다. 날숨에 의해 목청에서 일어난 떨림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목안과 입안, 코안을 통해 울려나는 소리는 가락소리로 나며 날숨의 흐름에 여러가지 장애를 조성하여 불규칙적인 떨림을 일으키는 소리는 막소리로 난다. 언어학적으로는 이것을 각각 모음과 자음이라고 부른다.

즉 모음이란 목청을 떨어서 낸 소리가 입안에서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나오는 가락소리이며 자음은 입안에서 날숨에 장애를 주어서 내는 막소리이다.

모음은 목안, 입안, 코안으로 이루어지는 소리울림통의 모양을 여러가지로 변화시켜 다양한 말소리들로 나며 자음은 입술이나 혀 등의 발음기관들의 위치와 장애의 형태를 여러가지로 변화시켜서 각이한 말소리들로 만들어진다.

발음기관을 움직여 말소리를 내는 원리는 거의 모든 언어들에서 공통적이나 어떤 말소리를 그 언어의 음으로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언어마다 다르다. 한 언어에서 리용하는 말소리들의 총체를 말소리구성이라고 한다.

우리 말은 말소리구성이 풍부하고 째여있는 아주 우수한 언어이다.

그러면 우리 말의 모음과 자음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3) 모음의 갈래

현대조선어에서 모음은 모두 21개인데 이것들은 크게 10개의 홑모음과 11개의 겹모음으로 갈라진다.

여기서 홑모음이란 발음과정에 발음기관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하나의 모음요소로만 이루어진 모음이다. 우리 말의 홑모음에는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의 10개가 있다.

그리고 겹모음은 발음과정에 발음기관의 모양이 변하는 모음 즉 두개의 모음요소가 한 소리마디안에서 잇달아 발음되는 모음이다. 겹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그의 첫번째 모음요소를 발음할 때 취했던 발음기관의 모양이 다음 모음요소를 발음할 때의 모양으로 바뀐다. 우리 말의 겹모음들로는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ㅝ, ㅙ, ㅞ, ㅢ]의 11개가 있다. 여기서 앞의 6개는 짧은 [ㅣ]와 모음 [ㅏ, ㅓ, ㅗ, ㅜ, ㅐ, ㅔ]가 합쳐진것이고 다음의 4개는 짧은 [ㅜ]와 모음 [ㅏ, ㅓ, ㅐ, ㅔ]가 합쳐져 이루어진것이다. 마지막모음 [ㅢ]는 모음 [ㅡ]와 [ㅣ]가 겹쳐져 이루어진 모음이다.

우의 겹모음에 쓰인 짧은 [ㅣ]와 짧은 [ㅜ]를 독자적인 모음의 기능을 놀지 못한다 하여 반모음이라고 부른다.

모음은 해당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와 앞뒤위치, 입술의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로 가르는데 이에 따라 말소리의 느낌이 달라진다.

먼저 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 높은모음과 낮은모음으로 나눈

다. 홀모음의 경우를 보면 발음시 혀의 높이에 따라 [ㅣ, ㅜ, ㅡ, ㅟ]는 높은모음, [ㅓ, ㅔ]는 반높은모음, [ㅗ, ㅚ]는 반낮은모음, [ㅏ, ㅐ]는 낮은모음으로 된다. 낮은모음들은 소리느낌의 견지에서 볼 때 밝은 소리로 되며 높은모음쪽으로 가면서 어두운 소리로 된다.

다음 혀의 앞뒤움직임에 따라 앞모음과 뒤모음으로 가른다. 혀를 뒤부분으로 옮겨여 소리를 내는 [ㅏ, ㅓ, ㅗ, ㅜ, ㅡ]는 뒤모음이고 혀를 앞쪽으로 당겨서 소리를 내는 [ㅐ, ㅔ, ㅚ, ㅟ, ㅣ]는 앞모음이다. 글자형태상으로는 《ㅣ》가 포함된듯 한 형태를 갖춘 것들은 모두 앞모음이다. 뒤모음들은 소리느낌의 견지에서 깊은 소리로 느껴지며 앞모음들은 얕은 소리로 느껴진다.

다음으로 발음시 입술의 모양새에 따라 둥근모음과 길죽모음으로 나눈다. [ㅗ, ㅜ, ㅚ, ㅟ]는 둥근모음이며 [ㅏ, ㅓ, ㅐ, ㅔ] 등은 길죽모음이다. 우리 말에서 모음들의 밝고 어두운 대립은 대체로 둥근모음은 둥근모음끼리, 길죽모음은 길죽모음끼리 이루어진다. 실례로 《꼴꼴》과 《꿀꿀》, 《깔깔》과 《껄껄》에서 알수 있듯이 밝고 어두운 모음의 대치는 입술모양이 비슷한것끼리 [ㅗ] ㅡ [ㅜ], [ㅏ] ㅡ [ㅓ]로 대치된다. 소리느낌의 견지에서 둥근모음은 궁근 느낌이 있으며 길죽모음은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다.

4) 자음의 갈래

현대조선어의 자음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의 19개가 있다.

※ ( )안의 자음은 받침글자에 해당됨.

자음은 말소리의 조성위치와 조성방법, 소리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먼저 우리 말의 자음은 그의 조성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혀앞소리, 혀뒤소리로 나눈다.

입술소리는 두입술에서 날숨에 장애를 주어 내는 소리로서 [ㅁ, ㅂ, ㅃ, ㅍ]가 있다.

혀앞소리는 혀의 앞부분이 앞천장이나 웃이몸, 웃이와 작용하

여 내는 소리이다. 구체적으로 혀앞부분이 어느 발음부위에 작용하는가에 따라 앞천장소리([ㅈ, ㅉ, ㅊ, ㅅ, ㅆ, ㄹ])와 이몸소리([ㄷ, ㄸ, ㅌ, ㄴ]) 등으로 가르기도 한다.

혀뒤소리는 혀의 뒤부분과 뒤천장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여기에는 [ㄱ, ㄲ, ㅋ, ㅇ, ㅎ]가 속한다.

다음으로 우리 말 자음은 그 조성방식의 특성에 따라 터침소리, 스침소리, 터스침소리, 흐름소리로 나누기도 한다.

터침소리란 어느 한 발음부위에서 날숨을 막았다가 터치는 방법으로 내는 소리를 말한다. 조선어의 터침소리들로는 [ㅂ, ㅃ, ㅍ, ㅁ, ㄴ, ㄷ, ㄸ, ㅌ, ㄱ, ㄲ, ㅋ, ㅇ]가 있다.

날숨의 통로를 막기만 하고 터쳐내지 않는 방법으로 소리를 낼수도 있는데 이런 소리를 막힘소리라고 한다. 막힘소리는 날숨의 터침이 없을뿐 다른 소리성질은 터침소리와 같다. 터침이 없이 날숨이 안에서 갇히운다는데로부터 속터침소리라고도 한다. 단어 《밥》을 발음할 때 먼저 나는 [ㅂ]는 터침소리이고 받침으로 나는 [ㅂ]는 막힘소리(속터침소리)이다. 우리 말에서 막힘소리로 나는 말소리들로는 [ㅂ, ㄷ, ㄱ, ㅁ, ㄴ, ㅇ]의 여섯개가 있다.

스침소리란 일정한 발음부위들사이의 틈을 좁혀서 날숨을 스쳐보내는 방법으로 내는 소리를 말한다. 우리 말에는 [ㅅ, ㅆ, ㅎ]가 있다.

터스침소리는 터침에 이어서 스침이 덧붙어 일어나는 소리이다. 즉 터침과 스침의 두 과정이 합쳐져 하나의 발음과정으로 이루어지는것이 터스침소리이다. 우리 말의 터스침소리에는 [ㅈ, ㅉ, ㅊ]가 있다.

흐름소리는 튀김소리와 혀옆소리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튀김소리는 혀앞으로 앞천장을 튀기여 내는 소리이며 혀옆소리는 혀앞부분을 웃이몸이나 앞천장에 붙이고 혀의 량옆과 볼사이로 날숨을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우리 말에서는 튀김소리나 혀옆소리를 표기상 구별하지 않고 다같이 《ㄹ》로 표기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 말에서는 튀김소리에 류사한 [r](혀떨음소리라고 한다.)와 혀옆소리 [l]가 엄격히 구분되여있다.

자음은 다음으로 소리의 성격에 따라 순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등으로 갈라본다.

순한소리는 발음할 때 한곳에서의 기본장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자음이다. 자음 [ㄱ, ㄷ, ㅂ, ㅅ, ㅈ]가 순한소리에 속한다. 《순하다》는 표현은 《거세》고 《되다(굳다)》는 표현에 상대하여 붙인 말이다.

된소리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입안의 기본장애와 함께 목청터침의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자음이다. 이 두곳의 장애는 순차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실례로 [ㅃ]를 발음할 때는 막혔던 입술을 터치는것과 동시에 목청터침이 함께 일어난다. 우리 말의 된소리에는 [ㄲ, ㄸ, ㅃ, ㅆ, ㅉ]가 있다. 된소리는 소리느낌에 있어서 순한소리에 비해 단단하고 굳고 배고 센 느낌을 준다. (대비: 단단하다-딴딴하다)

거센소리는 입술 또는 입안에서의 기본장애밖에 혀뒤스침(또는 목청스침)이 겹친 자음이다. 장애가 두곳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데서는 된소리와 같으나 혀뒤 또는 목청에서 스침소리를 덧낸다는데서 차이가 있다. 우리 말 거센소리에는 [ㅋ, ㅌ, ㅍ, ㅊ]가 속한다. 거센소리는 소리느낌에 있어서 순한소리에 비해 거세고 탄력있고 규모가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대비:단단하다-탄탄하다)

울림소리는 입술과 입안의 일정한 발음부위에서의 장애와 함께 목청떨림이 겹쳐서 일어나는 자음이다. 유향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말의 울림소리들로는 [ㄴ, ㅁ, ㅇ, ㄹ]가 있다. 여기서 [ㄴ, ㅁ, ㅇ]은 날숨이 나갈 때 코로도 나가기때문에 코안소리라고도 하며 이에 상대해서 [ㄹ]를 입안울림소리라고 하기도 한다.

가락소리의 요소가 섞여나는 막소리로서의 울림소리에 대치시켜 울림소리이외의 자음들을 소음적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말소리는 목청울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눈다. 목청을 울리여 내는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하며 목청이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한다. 유성음을 《청소리》, 무성음을 《청없는소리》라고도 부른다. 모음과 울림소리들은 유성음이며 울림소리를 제외한 자음들은 무성음이다.

우리 말에서 자음 [ㄱ, ㄷ, ㅂ, ㅈ]는 무성음이지만 유성음사이에 놓이여 발음될 때에는 유성음화된다. 실례로 단어 《가방》, 《도구》, 《바지》, 《자다》에서 보면 매 단어의 첫 글자들의 발음에서 나는 [ㄱ, ㄷ, ㅂ, ㅈ]는 무성음이지만 두번째 글자들의 발음에서 나는 [ㅂ, ㄱ, ㅈ, ㄷ]는 각기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성과 무성의 구별은 우리 말에서 별로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3. 말소리흐름

1) 발음단위

발음은 개개의 말소리들이 시간적으로 앞서고 뒤서는 련속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별적인 말소리들의 련속과정을 말소리흐름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말은 말소리흐름으로 실현된다. 그 어떤 사람도 개개의 말소리를 개개로 발음하여 말할수 없다.

《말》이라는 단어를 실례로 든다면 [ㅁ, ㅏ, ㄹ]라는 구체적인 말소리들이 일정한 순서로 결합되여서 [ㅁㅏㄹ]이라는 말소리흐름을 만들어낸다. 먼저 [ㅁ]라는 말소리가 입술터침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어 낮은모음인 [ㅏ]라는 말소리가 따라서고 계속해서 혀옆소리인 [ㄹ]가 발음되면서 [말]이라는 소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발음은 흐름식으로 진행되며 이 결과에 말소리흐름이 생긴다. 그렇다고 하여 이 말소리흐름이 말소리들의 끊임없는 련속과정이라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말소리흐름에는 일정한 단위에 따르는 구획이 있다. 말소리흐름속에서 일정한 구획을 지울수 있는 단위를 발음단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소리흐름속에서 구획지어지는 발음의 덩어리들이 어떤 성격에 따라 구획지어지는것인가에 따라 발음단위를 크게 소리마디, 소리토막, 소리매듭, 소리동강으로 나눈다. 여기서 소

리마디는 뜻과 관계없이 순수 어음적인 구획을 지어주는 발음단위이며 소리토막, 소리매듭, 소리동강은 소리마디들이 결합되여 뜻을 가진 언어적단위를 이루는 발음덩어리들이다.

2) 소리마디

소리마디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말소리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되여 독자적으로 발음될수 있는 가장 작은 발음덩어리이다. 소리마디를 한자어로 음절이라고도 한다.

소리마디는 발음실현의 가장 작은 기초단위이다. 모든 말소리는 최소한 소리마디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실례로 [ㅁ]라는 말소리는 [마, 말, 목]이나 [암, 짐]과 같은 구체적인 소리마디의 첫소리나 끝소리로 나타난다.

우리 말에서 소리마디는 하나의 모음이나 또는 모음을 중심으로 하나이상의 자음들이 앞이나 뒤에 묶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말의 소리마디는 모음만으로 된것, 자음과 모음의 순서로 결합된것, 모음과 자음의 순서로 결합된것, 자음과 모음, 자음의 순서로 결합된것의 네가지 류형이 있다.

○ 아[ㅏ], 오[ㅗ], 이[ㅣ], 애[ㅐ]
○ 자[ㅈㅏ], 새[ㅅㅐ], 페[ㅍㅔ], 끼[ㄲㅣ]
○ 움[ㅜㅁ], 웬[ㅞㄴ], 앎[ㅏㅁ]
○ 각[ㄱㅏㄱ], 닦[ㄷㅏㄱ], 닭[ㄷㅏㄱ]

소리마디를 《자음+모음+자음》의 구조로 이루어진것으로 볼 때 모음의 앞에 놓이는 소리를 첫소리라고 하고 모음은 가운데소리라고 하며 모음의 뒤에 놓이는 소리를 끝소리 또는 받침소리라고 한다. 이것을 각기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도 한다.

소리마디는 끝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따라 닫긴마디와 열린마디로 가른다. 즉 끝소리가 있는 소리마디를 닫긴마디라고 하며 끝소리가 없는, 다시말하여 모음으로 끝난 소리마디를 열린마디라고 한다. 이것을 각기 폐음절과 개음절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열린마디는 모음으로 끝나기때문에 모음의 고르로운 울림소리에 의해 닫긴소리보다 발음이 부드럽고 깨끗하며 울림도가 높아 듣기에도 류창한 느낌을 준다. 또한 열린마디는 뒤에 오는 말소리와 쉽게 이어지면서 발음과정을 더욱 유순하고 아름답게 하여준다. 우리 말은 열린마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조화롭게 분포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발음이 더욱 류창하고 부드러운것으로 되게 한다.

소리마디의 첫소리위치와 가운데위치에서 말소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소리값대로 발음된다. 자기 소리값대로 발음된다는것은 발음기관들이 놓이는 위치나 발음방식이 달라짐이 없이 기본값대로 발음된다는것을 말한다.

하여 소리마디의 첫소리위치에서는 순한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들이 다 제대로 나며 터침소리와 스침소리, 터스

듣기에도 아름다운 우리 말 발음

우리 말의 발음이 듣기에 아름다운것은 발음에서 울림소리의 비중이 높은것과 관계된다. 울림소리는 가락소리의 요소가 많은 말소리들로서 모음전체와 울림소리자음들인 /ㄴ, ㄹ, ㅁ, ㅇ/ 같은것이 여기에 속한다. 소리마디의 경우에는 울림소리로 끝나는가 아니면 울림없는 막힘소리로 끝나는가에 따라 발음의 울림정도가 평가된다. 울림정도가 높을수록 선률에서의 음과 같이 고르롭고 안정된 소리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 말의 실지 발음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소리마디 즉 열린소리마디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순수 막힘소리로 끝나는 소리마디는 극히 적게 나타난다.

약 4천만개의 소리마디로 구성된 자료를 분석한데 의하면 실지 열린소리마디는 67.6%, 울림소리자음으로 끝나는 소리마디 즉 반열린소리마디가 26.75%이며 막힘소리로 끝난 닫긴소리마디는 5.65%정도이다.

침소리들이 원만하게 다 발음된다. 가운데소리인 모음도 마찬가지이다.

소리마디의 끝소리위치에서 자음은 일련의 변형된 형태로 발음된다. 소리마디의 끝소리위치에서는 순한소리와 울림소리만이 발음되고 거센소리와 된소리는 발음되지 않으며 막힘소리만이 나고 스침이나 터스침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끝소리위치에서는 막힘소리인 [ㅂ, ㄷ, ㄱ]와 반막힘소리(울림소리)인 [ㅁ, ㄴ, ㄹ, ㅇ]의 일곱개만이 발음된다.

소리마디는 뜻있는 언어적단위와 일치되게 묶이여 일정한 발음단위들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소리토막, 소리동강이다.

3) 소리토막과 소리동강

소리토막은 하나이상의 소리마디가 소리마루에 의해 묶이여지는 발음단위이다.

소리토막은 운률적요소인 소리마루에 의하여 묶어지며 뜻있는 언어적단위인 단어에 일치한다.

실례로 《혁명의 주인는 인민대중이다》에서 갈라져나오는 발음덩어리들인 [형명의], [주이는], [인민대중이다]는 다 여러개의 소리마디들이 뭉쳐서 이루어지는 소리토막들이다. 이 소리토막들은 곧 《혁명의》와 《주인은》, 《인민대중이다》라는 뜻을 가진 언어적단위인 단어에 일치한다.

말소리흐름속에서 구획되는 소리토막이 하나의 전일적인 발음상의 통일체라고 하는것은 그안의 소리마디들이 하나의 소리마루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묶여지고 말소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규칙적인 현상도 소리토막을 단위로 하여 일어나며 소리토막이 끊기에 의해 구획되는 발음단위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의 실례에서 [형명의]라는 소리토막은 단어 《혁명》의 첫소리마디인 《혁》에 오는 소리마루를 중심으로 [형, 명, 의]라는 소리마디들이 밀접히 련결되여 이루어진 덩어리이다. 또 《혁명의》의 《혁》이 [형]으로 발음되는것이라든가 《주인은》이 [주이는]으로 되는것들은 다 소리토막안에서 말소리법칙들이 작용하였기때문이다. 반대로 《주인은》의 끝에 나는 말소리 [ㄴ]가 《인민대중이다》의 첫소리마디인 [인]의 첫소리로 이어나지 않는것은 그것이 끊기에 의해 구획되는 서로 다른 소리토막안에 있는 소리들이기때문이다.

소리토막들은 한편으로는 뜻있는 언어적단위와 일치하는 발음단위들이다. 소리토막들의 계선은 언제나 뜻있는 언어적단위들의 계선이 있는데 그어지며 어떤 경우에도 뜻있는 언어적단위의 한가운데 그어지는 일이 없다. 소리토막이 일치하는 뜻있는 언어적단위란 바로 단어, 기본적으로는 자립적단어이다. 단어를 이루는데 참가하는 형태부나 문장안에서 보조적인 의미만을 나타내거나 다른 단어들에 붙어서만 쓰이는 자립성이 없는 단어들은 하나의 소리토막을 이루지 못하고 자립적단어의 앞뒤에 붙어서 그와 함께 소리토막을 이룬다.

말소리들의 구체적실현은 소리토막에 와서야 비로소 결정된다. 즉 뜻있는 언어적단위와 일치될 때 말소리흐름안의 구체적인 말소리배렬이 결정된다. 실례로 형태상으로는 《기발》이라고 표기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언어적뜻과 련결되는가 하는데 따라 [기발]로 발음될수도 있고 [기빨]로 발음될수도 있다. 오직 문장안의 구체적인 소리토막으로 되여 《기발을》이라든가 《기발한》과 같이 구체적인 언어적뜻이 련결되였을 때에야 [기빠를]이나 [기바란]과 같은 말소리흐름의 실체를 확정할수 있는것이다.

소리동강은 하나이상의 소리토막들이 억양에 의해 묶이여진 전일적인 발음단위를 말한다. 소리동강은 문장에 일치하는 가장 큰 발음단위이다. 앞에서 언급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를 실례로 들수 있다.

소리동강은 억양에 의해 통일된 소리토막들의 결합이다. 억양에 의해 소리토막들은 하나의 발음덩어리로 되며 소리토막들이 나타내는 개별적인 뜻들이 통일되여 완전한 뜻 즉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발음단위의 특수한 경우로서 소리매듭이 있다. 소리매듭은 소리동강이 길어서 그안의 소리토막들의 결합을 일정한 구획을 지어

발음할 때 생기는 구획단위이다. 소리매듭은 말소리흐름의 끊기에 의해 구획지어진다.

4) 운률적요소

말소리흐름은 단순히 말소리들의 묶음으로뿐아니라 그 련결을 꾸미는 요소가 덧붙은 흐름이다. 소리토막, 소리동강의 련속으로 이루어지는 말소리흐름은 높고낮은 혹은 세고약한 혹은 길고짧은 굴곡을 만들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굴곡은 단어발음에서도 나타나며 문장의 발음에서도 나타난다. 단어발음에서 나타나는 굴곡을 소리마루라고 하고 문장발음에서 나타나는 굴곡을 억양이라고 한다.

소리마루와 억양은 말소리흐름을 꾸미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이것들을 《꾸미는 요소》라고 하는것은 그것들이 말소리흐름가운데서 어떤 곳은 높게 발음하고 어떤 곳은 세게 소리내며 어떤 곳은 길게 뽑는 식으로 말소리흐름선을 다듬기때문이다. 이 요소들을 소리의 높낮이와 세기, 길이와 같은 음악적요소들이라 하여 《운률적요소》라고 부른다.

소리마루는 하나의 단어나 단어결합안에서 어떤 소리마디를 다른 소리마디보다 세게 발음하거나 일정한 높이나 길이로 발음하여 가락을 이루게 하는 발음현상 또는 그렇게 발음되는 소리마디를 말한다. 소리마루를 《단어력점》 또는 《악센트》라고도 부른다.

소리마루에는 높이마루와 세기마루, 길이마루가 있다.

높이마루는 단어의 어느 한 부분을 다른 부분들보다 더 높게 발음하여 그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소리마루이다. 실례로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소리마루는 가운데소리마디인 [버]에 오는데 이 소리마디는 앞뒤의 소리마디인 [아]나 [지]보다 높게 발음한다.

세기마루는 단어의 어느 한 부분을 세게 발음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소리마루이며 길이마루는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길게 발음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소리마루이다. 우리 말 소리마루에서 기본은 높이마루이며 여기에 길이마루가 결합되여 나타난다.

억양은 문장을 하나의 전일적인 발음단위로 만들고 그것을 다른 문장과 구획짓는 발음요소이다. 억양의 기본구성요소는 높낮이선, 률동, 끊기의 세가지이다.

높낮이선은 말소리흐름가운데서 소리를 높이고 낮추는데 따라 이루어지는 굴곡이다. 높낮이선을 《어조》라고도 한다. 우리는 대체로 무엇인가를 묻는 경우에 문장의 끝을 높이며 어떤 내용을 알려줄 때는 문장의 끝을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내용과 정황에 맞게 문장의 끝맺음과 이음의 높낮이를 알맞게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말소리흐름의 굴곡이 바로 높낮이선이다.

률동은 소리를 세고약하게 내는 힘주기와 일정한 간격으로 되풀이되는 박자로 이루어지는 말소리흐름선상의 변화이다.

끊기는 억양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끊기는 말소리흐름속에서 발음행위를 중단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말소리흐름을 끊는 현상이다. 끊기는 완전끊기와 불완전끊기의 두가지로 가른다. 완전끊기는 발음행위를 완전히 중지하고 모든 발음기관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서 쉬는 끊기로서 시간상으로 4~5개의 소리마디를 발음하는 동안만큼 발음을 중단하는 끊기이며 문장과 문장 즉 소리동강과 소리동강사이에 있게 되는 끊기이다. 불완전한 끊기는 발음기관들은 운동상태에 있으면서 발음행위만을 중단하는 끊기이며 시간상으로는 0.5~3개의 소리마디를 발음하는 동안만큼의 끊기이다. 불완전한 끊기는 소리토막이나 소리매듭들사이의 계선에서 흔히 나타난다.

말의 속도란 말소리흐름의 빠른 정도를 말한다. 말의 속도는 단위시간당 발음한 소리마디의 수에 의해 나타낼수도 있다. 우리 말에서 산문을 읽는 속도는 1분동안에 260~270개의 소리마디를 발음하는것이 보통이며 시를 읊을 때는 1분동안에 170개정도의 소리마디를 발음하는것이 보통이다.

억양의 구성요소로는 높낮이선과 률동, 끊기밖에 말의 속도, 소리빛갈과 같이 이야기내용과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할수 있는 구성요소들도 있다.

4. 우리 말 말소리법칙

1) 단어의 말소리변화

구체적인 발음행위들은 단어나 문장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시말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언어적단위를 단위로 하여 발음행위가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뜻있는 언어적단위는 단어와 그것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이다.

단어나 문장을 발음할 때 그를 구성하고있는 단어 또는 형태부의 원래의 말소리구성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혁명》이라는 단어는 [형명]이라고 발음하게 되는데 이때 《혁》의 받침소리인 《ㄱ》은 [형]이라고 할 때의 받침소리인 [ㅇ]과 같은 말소리로 바뀌여 발음된다.

이렇게 발음과정에 단어나 형태부들이 원래의 말소리구성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소리변화라고 한다.

단어나 문장을 발음할 때 단어나 형태부의 소리마디계선도 달라질수 있다. 실례로 단어 《꽃》의 단어형태인 《꽃이》는 [꼬치]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때 단어(형태단어)의 소리마디계선은 소리토막을 단위로 재구성된다. 소리토막안에서 소리마디계선의 재구성으로 하여 《꽃》에서의 《ㅊ》이 막힘소리 [ㄷ]로 발음되던것이 《꽃이》에서는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나면서 거센 터스침소리인 [ㅊ]로 발음되는것이다.

단어나 문장의 발음에서 이루어지는 말소리구성의 변화나 소리마디계선의 재구성은 모두 소리토막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소리토막은 기본적으로 단어에 일치하는 발음단위이므로 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는 곧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할수 있다.

말소리변화는 말소리들이 어떤 조건속에서 변하는가 하는데 따라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하나는 말소리들이 소리마디의 어느 위치에서 발음되는가 하는데 따르는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말소리들이 자기 앞뒤에 놓이는 말소리들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것을 언어학용어로는 각기 위치적변화와 결합적변화라고 부른다.

실례로 단어 《풋낯》은 [푼낟]이라고 발음하는데 여기서 단어의 마지막에 놓이는 《ㅊ》이 [ㄷ]로 발음되는것은 그의 위치적조건과 관련되는 발음현상이며 《풋》의 《ㅅ》이 [ㄴ]로 발음된것은 뒤에 놓이는 《ㄴ》의 영향을 받은 결합적변화의 결과이다.

말소리들의 변화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형식과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로 갈라본다.

말소리변화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데 따라 말소리변화는 소리바꾸기, 소리끼우기, 소리빠지기, 소리줄이기로 갈라본다. 소리바꾸기에는 소리닮기와 소리따르기와 같은 말소리변화가 포함된다.

또한 말소리변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어떤 말소리로 얻어졌는가에 따라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입천장소리되기, 막힘소리되기 등으로 갈라보기도 한다.

2) 말소리과정과 말소리법칙

발음덩어리안에서 말소리들은 원래의 소리 그대로 나기도 하고 위치나 결합적조건으로 하여 표기의 소리 그대로 나지 않고 다른 소리로 바뀌여 나거나 다른 소리마디에 옮겨져 소리나는 등 일정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소리토막을 이루는 말소리흐름안에서 말소리들이 여러가지로 변화를 입어 발음되는 과정을 말소리과정이라고 한다.

말소리과정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일련의 언어적법칙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말소리흐름안에서 말소리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배하는 언어적법칙을 말소리법칙이라고 한다.

말소리법칙에는 현행적인것도 있고 력사적인것도 있다. 현행적

인 말소리법칙은 현재의 발음토대에 기초하여 말소리변화의 규칙성이 설명되는 말소리법칙이며 력사적인 말소리법칙은 과거의 시대에 존재하였고 지금은 작용을 멈춘 발음에서의 말소리법칙이다.

단어안에서 말소리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것은 발음덩어리안에서 말소리들이 놓이는 위치와 린접한 말소리들의 호상작용과 련관된 발음생리적인 필연적결과이며 동시에 말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력사적으로 리용해온 단어발음에서의 관습적규칙의 작용의 결과이다.

말소리과정이 일어나는 원인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의 말소리법칙은 주로 발음생리적요인에 근거한다면 력사적인 말소리법칙들은 력사적발음관습에 기초하고있다.

력사적인 말소리법칙에 의해 형성된 단어의 발음이 오늘의 발음에 관습적인것으로 이어져 관습적인 말소리법칙을 형성한다.

단어안에서 말소리변화가 일어나는 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의 말소리법칙들은 형태부나 단순단어범위안에서 말소리들의 위치적, 결합적조건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이다. 한편 관습적인 말소리법칙들은 주로 파생단어나 합성단어의 범위안에서 형태부들간의 말소리결합조건에 따라 작용하는 규칙이다. 그러므로 순수 말소리들의 위치적 및 결합적조건만을 고려할 때 현행의 말소리법칙들은 《절대적인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관습적인 말소리법칙들은 절대적인것이 되지 못한다.

3) 첫소리법칙과 끝소리법칙

말소리들은 그것들이 놓이는 위치의 제약을 받아 변화될수 있다. 말소리들이 단어(소리토막)안에서 놓이는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게 되는 법칙성을 반영한것이 위치적변화규칙이다.

우리 말에서 말소리들의 실현위치에 따른 변화는 크게 두가지 즉 소리토막의 첫소리위치에서와 끝소리위치에서의 변화로 갈라본다. 소리토막의 첫소리위치와 끝소리위치에서의 말소리들의 규칙적인 변화를 언어학에서는 첫소리법칙, 끝소리법칙이라고 한다.

첫소리법칙은 소리토막의 첫소리위치에서 일부 말소리가 본래의 소리값과 달리 발음되게 하는 말소리법칙이다.

자음 《ㅇ》은 어떤 경우에도 단어의 첫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우리가 글을 쓸 때 《ㅇ》을 소리마디글자의 첫소리위치에 표기하는것은 글자표기의 원리에 따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소리마디를 다른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표기하는 형식상의 표시방법에 불과하다. 말소리로서의 [ㅇ]은 그 어느때이든 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일이 없다.(35페지 참조)

례:아이, 어른, 오이, 우리 …

지금은 작용을 멈춘 력사적인 첫소리법칙도 있다. 그것이 바로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력사적인 말소리법칙이다. (여기서 《두음》이란 《단어의 첫머리에 놓인 말소리》를 의미한다.)

우리 말에서 자음 《ㄹ》은 지난 시기에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할수 없는 말소리로 인정되여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은 겹모음앞에서는 발음하지 않고 홑모음앞에서 [ㄴ]로 발음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하여 지금은 누구나 쉽게 발음할수 있는 《량심》이나 《래일》과 같은 단어도 [양심]이나 [내일]로 발음하는것으로 되여왔다. 자음 《ㄹ》은 단어 《나라》나 《알》에서와 같이 오직 단어의 가운데나 끝에서 튀김소리나 혀옆소리로 발음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자음 《ㄴ》도 겹모음앞에서는 발음할수 없거나 힘든것으로 여기면서 《녀성》이나 《뉴대》와 같은 말도 [여성]이나 [유대]로 발음하였다.

오늘에 와서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이나 《ㄴ》은 그대로 발음되고있다. 결국 《두음법칙》은 과거의 력사적인 말소리법칙으로 되여 현행의 말소리법칙으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였다.

끝소리법칙은 소리토막의 끝소리위치에서 말소리들이 실현되는 규칙성을 반영하는 말소리법칙이다.

끝소리위치에 놓이는 자음들의 발음도 일부 달라지는것들이 있다. 여기서 끝소리란 단어의 끝에 나는 소리를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된것처럼 우리 말은 받침소리위치에서 《ㄱ, ㄴ, ㄹ, ㅁ, ㅂ, ㄷ, ㅇ》의 7개 소리만이 발음된다.

이외의 말소리들은 이 일곱개의 소리중 어느 하나로 바뀌여 발음된다.

끝소리위치에서 《ㅋ, ㄲ》은 [ㄱ]로, 《ㅅ, ㅈ, ㅊ, ㅆ, ㅎ》은 [ㄷ]로, 《ㅍ》은 [ㅂ]로 바뀌여 발음된다.

○ 낫[낟], 낮[낟], 낯[낟], 잎[입], 밖[박]

그러나 끝소리가 아닌 받침소리 다시말해서 단어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받침소리는 그 뒤에 어떤 말소리가 오는가에 따라 그대로 발음될수도 있고 단어의 끝에서처럼 다른 소리로 바뀌여 날수도 있다. 받침소리뒤에 자음이 놓일 때에는 단어의 끝위치에서처럼 해당한 막힘소리(7개의 받침소리중 어느 하나)로 바뀌여 발음된다.

○ 낫등[낟뜽], 낮교대[낟꾜대], 잎사귀[입싸귀]

○ 낫을[나슬], 낮일[나질], 잎을[이플]

4) 소리바꾸기

결합적변화는 말소리흐름상에서 말소리들이 그 앞이나 뒤에 놓이는 말소리들의 영향을 입어 달라지는 말소리변화이다.

결합적변화는 위치적변화에 비하여 변화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더 복잡하다. 사실 말소리변화과정에서 기본은 말소리들의 결합적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합적변화과정을 지배하는 말소리법칙에는 순수 말소리들의 결합조건만이 아니라 단어를 이루는 형태부들의 결합조건도 같이 관계된다. 다시말하여 단어(소리토막)안에서 말소리들은 형태부구성과 말소리들의 결합조건의 제약을 받아 일련의 말소리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말의 결합적변화는 소리바꾸기, 소리빠지기, 소리줄이기, 소리끼우기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결합적조건에 의한 소리바꾸기는 소리닮기, 소리따르기, 된소리되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소리닮기는 단어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이웃에 있는 같은 부류(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의 말소리의 영향을 입어서 그와 같거나 비슷한 말소리로 바뀌여 발음되는 말소리변화이다.

○ 혁명[형명], 밥물[밤물], 덧문[던문]

○ 훈련[훌련], 문란[물란]

○ 달나라[달라라], 순리익[순니익]

○ 속력[송녁], 협력[혐녁]

첫번째와 두번째 실례는 뒤의 말소리의 영향을 입어 앞에 놓인 말소리가 뒤의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말소리로 바뀐 실례이다. 이런 닮기를 울리닮기라고 한다. 세번째는 뒤의 말소리자 앞의것을 닮아 앞의것과 같은 말소리로 바뀐 실례이며 네번째는 앞뒤의 말소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바뀌여난 실례이다. 이것을 각기 내리닮기, 동시닮기라고 부른다.

소리닮기의 결과로 울림없는 막힘소리가 울림소리로 바뀐것을 울림소리되기, 코안울림소리가 혀옆소리로 바뀐것을 혀옆소리되기, 튀김소리가 코안울림소리로 된것을 코안울림소리되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소리따르기는 말소리흐름속에서 나란히 놓인 자음과 모음사이에서 자음이 모음에 또는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주어 그에 비슷한 말소리로 발음되게 하는 말소리법칙이다.

○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우의 실례는 자음이 모음의 성질을 따라 변한것이다. 여기서처럼 혀앞터침소리들인 [ㄷ], [ㅌ]가 뒤에 오는 높은 앞모음인 [ㅣ]의 영향을 입어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인 [ㅈ], [ㅊ]로 바뀌여 나는 현상을 입천장소리되기라고 부른다.

말소리흐름에서는 순한소리가 앞에 오는 받침소리자음의 영향으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된소리되기라고 부른다.

된소리되기는 앞에 놓인 받침소리가 울림이 없는 막힘소리인 경우에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렇지만 울림소리받침의 경우에는 제한된 형태부구성조건하에서만 관습적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속도[속또], 밥곽[밥꽉]

○ 안다[안따], 삼다[삼따]

○ 발동[발똥], 실수[실쑤]
○ 강가[강까], 길가[길까], 해변가[해변까]
○ 내가[내까], 부두가[부두까]

우의 실례들은 모두 된소리되기의 실례들이지만 말소리결합조건과 된소리로 나게 되는 원인은 같지 않다. 첫째 실례는 막힘소리뒤에 놓이는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난것이고 둘째와 셋째, 넷째 실례는 울림소리뒤에 놓인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바뀐것이며 다섯째 것은 모음들사이에 놓인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실례이다. 넷째와 다섯째 실례를 보면 말소리결합조건은 차이가 있으나 단어들의 형태부구성에서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것이 된소리되기와 련관이 있음을 알수 있다. 즉 《변두리》의 뜻을 나타내는 뒤붙이인 《-가》가 공통적으로 쓰이고있고 그것이 된소리로 나타난것이다. 넷째와 다섯째 실례는 모두 뒤에서 설명하게 되는 막힘소리끼우기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막힘소리뒤의 된소리되기이다.(33페지, 92~93페지 참조)

5) 소리빠지기와 소리줄이기

결합적변화에는 소리빠지기와 소리줄이기의 말소리변화과정도 있다.

소리빠지기는 단어발음에서 형태부를 구성하고있는 말소리가 일정한 말소리결합조건속에서 빠지여 발음되지 않거나 약하게 발음되는 법칙적인 발음현상이다.

우리 말 발음에서 소리빠지기는 둘받침의 발음에서 법칙적으로 나타난다. 둘받침이 단어(소리토막)의 끝이나 자음의 앞에 놓이면 둘받침의 어느 한 자음은 발음되지 않고 빠진다.

○ 밟다[밥따], 맑다[막따], 없다[업따]

우리 말 단어안에서 모음과 모음사이 또는 울림소리와 모음사이에 놓이는 《ㅎ》은 유성음화되면서 약해지거나 아예 발음되지 않고 빠져버리기도 한다. 특히 받침위치에 놓이는 《ㅎ》은 모음앞에서 빠져서 발음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음이나 울림소리받침뒤에 놓이는 《ㅎ》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발음된다.

○ 좋아[조아], 닿으니[다으니]
○ 전화[전화~저놔], 간절히[간절히~간저리]

소리줄이기는 단어안에서 나란히 놓이는 두개의 말소리들이 합쳐져 하나의 말소리로 줄어 나는 법칙적인 발음현상이다.

○ 가득히[가드키], 좋다[조타]
○ 보아서[봐서], 이야기[얘기]

앞의 실례는 목구멍스침소리인 [ㅎ]와 순한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이며 둘째번의 실례는 두개의 모음이 합쳐져 겹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의 소리줄이기이다. 목구멍스침소리 [ㅎ]와 순한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소리줄이기를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6) 소리끼우기

소리끼우기는 원래의 말소리구성에 없던 말소리가 끼워나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끼워나는 말소리는 자음일수도 있고 모음일수도 있다.

우리 말에서 대표적인 소리끼우기는 형태부들사이에 자음이 끼워나는 자음끼우기이다.

○ 차길[차ㄷ길→차낄], 령길[령ㄷ길→령낄], 뒤문[뒤ㄷ문→뒨문] ⊙
○ 어금이[어금니], 물약[물냑→물략], 뒤일[뒤ㄷ닐→뒨닐] ○
○ 가시오[가시요], 기압[기얍] ×

자음의 끼우기는 단어발음의 력사적인 변화발전과 련관되는 관습적인 발음법칙의 하나로서 단어의 형태부구성과 밀접하게 관계되여있다.

우의 실례에서 첫번째것은 두 형태부사이에 《사이소리》로 불리우는 막힘소리 [ㄷ]가 끼여든 실례이고 두번째것은 두 형태부사이에 코안울림소리 [ㄴ]가 덧나게 발음된 실례이다. 셋째것은 모음과 모음사이에 반모음요소가 끼여나면서 뒤의 홑모음이 겹모음으로 발음된 실례이다.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자음이 끼워나는 경우에 말소리흐름속에 끼워든 말소리는 주위의 말소리들과의 결합조건에 따라 해당한 말소리변화를 일으킨다. 우의 실례에서는 막힘소리가 끼여난것이 막

힘소리뒤의 된소리되기와 울림소리닮기, 혀옆소리되기 등의 소리바꾸기를 일으키고있다.

5. 발음과 표기

1) 글자

발음된 소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멀리 떨어져있으면 들을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의 언어는 제한성을 가진다. 말의 언어가 가지는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것이 글자이다. 글자는 말을 적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만든 언어적기호이다.

글자는 류형상으로 그림글자와 뜻글자, 소리글자로 가르며 소리글자는 또 자모글자와 소리마디글자로 갈라본다.

우리 글자는 가장 발전된 류형인 자모글자이며 가장 작은 발음단위인 소리마디를 단위로 묶어쓸수 있게 되여있는 아주 우수한 글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글자는 결합방식이 과학적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한 발음도 다 표기할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135페지)

우리 나라 글자는 글자창제의 원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쉽게 배우고 활용할수 있는 등 여러가지 우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글자이다.

우리 글은 개별적인 말소리들을 따로따로 나타내는 자모글자이면서 첫소리와 끝소리를 나타내는 자음글자와 가운데소리를 나타내는 모음글자를 구분하여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이 글자는 우리 말의 풍부한 말소리들을 다 잘 나타낼수 있는것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말의 다양하고 복잡한 말소리들도 거의 다 나타낼수 있게 되여있다. 우리 나라 자모의 수는 말소리의 수와 일치한다. 즉 자음자가 19개, 모음자가 21개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말소리들을 우리 글의 자모들로 충분히, 정확히 나타낼수 있다.

또한 우리 글자는 그 결합방식이 과학적으로 되여있어서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한 발음도 다 나타낼수 있다. 우리 글자는 가운데소리를 나타내는 모음자를 기본으로 하고 그 앞뒤에 자음자를 붙여서 소리마디단위로 묶어쓰게 되여있다. 그리하여 자모글자는 40개이지만 실지 리용하게 되는 글자는 《가, 각, 간, 갈, 감, 갑, 값…》과 같이 많아진다. 이렇게 자모글자들을 모아서 소리마디단위로 넓적하게 씌여진것들을 넓적글자 또는 네모글자라고 한다. 흔히 우리들의 서사생활에서 쓰이는 글자의 의미는 자모글자 하나하나가 아니고 《가, 각, 간…》과 같은 넓적글자들이다.

소리마디와 기본적으로 대응되는 우리 글자(넓적글자)는 한 글자에 반드시 하나의 모음글자가 있고 그의 앞이나 뒤에 하나 혹은 두개의 자음글자를 첫소리나 끝소리로 적는 원리로 되여있다. 모음앞에 아무런 자음도 없는, 다시말해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소리마디인 경우에는 자음자 《ㅇ》을 대치시킨다. 《ㅇ》은 모음자앞에 놓일 때에는 모음앞에 아무런 자음도 없다는것을 나타내며 받침글자로 쓰인 경우에만 막힘소리 [ㅇ]을 나타낸다.(29페지의 첫소리법칙 참조)

2) 말과 글

말소리와 자모글자의 수가 일치할수 있어도 말소리와 글자는 실제적인 언어생활속에서 완전한 대응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즉 글자와 말소리, 말소리와 글자가 완전히 맞먹는 관계에 놓이지는 않는다.

말소리와 글자가 완전한 대응관계속에 놓인다는것은 어떤 글자는 꼭 대응되는 한가지 말소리로만 발음되며 한편 발음한 말소리수만큼 글자로 쓰고 또 글자로 쓴만큼 발음하는 관계에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즉 표기한대로 발음하고 발음한대로 표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말과 글의 관계는 언제나 1 대 1의 대응관계에 놓이는것이 아니다.

말소리는 개개의것으로가 아니라 련쇄된 흐름으로 실현된다. 말소리흐름속에서 말소리와 자모글자의 대응관계를 놓고보면 그것

들이 완전한 대응관계속에 있지 않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말을 글로 적을 때 발음하지 않는 글자를 쓰는 경우, 글을 읽을 때 모든 자모글자를 다 발음하지 않거나 씌여지지 않은 말소리를 발음하는 경우를 실례로 들수 있다. 《아이》, 《오이》와 같은 단어에서 《ㅇ》은 발음되지 않는 자모글자이며 [마니]라고 발음하면서도 쓰기는 《ㅎ》과 《ㅇ》을 더 써서 《많이》라고 쓴다. 또한 《이몸》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ㄴ]소리를 덧내여 [인몸]이라고 발음하며 《이발》은 [이발]이 아니라 [이빨]이라고 발음하는것이다.

말을 글로 적으면서 실지 발음한 말소리를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모글자로 표기하거나 글을 읽으면서 씌여진대로의 말소리가 아니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형명]이라는 말을 《혁명》이라고 적으며 《발머리》와 《강가》를 [반머리], [강까]라고 읽는것이 그 실례이다.

이렇게 글자는 발음하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 말소리와 글자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언어들뿐아니라 그 수가 일치한 언어들이라도 글자는 소리나는대로 적지 않으며 또 적을수도 없다. 즉 말과 글은 완전히 대응되지 않는다.

이처럼 글자와 말소리, 말소리와 글자는 완전히 맞먹는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말소리와 글자가 완전한 대응속에 놓이지 않는것은 말의 언어와 글의 언어에 작용하는 규범적요구가 다르기때문이다.

3) 맞춤법과 발음법

말소리와 글자가 완전히 대응되는 관계에 놓이지 않는 중요한 리유는 글자가 글말의 기호이며 글말이 뜻있는 언어적단위들을 고정시켜 적을것을 요구한다는데 있다.

글자는 말을 적기 위하여 만들어진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상대적으로 독립되여있는 글말의 기호체계이다.

글말이 자기의 사회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뜻있는 언어적단위들의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향에서 글을 적어야 한다. 형태부를 고정시켜 적지 않고 글을 소리가 나는대로 그대로 적는다면

그런 글은 읽고 리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수 없다.

실례로 《나리 박짜 누니 머저따》라고 발음그대로 적는다면 글의 뜻이 안겨오지 않아 글을 읽기도 쓰기도 힘들게 될것이다. 오직 뜻있는 언어적단위들을 고정시켜서 《날이 밝자 눈이 멎었다》라고 적어야 뜻이 명확히 안겨오고 글을 읽기도, 쓰기도 편리해지는것이다.

형태를 고정시켜 글을 적는데서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을 맞춤법 혹은 철자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말을 글로 적을 때 말소리와 글자를 잘 구별하여 소리나는대로 적지 말고 반드시 맞춤법의 요구대로 글을 적어야 한다.

글자는 말소리를 적기 위해 만들어진것으로서 말소리와의 관계에서 보면 보조적이고 피동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글자는 단순히 말소리를 옮겨적는 피동적인 역할만 하는것이 아니라 발음의 변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글말생활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글자는 발음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글을 쓴대로 읽으려는 사람들의 발음경향은 기존에 없었던 발음현상들을 낳으며 발음법칙들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전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놓이는 《ㄹ》을 발음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였던 말소리법칙이 오늘에는 제대로 발음하는것으로 바뀐것이 그 실례이다.(29페지 참조)

발음에 대한 교육과 통제가 약할수록 표기대로 발음하려는 경향은 강해진다. 하여 일부 사람들이 《훈련》이나 《옷안》을 [훌련]이나 [오단]이라고 발음하는것이 아니라 표기대로 [훈련], [오산]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글말의 법칙이 째이고 발전하는데 따라 글을 옳바로 읽고 말을 바로하도록 발음법칙들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말을 하고 글을 읽는데서 누구나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들을 규제한것이 발음규범, 표준발음법이다.

발음규범은 해당 언어에 작용하는 말소리법칙들과 관습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진다.

Ⅱ. 규 범 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 규범은 민족어의 특징과 요구를 일반화하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언어사용준칙을 규제하고있다. 언어규범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 말은 사회의 언어규범화를 확립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준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92～293페지)

문화어발음법은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말 발음의 특징과 요구를 일반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준수하여야 할 발음준칙을 규제하고있다. 문화어발음법에는 말을 하고 글을 읽는데서 제기되는 발음과 관련한 원칙적인 요구와 관습적으로 굳어진 발음의 허용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문화어발음법의 요구대로 말을 하고 글을 읽어야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수 있으며 사회의 언어규범화를 확립해나가는데 기여할수 있다.

문화어발음법의 요구대로 말을 하고 글을 읽자면 무엇보다도 문화어발음법의 규제내용을 원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대로 발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들의 언어실천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틀리기 쉬운 발음요소들과 그릇된 발음관습들을 비롯하여 편향적인 발음현상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문화어발음법의 구성체계를 간단히 소개하고 문화어발음규범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발음실천에서 주의하여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문화어발음법

문화어발음법은 총칙과 10개의 장, 30개의 항으로 구성되여있다. [《조선말규범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주체99(2010)년]

문화어발음법의 기본내용은 크게 다섯가지 부분으로 체계화하

여 설명할수 있다.

첫 부분(1～3장)에서는 개별적인 소리마디를 단위로 말소리들이 놓이는 자리에 따른 발음방법을 취급하고있다.

《문화어발음법》의 1장(1～4항)에서는 모음의 발음을 취급하면서 모음의 길고짧은 소리의 발음, 모음 《ㅢ》의 발음, 《ㅚ, ㅟ》의 발음, 《ㅖ》의 발음과 관련한 발음원칙과 허용내용을 주고있다. 모음의 발음에서는 겹모음 《ㅢ》와 《ㅖ》의 발음과 관련한 허용발음의 내용을 잘 리해하는것이 중요하다.

《문화어발음법》의 2장(5항)에서는 소리마디의 첫소리위치에 놓이는 자음 《ㄹ》의 발음과 관련한 규범을 밝히고있다.

《문화어발음법》의 3장(6～8항)에서는 소리마디의 끝소리 즉 받침으로 나는 자음들의 발음에 대하여 취급하고있다. 받침자모의 발음에서 중요한것은 받침소리로 나는 말소리들의 종류와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대응, 일부 둘받침들의 발음원리를 밝힌것이다. 받침소리의 발음은 단어의 끝이나 소음적자음들의 앞에서 그리고 끊어내여 발음할 때에 나타난다.

둘째 부분은 4～5장부분으로서 받침뒤에 모음이 오게 되는 결합적조건속에서의 발음원리를 밝히고있다.

《문화어발음법》 4장(9항)에서는 받침을 뒤의 소리마디의 첫소리로 이어내여 발음하는 원리를 주고있으며 5장(10～11항)에서는 일부 모음앞에서 받침을 끊어내기로 발음하는 원리를 설명하고있다.

셋째 부분은 《문화어발음법》의 6～8장부분으로서 받침소리뒤에 자음이 오는 결합적조건속에서의 말소리변화와 관련한 발음원리를 취급하고있다.

《문화어발음법》의 6장(12～17항)에서는 받침소리뒤에서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여나는 현상과 관련한 발음을 설명하고있으며 7장(18～19항)에서는 《ㅎ》과의 결합속에서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여나는 현상과 관련한 발음을, 8장(20～24항)에서는 소리따르기와 소리닮기에 의한 소리바꾸기현상과 관련한 발음내용을 규제하고있다.

넷째 부분은 《문화어발음법》의 9장(25～27항)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형태부들사이에 사이소리가 끼여나는 현상과 관련한 발음을 취급하고있다.

다섯째 부분은 《문화어발음법》의 10장(28~30항)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소리빠지기와 약화와 관련한 발음을 취급하고있다.

1. 모음의 발음을 잘해야 한다

모음은 소리마디를 이루는 중심이 되는 말소리이다. 모음에 의해 가장 작은 발음단위인 소리마디가 이루어지고 그를 단위로 소리의 높고낮음, 길고짧음이 정해진다. 그런것만큼 모음의 발음을 옳바로 하는것은 단어나 문장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출발적인 요구로 된다.

모음의 발음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첫째로, 모음을 제 소리값대로 내지 않고 다른 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다. 그 요구는 둘째로, 단어나 문장을 발음하면서 모음을 빠뜨리지 말며 긴소리를 정확히 내도록 하는것이다.

1)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한다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홑모음과 겹모음을 정확히 갈라 발음하는것이다.

홑모음과 겹모음의 차이는 모음을 발음할 때 조음위치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홑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조음위치가 하나이므로 발음하는 동안에 입안의 발음기관들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여있다. 그러나 겹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조음위치가 둘이므로 발음의 시작과 끝에서 입안의 발음기관들의 모양이 달라진다.

우리는 홑모음과 겹모음의 차이를 잘 알고 말을 하고 글을 읽는데서 홑모음과 겹모음을 정확히 구분하여 발음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홑모음을 겹모음으로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홑모음을 겹모음으로 발음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모음

《ㅚ》의 발음이다. 일부 사람들은 홑모음 《ㅚ》의 발음을 몹시 어려워하면서 그것을 [ㅙ]나 [ㅞ]로 발음함으로써 《ㅚ》와 《ㅙ, ㅞ》의 차이를 모호하게 하고있다.

례: 외인[왜인/웨인]× [외인]○
　죄과[쵀꽈/췌꽈]× [죄꽈]○
　열쇠[열쐐/열쒜]× [열쐬]○

이러한 발음편향은 홑모음인 《ㅚ》의 발음법을 잘 모르는데서 온것이다.

홑모음 《ㅚ》를 발음할 때에는 혀앞부분이 반높은 위치에서 고정되여있지만 겹모음인 《ㅙ》는 혀가운데부분이 반높은 위치에서 앞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발음한다. 그러므로 홑모음 《ㅚ》는 입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겹모음 《ㅙ》는 입모양이 달라지게 된다.

《ㅚ》와 《ㅙ》의 이러한 발음상차이를 알고 입모양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발음을 익히면 홑모음 《ㅚ》를 능히 겹모음 《ㅙ》나 《ㅞ》와 구별되게 발음할수 있다.

홑모음 《ㅚ》는 정확히 자기 소리값대로 [ㅚ]로 발음하여야 한다.

홑모음과 겹모음을 정확히 구별하여 발음하는데서 다음으로 겹모음을 홑모음으로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겹모음의 발음을 바로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겹모음 《ㅢ》의 발음에서 찾아볼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겹모음 《ㅢ》의 발음을 부담스러워하면서 [ㅡ]나 [ㅣ]로 발음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여 《의리》를 [으리]나 [이리]로 발음하여 말의 뜻이 잘 안겨오지 않게 하고있으며 《우리의 힘》이라는 말도 [우리으 힘]이라고 어색하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겹모음의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는 원인은 일부 겹모음들의 발음이 발음생리적으로 힘든데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발음법상의 요구를 잘 모르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없는데 있다.

문화어발음법에서는 일부 겹모음들은 일정한 위치적조건하에서 홑모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도록 허용하고있다. 겹모음을 홑모음으로 발음하도록 허용된 모음들에는 《ㅢ》와 《ㅖ》가 있다.

겹모음 《ㅢ》의 발음과 관련한 허용발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어발음법에서는 단어의 발음을 편하고 류창하게 하면서도 말의 뜻을 정확히 나타내게 하는 방향에서 《ㅢ》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는 경우에는 [ㅣ]나 [ㅔ]로 발음하는것을 허용하고있다.

우선 자음의 뒤에서 《ㅢ》는 [ㅣ]로 발음할수 있다. 즉 자음으로 시작된 소리마디안의 모음 《ㅢ》는 겹모음으로 발음할수도 있고 홑모음 [ㅣ]로 발음할수도 있다.

례:희망[희망/히망] ○
띄우다 [띄우다/띠우다] ○

다음으로 단어의 가운데나 끝에서 《의》는 [ㅣ]로 발음하는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는 겹모음으로 발음하는것보다 홑모음 [ㅣ]로 발음하는것이 더 좋다.

례:준의 [주늬/주니] ○
의의 [의의/의이] ○
주의 [주의/주이] ○

다음으로 겹모음 《ㅢ》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에는 겹모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함으로써 말뜻이 똑똑히 전달되게 해야 한다. 특히 단어의 첫머리에서 《의》를 [이]나 [으]로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

례:의사 [으사/이사]×   [의사] ○
의무 [으무/이무]×   [의무] ○

다음으로 토 《의》는 관습적으로 [에]로 발음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주로는 시구에서 허용되며 산문에서는 제대로 발음하는것이 원칙이다.

례:병사의 고향 [병사의 고향/병사에 고향] ○
나의 조국 [나의 조국/나에 조국]

이렇게 겹모음 《ㅢ》는 그것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일부

[ㅣ]나 [ㅔ]로 발음하는것이 허용되고있다.

겹모음 《ㅖ》의 발음에서도 편의상 홑모음 [ㅔ]로 바꾸어 발음하는것이 규범으로 규제되여있다. 겹모음 《ㅖ》를 [ㅔ]로 발음하는 경우는 자음 《ㄱ, ㅎ, ㄹ》의 뒤에 《ㅖ》가 놓이는 때이다. 즉 《계, 례, 혜》는 각기 [게, 레, 헤]로 발음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자음뒤나 단어의 첫머리에 놓이는 《ㅖ》는 겹모음으로 발음하여야 한다.

례:계속[게속]   계시다[게시다]
례절[레절]   관례[괄레]
혜택[헤택]   지혜[지헤]

례:예지[예지]
옛말[옌말]
민예품[미녜품]

우리는 문화어발음법에서 규제한대로 겹모음의 발음을 하여야 하며 자의대로 겹모음의 구성요소들을 빼버리고 홑모음으로 발음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ㅘ, ㅝ》를 [ㅏ, ㅓ]로 발음하거나 《ㅙ, ㅞ》를 [ㅐ, ㅔ]로 발음하지 말고 겹모음으로, 자기의 소리값대로 발음하도록 주의를 돌려야 한다.

례:관개관리소[간개갈리소]×   [관개괄리소]○
뒤두다[더:두다]×   [둬:두다] ○
쐐기[쌔기]×   [쐐기] ○
안돼요[안대요]×   [안돼요] ○
줴기밥[제기밥]×   [줴기밥] ○
철궤[철게]×   [철궤] ○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홑모음들사이에 구별이 없이 바꾸어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단어를 발음하면서 발음하기 쉬운 홑모음으로 대치시켜 발음하는가 하면 홑모음들사이를 엇바꾸어 쓰면서 그릇되게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발음하기 쉬운 홑모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은 홑모음 《ㅚ》와 《ㅟ》의 발음에서 찾아볼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ㅚ》를 [ㅐ]로, 《ㅟ》를 [ㅣ]로 발음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어발음법에 어긋나는 그릇된 발음이다.

례: 쇠돌[새돌]× [쇠돌] ○
위업[이업]× [위업] ○
휘장[히장]× [휘장] ○
뒤집다[디집따]× [뒤집따] ○

일부 홑모음들의 사이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 엇바꾸어 혼탕시켜 사용하는 편향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음 《ㅡ》와 《ㅜ》, 《ㅐ》와 《ㅔ》의 발음에서 찾아볼수 있다.

례: 국장[극짱]× [국짱] ○
극장[국짱]× [극짱] ○
그리고[구리고]× [그리고] ○

례: 어깨[어께]× [어깨] ○
그래서[그레서]× [그래서] ○
군데[군대]× [군데] ○
어제[어재]× [어제] ○

우리는 이렇게 홑모음들을 정확히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 비슷한것으로 대충 발음해버리는 습관을 버려야 하며 발음법의 요구대로 모든 홑모음들을 자기의 소리값대로 온전하게 발음하여야 한다.

2) 발음에서 긴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모음의 발음에서 모음을 자기 소리값대로 정확히 발음하는것과 함께 모음을 자의로 빠뜨려 발음하지 않거나 긴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 말에서 모음은 소리마디를 이루는 기둥요소이다. 모음을 빠뜨려 발음하지 않으면 결국 소리마디자체를 줄이는 결과를 가

져오며 심한 경우에는 말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할수 없게 한다.

단어발음에서 나란히 놓인 두개 또는 그이상의 모음을 줄여서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모음줄이기라고 한다. 모음줄이기가 일어나면 원래의 단어형태에 있던 모음의 일부가 빠지거나 다른 모음들과 어울려 다른 모음으로 바뀌여나게 된다.

모음줄이기는 입말에서 흔히 나타나며 우리 말 단어만들기의 한가지 수법으로 리용된다. 실례로 《아이》와 《애》, 《모이다》와 《뫼다》, 《가을》과 《갈》, 《마음》과 《맘》 같은 단어들이나 《반기여》와 《반겨》, 《보아서》와 《봐서》와 같은 형태단어들은 다 모음줄이기의 결과로 맺어진 뜻같은말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들이다.

모음줄이기는 긴소리되기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모음줄이기가 일어나면 줄어진 모음이 있던 부분의 소리마디를 보통 긴소리로 발음한다. 일반적으로 모음이 줄어져 만들어진 단어들에서는 긴소리로 발음되나 형태단어의 형태(토)에서의 모음줄이기경우에는 긴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례: 마음— 맘[맘:]
가을— 갈[갈:]
가시여— 가셔[가셔]
가지였다— 가졌다[가젿따]
주었다— 줬다[줟따]

※ 발음표기에 쓰인 《:》은 긴소리(장음)를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모음줄이기가 입말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여 나란히 놓인 모음들을 덮어놓고 줄여서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모음줄이기현상은 법칙적인 성격을 띤 발음현상은 아니다. 다시말하여 일정한 모음들이 련달아 올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말소리법칙이 아니다. 그것은 꼭같은 말소리조건속에서도 모음줄이기가 일어날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는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실례로 고유어인 단어 《마음》은 《맘[맘:]》으로 줄여질

수 있으나 한자어인 단어 《자음》은 《잠[잠:]》이라고 줄여서 발음할수 없다.

그러므로 단어안에서 모음들이 나란히 놓여있다 하여 자의로 줄여서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글을 읽을 때 《이야기》를 [야기]나 [얘기]로, 《가을걷이》를 [갈거지]로 줄여서 발음하지 말고 씌여진대로 [이야기], [가을거지]로 온전하게 발음해야 한다.

다음으로 모음줄이기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들을 비롯하여 긴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단어들의 발음을 바로해야 한다.

모음줄이기로 만들어진 단어들은 대체로 긴소리로 발음한다. 앞서 실례로 든 《갈(가을)》이나 《맘(마음)》, 《얘기(이야기)》, 《애(아이)》 등에서 첫소리마디는 다 길게 발음한다.

우리 말 단어의 발음에서 긴소리는 모음줄이기로 만들어진 단어에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긴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단어들도 있다. 《감》이나 《게》, 《곰》, 《안개》, 《옛말》 같은 단어들도 긴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들이다.

우리 말에서 긴소리는 짧은소리에 비해 1.3~1.5배의 길이를 가지면서 짧은소리와의 대립속에서 일부 단어들의 뜻을 분별해주는 기능을 논다. 일반적으로 긴소리는 짧은소리에 비해 낮게 발음되며 짧은소리는 좀 높게 발음된다.

우리 말 단어들가운데는 소리는 꼭같으나 소리의 길고짧음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이 있다. 소리는 같으나 소리의 길고짧음에 의해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례: 눈[눈] (눈을 감다)
눈[눈:] (눈이 내린다)
밤[밤] (밤을 지새우다)
밤[밤:] (밤을 삶아먹다)
돌[돌] (돌을 쇠다)
돌[돌:] (돌을 던지다)
갈[갈] (갈을 심다)
갈[갈:] (=가을)
가마[가마] (가마를 타다)

가마[가:마] (쌀을 가마에 넣다)
가래[가래] (가래를 까먹다)
가래[가:래] (가래로 흙을 뜨다)

이렇게 소리의 길고짧음에 의해 단어의 뜻이 갈라지는 단어들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구별하여 발음하는것이 필요하다. 길고짧은 소리에 의하여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의 일부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161페지 참조)

다음으로 같은 모음들이 나란히 이어지는 경우의 발음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무우》, 《새애기》, 《자아의식》과 같은 단어나 《추운》과 같은 형태단어들에서처럼 똑같은 모음들이 나란히 이어지는 경우에 앞의 모음과 뒤의 모음을 특별히 가르지 않고 길게 발음할수 있다. 사실 이렇게 하는것은 발음원리상으로 자연스러운것이다. 즉 같은 모음으로서 발음기관들의 위치를 변동시킬 필요가 없으며 의식적으로 두 모음을 또박또박 끊어서 발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때 길게 발음하는 모음의 길이는 모음줄이기때의 긴소리보다 더 길게 발음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발음기관의 모양도 바꾸지 않고 소리의 끊기도 없이 련속하여 길게 발음하므로 그 길이는 거의 두개 소리마디를 합친것만큼 길게 발음하여야 한다.

이렇게 같은 모음들이 나란히 이어진 경우라도 하나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방법으로 모음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발음하여야 하는것이다.

2. 첫소리자음의 발음을 바로해야 한다

단어나 소리마디의 처음에 나는 자음은 자기의 소리값대로 정확히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첫소리발음을 잘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단어의 첫머리에 나는 《ㄹ》과 《ㄴ》의 발음을 잘하는것과 함께 단어안에서 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나는 《ㄹ》의 발음과 관련한 규범상의 요구를 잘 알고 정확히 발음하도록 하는것이다.

1)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과 《ㄴ》을 제대로 발음해야 한다

첫소리로 나는 자음의 발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자음 《ㄹ》과 《ㄴ》의 발음과 관련한 력사적인 발음관습의 영향을 극복하는것이다.

지난 시기에 우리 말의 발음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을 발음하지 않거나 [ㄴ]로 바꾸어 발음하며 일부 모음앞에서 《ㄴ》을 발음하지 않는 《두음법칙》이라는 발음법칙이 존재하였다. (29페지 참조)

이 력사적인 발음법의 영향으로 하여 아직도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단어의 앞머리에서 《ㄹ》이나 《ㄴ》을 제대로 발음할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것이 어색하고 듣기에 거슬리는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원리적으로 볼 때 단어의 첫머리에서 자음 《ㄹ》이나 《ㄴ》의 발음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발음이 아니며 얼마든지 정확하게 발음할수 있다. 첫소리는 앞선 발음행위를 일단 마무리하고 발음기관이 새로운 발음을 위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발음하는 말소리이다. 그러므로 첫소리위치에 놓인 말소리는 얼마든지 소리값을 충분하게 살려 발음할수 있다. 자음 《ㄹ》이나 《ㄴ》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많은 사람들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과 《ㄴ》을 어렵지 않게 발음하며 불편이나 거북함을 느끼는 일이 별로 없다.

오늘날까지도 일부 사람들이 자음 《ㄹ》과 《ㄴ》을 단어의 첫머리에서 달리 발음해야 하는것으로 여기는것은 순수 지난 시기의 발음관습에 젖어 《ㄹ》과 《ㄴ》의 발음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는데 원인이 있다.

우리 말에서 첫소리로 나는 자음으로는 《ㅇ》을 제외한 18개의 자음이 있다. 오늘날 문화어발음법에서는 이 18개의 모든 자음

들이 첫소리위치에서 언제나 자기의 소리값대로 정확히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과 《ㄹ》은 규범에 정해진대로 자기 소리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먼저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을 언제나 표기그대로 [ㄴ]로 발음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전의 《두음법칙》대로 《ㅕ, ㅛ, ㅠ, ㅣ》앞에서 《ㄴ》을 발음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다. 《ㅣ》를 앞요소로 하는 겹모음앞에서 《ㄴ》의 발음은 결코 어려운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발음이다. 그러므로 단어 첫머리에서 《ㄴ》을 빠뜨리는 일이 없이 그대로 발음해야 한다.

례: 녀성[여성]×	[녀성]○
뇨소[요소]×	[뇨소]○
뉴대[유대]×	[뉴대]○
니탄[이탄]×	[니탄]○

다음으로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을 원칙적으로 자기 소리대로 [ㄹ]로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단어의 첫머리에서 홑모음앞에 놓이는 《ㄹ》을 언제나 자기 소리대로 [ㄹ]로 정확히 튀기여 발음해야 한다. 이전의 《두음법칙》에 따른 발음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ㄹ》을 [ㄴ]로 발음하는것으로 되여있었는데 사실 단어의 첫머리에서 튀김소리 《ㄹ》은 쉽게 발음되므로 그대로 [ㄹ]로 발음하는것이 옳다.

례: 락원[나권]×	[라권]○
로동[노동]×	[로동]○
루락[누락]×	[루락]○
래일[내일]×	[래일]○
뢰물[뇌물]×	[뢰물]○

단어의 첫머리에서 모음 《ㅣ》앞에 놓이는 《ㄹ》도 정확히 자

기 소리값대로 튀겨서 발음하여야 한다. 이전의 《두음법칙》에 따른 발음법에서처럼 《ㄹ》을 발음하지 않거나 [ㄴ]로 틀리게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 모음 《ㅣ》앞에서도 튀김소리 《ㄹ》을 쉽게 발음할수 있다.

례:리상[이상/니상]×　[리상]○
　린국[인국/닌국]×　[린국]○
　림시[임시/님시]×　[림시]○
　립하[이파/니파]×　[리파]○

단어의 첫머리에서 겹모음 《ㅑ, ㅕ, ㅛ, ㅠ》앞에 오는 《ㄹ》은 자기 소리값대로 튀겨서 발음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조사한데 의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겹모음앞에서 《ㄹ》을 [ㄴ]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것이다. 겹모음앞에서 《ㄹ》을 발음하기가 어려워 이전의 발음관습대로 《ㄹ》을 발음하지 않을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자기 소리를 그대로 내는것이 옳다.

례:려행[녀행]×　[려행/여행]○
　렬사[녈싸]×　[렬싸/열싸]○
　량심[냥심]×　[량심/양심]○
　료리[뇨리]×　[료리/요리]○
　류산[뉴산]×　[류산/유산]○
　률동[뉼똥]×　[률똥/율똥]○

겹모음 《ㅖ》는 자음 《ㄹ》이 첫소리로 놓일 때 [ㅔ]로 발음하므로《ㅖ》앞의 《ㄹ》은 홑모음앞에서처럼 자기 소리값을 살려 제대로 발음하여야 한다.(43페지 참조)

례: 례절[예절/녜절]×　[레절]○
　　례[예/녜]×　[레]○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ㅇ》을 제외한 모든 자음들을 자기의 소리값대로 정확히 발음하여야 한다. 우리는 단어의 첫머리에서의 첫소리의 발음상요구를 잘 알고 발음을 정확하고 똑똑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단어안에서 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나는 《ㄹ》의 발음을 잘해야 한다

첫소리의 발음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 내용의 다른 하나는 단어안에서 《ㄹ》을 첫소리로 하는 소리마디들의 발음과 관련한 문제이다.

단어가운데서 소리마디의 첫소리 《ㄹ》은 다른 소리들의 영향을 받아 쉽게 다른 소리로 바뀌여난다. 단어가운데서 소리마디의 첫소리 《ㄹ》의 발음을 말소리들의 결합적변화의 결과로 보고 체계화할수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소리마디의 첫소리발음문제로 보고 설명한다.

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되는 《ㄹ》의 발음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갈라 설명할수 있다. 하나는 《렬》과 《률》의 발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이외의 소리마디들에서 《ㄹ》의 발음이다.

먼저 단어가운데서 《렬》과 《률》의 발음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발음생리적견지에서 볼 때 겹모음앞에서는 튀김소리를 내기 어려우며 더우기 여기에 받침소리로 나는 혀옆소리 《ㄹ》을 동시에 내기는 더 어렵다. 이런것으로 하여 《렬》과 《률》은 단어발음에서 일련의 례외적인 발음이 허용되고있다.

단어의 가운데서 모음으로 끝난 소리마디(열린소리마디)뒤에 놓이는 《렬》과 《률》은 각기 [열]과 [울]로 발음한다. 즉 첫소리 《ㄹ》을 발음하지 않는다. 열린소리마디뒤에 오는 《렬》과 《률》을 표기그대로 발음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렬]과 [률]로 발음했다 하더라도 듣기에 어감도 어색해지는것이다.

례:대렬[대렬]×　[대열]○
　서렬[서렬]×　[서열]○
　규률[규률/규뉼]×　[규울]○
　비률[비률]×　[비울]○

단어의 가운데서 《ㄹ》받침을 제외한 받침소리뒤에서 《렬》

과 《률》은 각기 [녈]과 [뉼]로 발음한다. 즉 《렬》과 《률》의 첫소리인 《ㄹ》을 [ㄴ]로 발음한다. 받침소리뒤에서 《ㄹ》을 튀김소리로 이어서 발음하기는 불편하며 또 그렇게 발음했다 하더라도 겹모음앞에서는 터침소리인 [ㄴ]에 가까운 소리로 되여버리기때문이다.

례:진렬[진녈]　　균렬[균녈]
선렬[선녈]　　분렬[분녈]
정렬[정녈]　　강렬하다[강녈하다]
운률[운뉼]　　선률[선뉼]
곡률[공뉼]

계속하여 단어가운데서 《렬》과 《률》이외의 《ㄹ》로 시작되는 소리마디의 발음에 대하여 설명한다.

《렬》과 《률》이외의 《ㄹ》로 시작되는 소리마디는 모음으로 끝난 소리마디(열린소리마디)뒤에서는 자기 소리값대로 그대로 발음한다.

례:나라[나라]　지리[지리]
소래[소래]　주류[주류]

그러나 앞에 받침소리가 오는 경우에 《ㄹ》은 대체로 [ㄴ]로 발음한다.

단어안에서 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나는 《ㄹ》은 받침소리 [ㅁ]나 [ㅇ]뒤에서 [ㄴ]로 발음되기가 쉽다. 물론 받침소리 [ㅁ]나 [ㅇ]의 뒤에서 의식적으로 튀김소리를 발음할수는 있으나 듣기에 자연스러운감이 없게 되며 이러한 느낌은 단어발음을 련이어 빠르게 하는 경우 더 심해진다. 그러므로 발음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 단어안에서 받침소리 [ㅁ]나 [ㅇ]의 뒤에 오는 《ㄹ》을 [ㄴ]로 발음한다. 《ㄹ》뒤에 겹모음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ㄹ]의 발음도 가능하다.

례:협력[혐녁/혐력]　경력[경녁/경력]
청류[청뉴/청류]　경로[경노]
목란[몽난]　감로주[감노주]

단어가운데서 《ㄹ》받침뒤에 오는 소리마디의 첫소리 《ㄹ》은 받침과 함께 혀옆소리로 발음한다.(우리 말에서 받침소리 《ㄹ》은 혀옆소리로 발음한다.) 《렬》과 《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ㄹ》받침뒤에서는 혀옆소리로 발음한다.

례:철리[철리]　혈로[혈로]
결렬[결렬]　실례[실례]

단어가운데서 《ㄴ》받침뒤에 《ㄹ》로 시작하는 소리마디가 올 때의 말소리변화에 대해서는 뒤의 소리닮기와 관련한 설명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67페지 참조)

3. 받침의 발음원리를 바로 알고 발음해야 한다

단어의 끝에 놓이는 받침의 발음을 바로하여야 한다.

단어끝에 놓이는 받침이란 곧 발음이 끝날 때의 받침소리를 의미한다. 단어끝에서 받침의 발음원리는 뒤에서 이야기하게 될 단어의 끊어내기발음이나 소리닮기현상 등과 련관되여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옳바로 발음해야 한다.

받침의 발음원리를 옳게 파악하는데서 기본은 우리 말 발음에서 받침소리는 도합 7개뿐이며 받침표기는 어떻든간에 오직 이 7개의 받침소리들가운데서 어느 하나만이 받침소리로 나게 된다는것을 잘 아는것이다.

우리 말 단어의 형태표기에 쓰이는 받침(글자)의 수는 홑받침이 16개, 둘받침이 11개로 도합 27개이지만 그것들이 실지 발음될 때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중의 어느 한가지로만 실현된다. 그러므로 둘받침(글자)을 포함하여 받침자들과 받침소리의 대응원리를 잘 파악하는것이 받침의 발음을 바로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먼저 홑받침자들과 받침소리와의 대응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둘받침의 발음원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우리 말에서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가지가 있다. 이 일곱가지의 받침소리들은 입술, 혀앞, 혀뒤의 세가지 조음위치와 막힘소리와 울림소리라는 소리성질을 표식으로 하여 일정한 체계를 구성한다.

[ㄱ]와 [ㅇ]은 혀뒤소리, [ㄷ]와 [ㄴ], [ㄹ]는 혀앞소리, [ㅂ]와 [ㅁ]는 입술소리이며 [ㄱ, ㄷ, ㅂ]는 막힘소리, [ㅇ, ㄴ, ㄹ, ㅁ]는 울림소리(여기서 [ㄹ]는 입안울림소리이고 나머지 [ㅇ, ㄴ, ㅁ]는 코안울림소리들이다.)이다. 우리 말에서 받침자들과 받침소리와의 대응관계는 받침소리들의 이러한 체계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말에서 홑받침자로 쓰이는 16개의 자음자들은 우에서 설명한 세개의 조음위치와 소리성질을 표식으로 하여 그에 대응되는 (울림없는 자음들은 막힘소리로 대응된다.) 받침소리로 발음된다. 하여 혀뒤에서 나는 울림없는 자음들인 《ㄱ, ㄲ, ㅋ》은 같은 위치에서 나는 막힘소리인 [ㄱ]로, 혀앞에서 나는 울림없는 자음들인 《ㄷ, ㅌ, ㄸ, ㅅ, ㅆ, ㅈ, ㅊ》은 같은 위치에서 나는 막힘소리인 [ㄷ]로, 입술에서 조성되는 울림없는 자음인 《ㅂ, ㅍ》은 같은 위치의 막힘소리인 [ㅂ]로 발음하게 되며 울림소리들인 《ㅇ, ㄴ, ㄹ, ㅁ》은 각기 해당한 [ㅇ, ㄴ, ㄹ, ㅁ]로 발음하게 된다. 그리고 자음 《ㅎ》은 목구멍에서 스쳐나는 소리이지만 받침자로 쓰인 경우에는 혀앞막힘소리인 [ㄷ]로 발음한다.

례: 부엌[부억]　밖[박]
　밭[받]　낫[낟]　낮[낟]　낯[낟]
　밥[밥]　앞[압]
　강[강]　간[간]　갈[갈]　감[감:]
　히읗[히읃]

계속하여 둘받침의 발음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우리 말에는 두개의 자음자들을 겹쳐서 받침으로 표기하는 둘받침이《ㄳ, ㅄ, ㄽ, ㄾ, ㄵ, ㄺ, ㄼ, ㄻ, ㄿ, ㄶ, ㅀ》의 11개가 있다.

발음현실을 살펴보면 둘받침의 발음을 그릇되게 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둘받침의 발음과 관련한 편향들을 크게 두가

지로 갈라볼수 있다. 그 하나는 둘받침가운데서 발음되는 소리를 틀리게 선택하여 내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둘받침에 들어있는 받침소리를 모두 발음하려고 하는것이다.

실례로 일부 사람들은 [ㄹ]로 발음해야 할 《ㄾ》을 [ㄷ]로 발음하면서 《훑다[훌따]》를 [훋따]로, 《핥는다[할른다]》를 [한는다]로 그릇되게 발음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ㄱ]로 발음해야 할 《ㄺ》을 [ㄹ]로 발음하면서 《밝다[박따]》를 [발따]로, 《읽는다[잉는다]》를 [일른다]로 틀리게 발음하고있다.

다른 실례로 일부 사람들은 둘받침의 받침소리모두를 발음해야 하는것으로 여기면서 《닭[닥]》이나 《삶[삼]》과 같은 단어들을 [달ㄱ], [살ㅁ]과 같이 어색하게 발음하고있다.

이러한 발음편향들은 둘받침의 발음원리를 잘 모르고 단어의 형태표기를 기계적으로 따르려는 발음습관에 기인한것으로서 둘받침의 발음원리를 바로 알고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극복할수 있다.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다시말하여 모음으로 시작되는 소리마디앞에 놓이는 둘받침은 앞의것을 받침소리로 하고 뒤의것을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이어내여 발음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둘받침발음에서 혼돈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단어의 끝이나 자음앞에 놓인 둘받침의 발음이다.

단어의 끝이나 자음앞에 놓인 둘받침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발음한다.

우선 둘받침안에 혀뒤소리 [ㄱ]나 입술소리 [ㅂ], [ㅁ]가 있으면 이 소리들을 받침소리로 발음한다. 즉 혀뒤소리 《ㄱ》이 들어있는 둘받침인 《ㄺ》, 《ㄳ》은 받침소리 [ㄱ]로 발음하며 입술소리 《ㅂ》이나 《ㅍ》, 《ㅁ》이 들어있는 둘받침인 《ㅄ, ㄼ, ㄿ》과 《ㄻ》은 각기 [ㅂ]와 [ㅁ]를 받침소리로 하여 발음한다.

례: 몫[목]	몫이[목씨]	몫만[몽만]
닭[닥]	닭이[달기]	닭만[당만]
붉다[북따]	붉은[불근]	붉네[붕네]
없다[업따]	없은[업쓴]	없네[엄네]
밟다[밥따]	밟은[발븐]	밟네[밤네]

읊다[읍따]　읊은[울픈]　읊네[읍네]
삶다[삼따]　삶은[살믄]　삶네[삼네]

여기서 《ㄺ》과 《ㄼ》의 발음과 관련하여 례외적인 발음이 있는데 이를 잘 알고 정확히 발음하도록 노력하는것이 필요하다.

우선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끝에 있는 《ㄺ》은 《ㄱ》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앞에서만 [ㄹ]로 발음하며 《ㄱ》이외의 자음앞에서는 [ㄱ]로 발음해야 한다.

례: 맑다[말따]×　[막따]○
맑게[말께]○　[막께]×
읽소[일쏘]×　[익쏘]○
읽고[일꼬]○　[익꼬]×

형용사말줄기끝의 《ㄼ》은 《ㄱ》으로 시작하는 토나 뒤붙이앞에서만 [ㄹ]로 발음하며 그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ㅂ]로 발음하여야 한다. 동사 《밟다》는 《ㄱ》앞에서도 [ㅂ]로 발음한다. 단어 《여덟》은 관습적으로 [여덜]로 발음한다.

례: 밟다[발따]×　[밥따]○
밟기[발끼]×　[밥끼]○
넓다[널따]×　[넙따]○
넓게[널께]○　[넙께]×
얇지[얄찌]×　[얍찌]○
얇고[얄꼬]○　[얍꼬]×
여덟[여덜]○　[여덥]×
여덟개[여덜깨]○　[여덥깨]×

다음으로 혀앞소리들로 이루어진 둘받침에서는 울림소리인 [ㄴ]와 [ㄹ]를 받침소리로 발음한다. 혀뒤소리나 입술소리가 들어있지 않는 둘받침들가운데서 《ㄴ》이 들어있는 《ㄵ, ㄶ》은 [ㄴ]로 발음하며, 《ㄹ》이 들어있는 《ㄳ, ㄾ, ㅀ》은 [ㄹ]로 발음한다.

례: 앉다[안따]　앉은[안즌]　앉네[안네]

많다[만타]　많은[마는]　많네[만네]
곬도[골도]　곬을[골슬]　곬만[골만]
훑다[훌따]　훑어[훌터]　훑네[훌레]
앓다[알타]　앓은[아른]　앓네[알레]

둘받침에서 《ㅎ》이 들어있는 둘받침의 발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ㅎ》과 관련한 발음을 따로 묶어 뒤에서 보기로 한다.

《ㄾ》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ㄾ》의 《ㄹ》을 빠뜨려 《ㅌ》만을 발음하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례: 핥다[한따]×　[할따]○
핥아[하타]×　[할타]○
핥지[한찌]×　[할찌]○
핥소[한쏘]×　[할쏘]○

4. 모음앞에서 받침의 발음을 옳바로 해야 한다

모음앞에 놓인 받침을 정확히 발음하여야 한다. 모음앞에 놓이는 받침은 한 단어안에서의 경우와 형태부들사이에 놓이는 경우의 발음이 다르고 홑모음앞에서의 경우와 겹모음앞에서의 경우의 발음이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한 발음법을 잘 알고 그 요구를 옳바로 지켜 발음하여야 한다. 그래야 말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낼수 있으며 듣기에도 좋고 류창하게 발음할수 있다.

모음앞에서 받침의 발음은 이어내는 경우의 발음과 끊어내는 경우의 발음 그리고 모음 《ㅣ》앞에서의 발음의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어내기발음을 온전하게 하여야 한다

이어내기란 받침을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서 발음하는것을 말한다. 이때 받침자는 받침소리로가 아니라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발음되면서 자기 소리값을 그대로 내게 된다.

먼저 이어내기발음이 어떤 때에 일어나는가를 간단히 보기로 한다.

우선 토나 뒤붙이앞의 받침은 이어서 발음한다.

례:밖에[바께] 길을[기를]
집에[지베] 짚이[지피]
길이[기리] 높이[노피] 벌이[버리]
먹으니[머그니] 깉어서[기터서]
씻은듯이[씨슨드시] 닫아[다다]

둘받침인 경우에는 뒤의 말소리를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이어내여 발음한다.

례:값이[갑씨] 없어[업써]
여덟이[여덜비] 넓어[널버]
닭을[달글] 맑은[말근]

다음으로 한자어단어안에서 받침은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례:석유[서규] 전위[저뉘] 단일[다닐]
밀영[미령] 금액[그맥] 검열[거멸]
삽입[사빕] 단어[다너] 잡인[자빈]

또한 형태부나 단어들사이에서 받침소리와 표기가 일치한 받침들은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즉 《ㄱ, ㄴ, ㄷ, ㄹ, ㅁ, ㅂ》이 받침으로 될 때는 뒤의 모음에 이어낸다.

례:집앞에[지바페] 길우에[기루에]
손아래[소나래] 감알을[가마를]

계속하여 이어내기발음을 온전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요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우선 받침을 뒤소리마디로 이어서 자기의 소리값대로 발음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받침을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발음하면서 단어의 끝에서처럼 받침소리로 바꾸어서 발음하기도 한다. 실례로 《무릎을 꿇다》를 [무르블 꿀타]라고 발음하거나 《부엌에》를 [부어게]로 발음하는 현상을 들수 있다. 단어끝의 《ㅍ》이나 《ㅋ》은 단어발음의 끝에서는 [ㅂ]나 [ㄱ]로 바꾸어 발음하지만 말마디안에서 이어날 때에는 소리값을 그대로 살려 [ㅍ]나 [ㅋ]로 온전하게 발음해야 한다.

례:무릎을[무르블]× [무르플]○
부엌에[부어게]× [부어케]○
밭의[바듸]× [바틔]○
톺아오르다[토바오르다]× [토파오르다]○
남녘의[남녀긔]× [남녀킈]○
저녁녘에[저녕녀게]× [저녕녀케]○

받침을 제대로 이어서 발음하지 않고 다른 말소리로 대충 발음해버리는 편향도 주의하여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특히 강조한다고 하면서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하거나 반대로 거센소리의 발음이 어렵다고 하여 순한소리로 바꾸어 대충 발음하는 현상에 대해 그럴수 있는 일로 생각지 말고 받침을 정확하게 이어내야 한다. 여기서 《ㅈ》이나 《ㅊ》을 [ㅅ]로 이어내는 편향을 특히 바로잡아야 한다.

례:빚을[비슬]× [비즐]○
낯을[나슬]× [나츨]○
꽃을[꼬슬/꼬들]× [꼬츨]○

례:저녁에[저녀케]× [저녀게]○
씻으며[씨츠며]× [씨스며]○

다음으로 받침소리를 빠뜨려 뒤소리마디로 이어 발음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목욕》을 [모욕], 《목욕한다》를 [모욕한다]로 발음하기도 한다. 지어는 《목욕탕에 목욕간다》고 하면서 [모곡탕에 모욕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목욕탕》은 [모곡

탕]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면서도 《목욕》은 [모욕]이라고 그릇되게 발음하는것이다. 이처럼 모음앞의 받침을 빠뜨려 발음하지 않는 것은 심히 잘못된것이다. 모음앞의 받침을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이어내게 된것은 정확하게 이어내여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이어내기발음에서는 이밖에도 받침을 뒤의 소리마디로 이어내여 발음하지 않고 또박또박 끊어서 씹어 발음하는 편향도 경계해야 한다. 발음을 글자대로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서 단어안에서 받침과 모음사이를 갈라 억지감이 나게 발음하여 우리 말의 류창함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 발음[발음]×　　[바름]○
　넋을[넉을]×　　[넉쓸]○
　옷이[온이]×　　[오시]○

특히 한자말단어의 발음에서 겹모음앞에 놓이는 받침을 지나치게 씹어 발음하면서 다른 말소리가 끼여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 절약[절약/절략]×　　[저략]○
　금융[금융/금늉/금뮹]×　　[그뮹]○
　금요일[금요일/금뇨일/금묘일]× [그묘일]○

2) 끊어내기를 옳바르게 하여야 한다

단어발음에서 끊어내기란 형태부들사이에서 약한 끊기를 두고 뒤소리에 이어서 발음하는것을 말한다. 모음앞의 받침을 끊어내여 발음한다는것은 받침을 단어의 끝에서처럼 대응하는 받침소리로 바꾸어서 뒤의 모음에 이어내여 발음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먼저 모음앞에서 받침을 끊어내여 발음하는 경우들에 대하여 간단히 보기로 하자.

단어발음에서 끊어내기발음은 형태부들사이에서 일어난다. 뒤형태부가 《아, 어, 오, 우, 애, 에, 외》로 시작되는 자립적인 형태부이고 앞형태부가 《ㅋ, ㄲ, ㅌ, ㅅ, ㅈ, ㅊ, ㅍ》과 같은 홑받

침이나 《ㄺ, ㄳ, ㅄ》과 같은 둘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 앞형태부의 받침을 단어끝에서처럼 대응하는 받침소리로 바꾸고 그것을 뒤의 모음에 이어내여 발음한다.

례: 부엌안[부억•안→부어간]
　밭우에[받•우에→바두에]
　짚오리[집•오리→지보리]
　젖에미[전•에미→저데미]
　꽃앞에[끋•아페→끄다페]
　닭우리[닥•우리→다구리]
　여덟알[여덜•알→여더랄]
　값어치[갑•어치→가버치]
　넋없이[넉•업씨→너겁씨]
　이붓엄마[이붇•엄마→이부덤마]

뒤형태부가 《ㅣ》로 시작되는 단어이라도 《있다》의 경우에는 끊어내기로 발음한다. 단어 《있다》의 앞에 놓이는 받침은 끊어서 발음한다. 다만 앞에 단어 《멋》이나 《맛》이 오는 경우에만은 이어내여 발음하는것을 허용한다.

례: 꽃있는[끋•인는→끄딘는]
　값있다[갑•읻따→가빋따]
　넋있다[넉•읻따→너긷따]
　맛있다[마싣따/마딛따]○
　멋있다[머싣따/머딛따]○

끊어내기발음은 특수하게 부름을 나타내는 토 《아》앞에서도 일어난다.

례: (나의) 벗아[벋•아→버다]
　(고운) 꽃아[끋•아→끄다]
　(나의) 삶아[삼•아→사마]

끊어내기의 발음을 옳바르게 하여야 한다.

우선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단어의 형태부구성을 잘 파악

하고 끊어내기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부엌아궁[부어가궁]》을 [부어카궁]으로, 《이붓에미[이부데미]》를 [이부세미]로 그릇되게 발음하는것도 단어구성을 잘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발음해버리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수 있다. 끊어내기발음을 옳바로 하는것은 단어구성을 가려듣게 하는 중요한 수법으로 되는것만큼 단어발음에서 끊어내야 할것을 이어내서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 팥알[파탈]× [파달]○
짚오래[지포래]× [지보래]○
밭어구[바터구]× [바더구]○
낫아래[나사래]× [나다래]○

다음으로 관습적인것으로 이어내기발음이 허용된 단어들에 대하여 잘 알고 끊어내야 할것을 그릇되게 이어서 발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어 《있다》앞에서는 《맛》과 《멋》만은 이어서 발음할수 있으며 단어 《닭알》도 관습적으로 이어서 발음할수 있다. 그밖의 경우들에는 모두 끊어서 발음한다.

례: 멋있다[머싣따/머딛따] ○
뜻있는[뜨신는]× [뜨딘는]○
값있게[갑씯께]× [가빋께]○
팥알[파탈]× [파달]○
닭알[달갈/다갈]○
닭우리[달구리]× [다구리]○

> 단어《닭알》의 원래발음은 [달갈]이였다. 이것은 원래 《닭의 알[달기알]》이라는 말이 줄면서 굳어진 발음이였다.
> 그러던것이 단어의 형태를 《닭알》로 고착하게 되면서 [달갈]로 발음하게 되였다.
> 오늘날 이 단어는 《닭우리》나 《팥알》에서와 같이 끊어내기로 발음하면서 [다갈]로도 발음된다.

3) 입천장소리되기의 발음을 잘해야 한다

모음앞의 받침을 발음하는데서 입천장소리되기와 관련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입천장소리되기는 토나 뒤붙이인 《이》앞에 놓이는 받침 《ㄷ, ㅌ》을 《ㅈ, ㅊ》으로 바꾸어 이어내는 발음현상이다. (31페지 참조)

격토 《이》나 뒤붙이 《이》앞에 받침 《ㄷ》이나 《ㅌ》이 오게 되면 그 받침을 이어내거나 끊어내지 말고 《ㅈ》이나 《ㅊ》으로 바꾸어 이어내야 한다. 둘받침 《ㄾ》의 《ㅌ》도 토나 뒤붙이인 《이》앞에 놓일 때 입천장소리로([ㅊ]로) 이어내야 한다.

뒤붙이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 부사, 동사들에서 《이》앞의 《ㄷ》과 《ㅌ》은 입천장소리로 바꾸어 이어낸다. 뒤붙이 《이》앞의 《ㄷ》이나 《ㅌ》을 그대로 이어내거나 끊어내지 말아야 한다.

례: -명사의 경우
맏이[마디]× [마지]○
미닫이[미다디]× [미다지]○
가을걷이[가을거디]× [가을거지]○
붙이[부티]× [부치]○
벼훑이[벼훌티/벼후티]× [벼훌치]○

-부사의 경우
곧이[고디]× [고지]○
같이[가티]× [가치]○
굳이[구디]× [구지]○
낱낱이[난나티/난나디]× [난나치]○
샅샅이[삳싸티/삳싸디]× [삳싸치]○

-동사의 경우

붙이다[부티다]×　　　　[부치다]○

핥이다[할티다/하티다]×　　[할치다]○

토《이》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형태의 발음에서도 입천장소리되기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격토 《이》, 바꿈토 《이》앞에 놓이는 받침 《ㄷ, ㅌ》을 그대로 이어내거나 끊어내여 발음하지 말고 입천장소리로 이어내야 한다.

례:밭이[바티/바디]×　　　　[바치]○

겉이[거티/거디]×　　　　[거치]○

팥이다[파티다/파디다]×　　[파치다]○

이처럼 뒤붙이나 토인 《이》앞에서 《ㄷ》과 《ㅌ》받침은 입천장소리로 바뀌여 이어난다는것을 잘 알고 언제나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모음앞의 받침을 발음하는데서 모음 《ㅣ》 또는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겹모음(《ㅑ, ㅕ, ㅛ, ㅠ》와 같은 겹모음)들앞에서의 발음을 잘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소리끼우기와 관련한 뒤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98페지 참조)

4) 모음앞의 받침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

모음앞에 《ㅎ》받침이나 《ㅎ》이 들어간 둘받침 《ㄶ, ㅀ》이 놓일 때 받침에 놓이는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발음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서 모음앞에 놓인 《ㅎ》받침을 힘들게 발음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소리마디의 첫소리위치에 있는 자음 《ㅎ》은 제대로 발음하여야 하지만 모음앞에 받침으로 쓰인 《ㅎ》은 뒤의 모음에 이어내여 발음하지 않으며 또 단어끝에서처럼 받침소리로 끊어내여 발음하지도 않는다.

모음앞에서 받침 《ㅎ》은 빠져서 발음되지 않는다. 모음앞의

받침 《ㅎ》을 뒤로 이어내서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좋은[조흔]×　　　[조은]○

닿아서[다하서]×　[다아서]○

땋으니[따흐니]×　[따으니]○

둘받침 《ㅀ, ㄶ》에 들어있는 《ㅎ》도 모음앞에서 발음되지 않는다. 《ㅎ》이 들어있는 둘받침은 모음앞에서 《ㅎ》을 빼버리고 홑받침 《ㄹ, ㄴ》처럼 발음한다. 즉 둘받침 《ㅀ, ㄶ》은 모음앞에서 《ㄹ》과 《ㄴ》을 뒤모음에 이어내는 방법으로 발음된다.

례:앓으니[알흐니]×　　[아르니]○

옳은[올흔]×　　　[오른]○

많이[만히]×　　　[마니]○

않아[안하]×　　　[아나]○

끊임[끈힘]×　　　[끄님]○

모음앞의 《ㅀ》의 발음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의를 돌려야 할 단어의 발음이 있다. 단어 《뚫다》의 발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편향이다.

일부 사람들은 단어 《뚫다》의 단어형태인 《뚫어서》를 [뚤러서]라고 발음하는가 하면 《뚫은 굴》을 [뚤른 굴]이라고 그르게 발음하고있다. [뚤른]이라고 하면 오히려 《뚫는》의 뜻으로 해석되여 이미 관통하여놓은 굴을 현재 뚫고있는 굴로 잘못 리해하게 되는것이다.

단어 《뚫다》에서의 《ㅀ》도 《ㅎ》을 빼버리고 《ㄹ》로 이어서 발음하며 필요없이 군소리를 끼워넣어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례:뚫으니[뚤르니]×　　[뚜르니]○

뚫었다[뚤럳따]×　　[뚜럳따]○

뚫은[뚤른]×　　　[뚜른]○

5. 닮아서 달라지는 소리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단어발음에서는 앞소리마디의 받침과 뒤소리마디의 첫소리자음이 결합할 때 어느 한 말소리가 다른 말소리의 영향을 입어 그의 소리성격을 닮아 다른 말소리로 바뀌여 발음되는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소리닮기현상이다.

소리닮기는 우리 말의 말소리과정을 지배하는 주요한 말소리법칙의 하나로서 이와 관련한 문화어발음법의 요구를 잘 알고 지켜나가는것은 문화어발음규범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소리닮기와 관련한 발음법의 원리를 바로 알자면 받침소리들의 어음적상관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받침소리는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가 있는데 이 소리들은 소리가 이루어지는 위치와 소리의 성질을 표식으로 상관적인 련관관계를 맺고있다.

조음위치 / 소리성질		혀앞	혀뒤	입술
막힘소리		ㄷ	ㄱ	ㅂ
울림소리	(코안)	ㄴ	ㅇ	ㅁ
	(입안)	ㄹ		

받침소리들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소리닮기현상을 살펴보면 소리닮기는 막힘소리들이 울림소리를 닮는것과 혀앞에서 나는 울림소리들이 나란히 놓일 때 닮는것의 두가지로 이루어진다는것을 알수 있다. 앞의 닮기는 울림소리닮기이고 뒤의 닮기는 혀옆소리닮기이다.

울림소리닮기는 울림자음들인 《ㄴ, ㄹ, ㅁ》앞에 받침으로 놓이는 소음적자음들이 뒤에 오는 울림소리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같은 조음위치에서의 울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례:받는[반는]　　　밭머리[반머리]

첫물[천물]　　　윷놀이[윤노리]
혁명[형명]　　　부엌문[부엉문]
밥물[밤물]　　　앞마을[암마을]

례에서 보는것처럼 자음앞에서 막힘소리 [ㄷ, ㄱ, ㅂ]로 나게 되여있는 받침자들은 뒤에 오는 울림소리의 영향을 받아 각기 해당한 조음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울림소리받침인 [ㄴ, ㅇ, ㅁ]로 바뀌여 발음되는것이다. 이때 닮는것은 소리의 성질이다. 즉 막힘소리가 울림소리를 닮아 울림소리로 된것이다.

우리 말에서 울림소리닮기는 발음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법칙적인 말소리과정이며 이런것으로 하여 발음실천에서 울림소리닮기 그자체를 위반하는 발음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리닮기와 관련한 발음에서 극복해야 할 편향적인 문제들은 울림소리닮기와 관련해서는 별로 제기되지 않으며 대개는 혀옆소리닮기와 관련한 발음에서 제기된다. 이와 함께 문화어발음법에서 비규범적인것으로 규정하고있는 조음위치를 닮아내는 발음도 경계하여야 할 발음편향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음위치를 닮아내는 발음이란 받침소리가 뒤의 자음의 영향을 입어 뒤자음의 조음위치와 같은 위치에서 나는 받침으로 바뀌여나는 발음현상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소리닮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발음법상의 요구를 혀옆소리닮기와 조음위치닮기의 측면을 기본으로 하여 설명한다.

1) 혀옆소리닮기발음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혀옆소리닮기는 구체적으로는 혀앞에서 나는 울림소리들인 《ㄴ》과 《ㄹ》이 받침과 첫소리로 나란히 놓였을 때 《ㄴ》이 《ㄹ》을 닮아 혀옆소리인 [ㄹ]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혀옆소리닮기는 《ㄴ》이 받침으로 되여 《ㄹ》앞에 놓이는 경우와 《ㄹ》이 받침으로 되여 《ㄴ》앞에 놓이는 경우의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닮기가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 앞의것은 올리닮기라고 하고 뒤의것은 내리닮기라고 부르고있다.)

례: - 내리닮기

단락[달락]　　　훈련[훌련]
천리마[철리마]　　근로자[글로자]

- 올리닮기

달님[달림]　　별나라[별라라]
쌀눈[쌀룬]　　칼날[칼랄]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ㄴ》이 《ㄹ》앞에 놓이든 《ㄹ》이 《ㄴ》앞에 놓이든 혀옆소리닮기의 결과는 모두 《ㄴ》이 《ㄹ》로 바뀌여 혀옆소리인 [ㄹ]로 발음되고있는것이다.

혀옆소리닮기에서는 우선 《ㄹ》받침뒤에 오는 《ㄴ》을 례외없이 [ㄹ]로 발음하여야 한다. 발음을 표기대로 한다고 하면서 《ㄹ》받침뒤에 오는 《ㄴ》을 꼭꼭 씹어 발음하여 발음의 류창성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달나라[달나라]× [달라라]○
들놀이[들노리]× [들로리]○
줄넘기[줄넘끼]× [줄럼끼]○

둘받침에서 [ㄹ]로 발음되는 《ㄼ, ㄾ》의 뒤에 《ㄴ》이 올 때에도 《ㄴ》을 혀옆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례:옭네[올네]×　　[올레]○
앓는다[알는다]× [알른다]○
끓누나[끌누나]× [끌루나]○
핥는[할는/한는]× [할른]○
훑네[훌네/훈네]× [훌레]○

혀옆소리닮기에서는 다음으로 《ㄴ》받침뒤에 《ㄹ》이 올 때 혀옆소리로 닮아나는 발음원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단어안에서 《ㄴ》과 《ㄹ》이 나란히 놓일 때는 많은 경우에 [ㄹㄹ]로 발음하지만 《렬》과 《률》의 앞에서와 합성단어의 형태부사이에서는 혀옆소리닮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ㄴㄹ》의 발음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순단어안에서 혀옆소리닮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즉 단순단어안에서 혀옆소리닮기로 발음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려는 경향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훈련》을 [훈련]이라고 굳게 발음하는가 하면 지어 [훈년]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단어 《훈련》은 혀옆소리로 닮아내여 [훌련]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이러한 실례는 많은 단어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례:련락[련락/련낙]×　[렬락]○
신랑[신랑/신낭]×　[실랑]○
관람[관람/관남]×　[괄람]○
전략[전략/전냑]×　[절략]○
군량[군량/군냥]×　[굴량]○
단련[단련/단년]×　[달련]○
전력[전력/전녁]×　[절력]○
권력[권력/권녁]×　[궐력]○
선로[선로/선노]×　[설로]○
연료[연료/연뇨]×　[열료]○
전류[전류/전뉴]×　[절류]○
관리[관리/관니]×　[괄리]○
혼례[혼례/혼녜]×　[홀례]○

《ㄴㄹ》의 발음을 표기대로 하려 하는 경향은 《년륜》이나 《련립》, 《넌례》와 같이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들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단순단어안에서 《ㄴㄹ》은 그것이 많이 쓰이는 단어이든 적게 쓰이는 단어이든 받침 《ㄴ》을 혀옆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단어안에서일지라도 《렬》과 《률》의 앞에 오는 받침 《ㄴ》은 혀옆소리로 닮아내지 않는다. 《렬》과 《률》의 발음에 대해서는 앞서 첫소리발음과 관련한 부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더 설명하지 않는다.(51페지 참조)

단어발음에서 《렬》과 《률》앞에 오는 받침 《ㄴ》은 언제나 자기 소리값대로 코안울림소리로 발음하며 《렬》과 《률》은

[녈]과 [뉼]로 발음한다. 《ㄴ》받침뒤에서 《렬》과 《률》을 [열]과 [율]로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사해본데 의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ㄴ》받침뒤에서 《렬》과 《률》의 첫소리 《ㄹ》을 발음하지 않고 [열]과 [율]로 발음하거나 지어 받침 《ㄴ》을 이어내여 발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음은 발음규범의 요구에 어긋나는것이므로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례: 진렬[진열/지녈/질렬] ×　[진녈] ○
선렬[선열/서녈/설렬] ×　[선녈] ○
균렬[균열/규녈/귤렬] ×　[균녈] ○
운률[운율/우뉼/울률] ×　[운뉼] ○
선률[선율/서뉼/설률] ×　[선뉼] ○
군률[군율/구뉼/굴률] ×　[군뉼] ○
환률[환율/화뉼/활률] ×　[환뉼] ○

《ㄴㄹ》의 발음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파생어나 합성단어에서 필요없이 혀옆소리로 닮아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ㄴㄹ》을 혀옆소리인 [ㄹㄹ]로 발음하는것은 단순단어안에서만 가능하다. 말뿌리들이 합쳐지거나 앞붙이나 뒤붙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에서 앞형태부가 《ㄴ》받침으로 끝나고 뒤형태부가 《ㄹ》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약하게 끊어지면서 《ㄴ》받침이 그대로 발음되고 뒤의 《ㄹ》이 《ㄴ》에 가깝게 발음되게 된다. 즉 이때에는 코안울림소리인 앞의 《ㄴ》이 입안울림소리인 뒤의 《ㄹ》을 닮아 혀옆소리로 되는것이 아니라 입안울림소리 《ㄹ》이 코안울림소리 《ㄴ》을 닮아서 [ㄴㄴ]로 발음되는것이다.

례: 민간료법[민갈료법] ×　[민간뇨뻡] ○
백전로장[백쩔로장] ×　[백쪈노장] ○
삼단론법[삼달론뻡] ×　[삼단논뻡] ○
손로동[솔로동] ×　[손노동] ○
생산량[생살량] ×　[생산냥] ○

우의 실례들은 두개의 말뿌리들사이에서 《ㄴㄹ》의 발음이 끊기여나는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ㄴㄹ》을 [ㄴㄴ]로 끊어서 발음함으로써 합성단어안의 말뿌리(형태부)들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단어의 뜻이 잘 드러나게 하는것이다.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앞붙이나 뒤붙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에서도 형태부사이에 놓이는 《ㄴㄹ》은 [ㄴㄴ]로 발음해야 한다.

《절반》의 뜻을 나타내는 앞붙이인 《반》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앞붙이인 《반》, 《진하다》는 뜻의 앞붙이 《진》, 《연하다》는 뜻의 앞붙이 《연》, 《순수한》의 뜻을 가진 앞붙이 《순》, 《모든》의 뜻을 나타내는 앞붙이 《전》 등이 《ㄹ》로 시작되는 단어앞에 붙어 쓰일 때 《ㄴㄹ》을 혀옆소리로 내지 않고 [ㄴㄴ]로 끊어 발음한다.

례: 반롱질[발롱질] ×　[반농질] ○
반력사적[발력싸적] ×　[반녁싸적] ○
진록색[질록쌕] ×　[진녹쌕] ○
연록색[열록쌕] ×　[연녹쌕] ○
순리익[술리익] ×　[순니익] ○
전량[절량] ×　[전냥] ○

《순》이나 《전》과 같이 관형사적기능을 노는 단어들이 《ㄹ》로 시작되는 단어들앞에 올 때에도 정확히 끊어서 발음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실례로 《전력의 량》을 나타내는 《전력량》은 [절령냥]이라고 발음하지만 《모든 력량》이라는 뜻의 《전 력량》은 [전녕냥]으로 발음해야 한다.

《힘》의 뜻을 나타내는 뒤붙이 《력》, 《료금》이라는 뜻의 《료》, 《수림》을 나타내는 《림》, 《길》을 의미하는 《로》, 《기록》이라는 뜻의 《록》, 《리론》이라는 뜻의 《론》 등의 뒤붙이들이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도 《ㄴㄹ》은 [ㄴㄴ]로 끊어서 발음해주어야 한다.

례: 정신력[정실력] ×　[정신녁] ○
견인력[겨닐력] ×　[겨닌녁] ○

살균력[살굴력]×　　[살균녁]○
출연료[추렬료]×　　[추련뇨]○
알선료[알설료]×　　[알선뇨]○
소년단림[소년달림]×　[소년단님]○
자연림[자열림]×　　[자연님]○
행군로[행굴로]×　　[행군노]○
횡단로[횡달로]×　　[횡단노]○
방문록[방물록]×　　[방문녹]○
견문록[견물록]×　　[견문녹]○
자본론[자볼론]×　　[자본논]○
일원론[이뤌론]×　　[이뤈논]○

이처럼 단어안의 형태부들의 경계가 명백히 갈라지는 경우에는 《ㄴㄹ》을 끊어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형태부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단어인 경우에는 《ㄴㄹ》을 혀옆소리로 발음하여야 한다. 앞붙이나 뒤붙이로 해석될수 있는 한자들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라도 두개의 글자로 된 단어들은 하나의 단순단어로 보고 《ㄴㄹ》을 혀옆소리로 발음하는것이 좋다.

례: 전력(전기의 힘)　[절력]
　전력(모든 힘)　[절력]
　군력(군사력)　[굴력]

혀옆소리로 발음하는 단순단어들의 《ㄴㄹ》은 그 단어가 다른 단어의 부분으로 쓰일 때에도 혀옆소리로 발음하여 단어의 형태부구성과 뜻이 잘 안겨오게 해야 한다.

례: 전력[절력]
　고전력[고절력]
　초고전력[초고절력]
　고전력학[고절려칵]

혀옆소리닮기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ㄴ》이 나란히 놓일 때의 발음을 바로 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ㄴ》이 나란히 올 때 다시말하여 《ㄴ》받침뒤에 《ㄴ》이 올 때에는 모두 표기대로 [ㄴ

ㄴ]로 발음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만년필》을 [말련필], 《관념》을 [괄렴]이라고 하며 지어 《안녕》을 [알령]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즉 단어안에서 《ㄴㄴ》을 혀옆소리로 발음하는것이다. 이러한 발음현상은 늙은이들속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지난 시기 《ㄴㄴ》을 [ㄹㄹ]로 발음하던 낡은 발음법에 익숙되여있는데 기인된다.

《ㄴㄴ》의 발음을 그대로 할수 없는 그 어떤 발음생리적원인도 없으며 그것을 혀옆소리인 [ㄹㄹ]로 발음해야 할 언어학적인 근거가 있는것도 아니다.

《ㄴㄴ》을 [ㄹㄹ]로 발음하는 현상은 지금에 와서는 더는 작용하지 않는 말소리과정으로서 일부 관습적으로 굳어진 단어들에서만 나타난다는것을 잘 알고 《ㄴㄴ》을 표기대로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례: 만년필[말련필]×　　[만년필]○
　천년만년[철련말련]×　[천년만년]○
　론난[롤란]×　　[론난]○
　안녕[알령]×　　[안녕]○

2) 받침의 조음위치를 바꾸어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

받침의 발음에서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입어 조음위치를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화어발음법에서는 소리의 성질이 닮아 바뀌여나는 현상만을 닮기현상으로 인정하고 소리가 이루어지는 위치를 닮아 바뀌여나는 발음은 비규범적인것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면 조음위치를 닮는 발음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보기로 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감기》를 [강기]라고 하고 《문법》을 [뭄뻡]이라고 하며 《합격》을 [학껵]이라고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이런 현상은 단어를 발음하면서 뒤소리마디의 첫소리자음의 발음에 편하도록 앞의 받침의 조음위치를 변경시킨 결과에

이루어지는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기》에서는 입술에서 이루어지는 울림소라받침인 [ㅁ]를 뒤에 오는 자음 《ㄱ》과 같은 위치에서 나는 혀뒤울림소리인 [ㅇ]으로 바꾸어 발음하고있다. 《문법》에서의 《ㄴ》이 [ㅁ]로 바뀐것도, 《합격》에서의 《ㅂ》받침이 [ㄱ]로 바뀌여 발음되는것도 다 뒤에 오는 자음과 같은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받침소리로 변한것이다.

이렇게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위치를 닮아 받침의 조음위치를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을 조음위치닮기라고 한다.

조음위치를 닮아 달라지는 발음은 비규범적인 발음이라는것을 잘 알고 발음실천에서 받침소리를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 조음위치를 바꾸어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는 우선 혀앞이나 입술에서 나는 받침소리를 혀뒤에서 나는 소리로 바꾸어 발음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발음현실을 관찰해보면 조음위치를 바꾸어 발음하는 편향은 혀뒤소리자음앞에 오는 받침소리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음 《ㄱ, ㅋ, ㄲ》앞에 오는 혀앞받침소리들인 [ㄷ]와 [ㄴ], 입술받침소리들인 [ㅂ]와 [ㅁ]를 혀뒤받침소리들인 [ㄱ]와 [ㅇ]으로 바꾸어 발음하지 말고 정확히 자기 소리로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례: 감기[강기]× [감기]○
잡곡[작꼭]× [잡꼭]○
앞길[악낄]× [압낄]○
안기다[앙기다]× [안기다]○
옷감[옥깜]× [옫깜]○
꽃구름[꼭꾸름]× [꼳꾸름]○
곶감[곡깜]× [곧깜]○

조음위치를 바꾸어 발음하는 편향을 없애는데서는 다음으로 혀앞소리로 나는 받침소리를 입술소리로 바꾸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것이 중요하다. 조음위치를 바꾸어 발음하는 편향은 혀앞에서 나는 받침소리를 그뒤에 입술소리자음이 오는 경우에 그것을 닮아내여 입술에서 나는 받침소리로 바꾸어내는 형식으로도 나타난다. 자음 《ㅂ, ㅍ, ㅃ》앞에서 혀앞의 받침소리인 [ㄷ]와 [ㄴ]를

입술에서 나는 받침소리들인 [ㅂ]와 [ㅁ]로 바꾸어 발음하지 말고 자기 소리값대로 혀앞받침소리로 발음하여야 한다.

례: 문법[뭄뻡]× [문뻡]○
헌법[험뻡]× [헌뻡]○
전부[점부]× [전부]○
선별[섬별]× [선별]○
전파[점파]× [전파]○
꽃밭[꼽빧]× [꼳빧]○
젖먹이[점머기]× [전머기]○
첫물[첨물]× [천물]○
팥밥[팝빱]× [판빱]○
햇밥[햅빱]× [핻빱]○

6. 《ㅎ》의 발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 말에서 《ㅎ》은 혀뒤에서 나는 스침소리로서 말소리흐름속에서 일련의 변화를 일으킨다. 말소라흐름속에서 《ㅎ》은 앞뒤에 놓이는 다른 말소리들의 영향을 입어 다른 소리로 합쳐나거나 약화되거나 아예 발음되지 않는 식으로 변하게 된다. 말소리흐름속에서 《ㅎ》은 네가지 경우, 즉 온전한 소리로 나는 경우와 약화되여 나는 경우, 아예 빠져버려 발음되지 않는 경우, 다른 소리와 합쳐져 제3의 소리로 나는 경우로 실현된다. 《ㅎ》의 발음은 그것이 놓인 위치적 및 결합적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1) 단어의 첫머리에서 《ㅎ》의 발음

다른 모든 자음들과 마찬가지로 《ㅎ》이 자기의 소리값을 제대로 내게 되는 경우는 단어의 첫소리로 날 때이다.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ㅎ》의 온전한 발음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어음론적조건도 없으며 《ㅎ》은 모든 모음앞에서 정확하게 발음되게 된다.

단어의 첫머리에 놓이는 《ㅎ》은 언제나 자기 소리값을 정확하

게 내여 발음해야 한다. 단어 첫머리의 《ㅎ》을 약화시켜 약하게 발음하거나 거의 빠뜨리다싶이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 학교[학꾜]　　해방[해방]
　　홰불[홰뿔]　　휴식[휴식]
　　휘장[휘장]　　호랑이[호랑이]

단어 첫머리에서 겹모음앞에 있는 《ㅎ》을 《ㅅ》과 같이 아리숭하게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휘파람》을 [쉬파람]이라고 하고 《휴식》을 [슈식]이라고 하는 편향들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겹모음을 발음하면서 조음위치를 입천장쪽으로 옮긴 결과에 혀뒤에서 스쳐내야 할 《ㅎ》을 입천장의 보다 앞쪽으로 옮겨서 스쳐내기때문에 일어나는 발음편향이다. 이와 함께 이렇게 발음하는것이 일종의 《강조》에 의한것이라고 그릇되게 생각한데도 원인이 있다.

겹모음과 함께 발음한다고 해서 《ㅎ》을 혀앞부분에서 스쳐나는 [ㅅ]로 발음해도 된다는 조건은 없다. 단어의 첫머리에 놓이는 《ㅎ》은 그것이 홑모음앞이든, 겹모음앞이든 언제나 자기 소리값대로 온전하게 발음해야 한다.

례: 휴양[슈양]×　　[휴양]○
　　형님[셩님/성님]×　[형님]○
　　혜염[세염]×　　[혜염]○
　　효과[쇼꽈]×　　[효꽈]○

2) 모음이나 울림소리뒤에 오는 첫소리 《ㅎ》의 발음

모음이나 울림소리뒤에 《ㅎ》이 오는 경우에 《ㅎ》은 약하게 발음되거나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화된다. 특히 단어의 마지막이 《히》로 끝나는 부사들에서는 《ㅎ》이 거의 발음되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례: 철저히[철쩌히∼철쩌이]
　　공고히[공고히∼공고이]

　　영원히[영원히∼영워니]
　　찬란히[찰란히∼찰라니]
　　활발히[활발히∼활바리]
　　용감히[용감히∼용가미]
　　열심히[열씸히∼열씨미]
　　조용히[조용히∼조용이]
　　훌륭히[훌륭히∼훌륭이]

《ㅎ》이 약화되는 현상은 울림소리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례: 전화[전화∼저놔]　　안해[안해∼아내]
　　불합격[불합격∼부랍껵]　결혼[결혼∼겨론]
　　암호[암호∼아모]　　김해[김해∼기매]

모음이나 울림소리뒤에 오는 첫소리 《ㅎ》이 약화되는것은 발음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말소리과정이다. 모음이나 울림소리뒤에서 울림없는 자음들은 울림소리로 넘어가거나 혹은 날숨의 세기가 약화된다. 《ㅎ》은 발음통로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 혀뒤부분에서 스쳐나는 소리로서 모음이나 울림소리뒤에서 다른 자음들보다 더 쉽게 약화된다. 특히 울림소리인 《ㄹ》뒤에서 《ㅎ》은 유성화되면서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약화된다.

소리가 약화된다는것은 말소리가 나는 정도가 약해졌다는것이지 아예 없어져버린다는것은 아니다. 모음이나 울림소리뒤에서 《ㅎ》이 약화되면 《ㅎ》이 다른 말소리에 눌리워 약하게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완전히 빠져서 발음되지 않는것과는 다른 질의 소리로 실현된다. 실례로 《올해》라는 단어는 [오래]처럼 발음되지만 [ㄹ]뒤에 약한 목구멍스침소리([ㅎ])가 섞여있어 단어 《오래》를 발음할때의 소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발음표기에서 《ㅎ》이 약화된것은 그대로 표기하여주는 원칙을 지키게 된다.

모음이나 울림소리뒤에서 《ㅎ》을 무턱대고 빠뜨려 발음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음이나 《ㅇ》받침뒤에서 그

리고 단어안의 형태부들사이에서는 《ㅎ》을 단어의 첫머리에서보다는 약하더라도 제대로 발음해주어야 한다.

례:소화기[소와기]× [소화기]○
언어학[어너악]× [어너학]○
기후[기우]× [기후]○
경희극[경이극]× [경히극]○
공해[공애]× [공해]○
철저하다[철쩌아다]× [철쩌하다]○
적응하다[저긍아다]× [저긍하다]○
독점하다[독쩜하다~독쩌마다]○
찬란한[찰란한~찰라난]○
활발한[활발한~활바란]○

3) 순한소리들과 어울리는 《ㅎ》의 발음

《ㄱ, ㄷ, ㅂ, ㅈ》과 같은 순한소리들이 《ㅎ》의 앞이나 뒤에 나란히 놓이는 경우에 《ㅎ》은 순한소리와 합쳐져 거센소리로 발음된다. 이런 말소리과정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ㅎ》이 받침으로 순한소리자음의 앞에 놓이든, 아니면 첫소리로 막힘소리받침의 뒤에 놓이든 관계없이 거센소리되기는 반드시 일어난다.

거센소리되기는 원리적으로 두개의 말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말소리로 되는 현상으로서 받침이 발음되지 않는것이 옳다.

거센소리되기로 발음해야 할 단어들을 표기대로 어색하게 끊어서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ㅎ》은 그것이 홑받침으로 되여있든 둘받침에 놓여있든 뒤에 오는 순한소리와 합쳐 거센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례:노랗게[노랃께]× [노라케]○
누렇다[누런따]× [누러타]○
그렇지[그런찌]× [그러치]○
뚫다[뚤따]× [뚤타]○
끊게[끈께]× [끈케]○

특히 둘받침 《ㄶ, ㅀ》의 뒤에서 거센소리되기를 바로 내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의 《꿇고》를 [꿀꾜]라고 하는가 하면 《줄을 끊다》의 《끊다》를 [끈따]라고 그릇되게 발음하기도 한다. 《꿇고》와 《끊다》는 각각 [꿀쿄], [끈타]로 거센소리를 내여 발음해야 한다.

둘받침 《ㅀ》의 뒤에 오는 순한소리자음을 거센소리로 합쳐내지 않는 단어들도 있다. 단어 《옳바르다》와 《옳바로》가 그 실례이다. 이 단어들은 거센소리되기로 발음하지 않고 [올바르다]와 [올바로]로 발음해야 한다.

《ㅎ》이 첫소리로 놓일 때 앞의 막힘소리받침과 합쳐서 거센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앞의 받침이 둘받침인 경우에는 오른쪽 받침과 합쳐서 거센소리로 발음하여야 한다.

례:축하[추카/축카]○ [축하]×
늦호박[느토박/늗토박]○ [늗호박]×
급하다[그파다/급파다]○ [급하다]×
밝히다[발키다]○ [바키다/박히다]×
넓히다[널피다]○ [너피다/넙히다]×

《옳바르다》라는 말은 《옳다》와 《바르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다. 《옳다》의 말뿌리 《옳》은 합친말의 앞요소로 쓰일 때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례는 단어 《올곧다》의 《올》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옳바르다》의 《옳》과 《올곧다》의 《올》은 같은 말뿌리들이다. 다만 《옳바르다》와 《옳바로》에서는 맞춤법표기상 뜻이 더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말뿌리 《옳》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적은것이다. 그러므로 《옳바르다》와 《옳바로》는 기계적으로 [올파르다]나 [올파로]로 발음할것이 아니라 [올바르다]와 [올바로]로 발음하여야 한다.

막힘소리 [ㄷ]뒤에 《히》가 오는 경우에는 입천장소리되기에 따라 [치]로 발음해야 한다.

례: 닫히다[다티다]× [다치다]○
굳히다[구티다]× [구치다]○
걷히다[거티다]× [거치다]○

4) 받침 《ㅎ》의 발음을 경우에 맞게 바로해야 한다

받침 《ㅎ》은 뒤에 어떤 말소리가 오는가 하는데 따라 여러가지로 달리 발음된다. 뒤에 순한소리자음들이 올 때 거센소리로 합쳐나는데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모음앞에서와 기타 자음들앞에서 《ㅎ》받침의 발음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모음앞에서 《ㅎ》받침은 발음하지 않는다. 모음앞에 놓이는 《ㅎ》받침의 소리빠지기는 둘받침안의 《ㅎ》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64페지 참조)

모음앞에 놓이는 《ㅎ》받침을 뒤모음으로 이어내서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례: 좋아[조하]× [조아]○
닿이선[다히선]× [다이선]○
쌓이다[싸히다]× [싸이다]○
많이[만히]× [마니]○
끓음점[끌흠점]× [끄름점]○
뚫어서[뚤허서/뚤러서]× [뚜러서]○

다음으로 울림소리나 《ㅅ》앞에 놓이는 《ㅎ》받침은 막힘소리 [ㄷ]처럼 발음한다.

우리 말에서 《ㅎ》받침뒤에 오는 울림소리는 《ㄴ》뿐이다. 이때 《ㅎ》받침은 막힘소리 [ㄷ]로 바뀌여 울림소리로 닮아나면서 [ㄴ]로 발음된다.

례: 좋니[존니] 좋나요[존나요]

빨갛네[빨간네] 빨갛나요[빨간나요]
쌓네[싼네] 쌓나요[싼나요]

둘받침안의 《ㅎ》은 울림소리앞에서 빠져서 발음되지 않는다. 즉 《ㄶ》과 《ㅀ》은 《ㄴ》앞에서 [ㄴ], [ㄹ]처럼 발음하여야 한다.

례: 많네[만네] 많나요[만나요]
옳네[올레] 옳나요[올라요]
앓네[알레] 앓나요[알라요]
앓는다[알른다]

뒤에 자음 《ㅅ》이 오면 받침의 《ㅎ》은 발음하지 않고 《ㅅ》을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하여야 한다.

례: 좋소[조쏘] 좋습니다[조씁니다]
많소[만쏘] 많습니다[만씁니다]
앓소[알쏘] 앓습니다[알씁니다]

7. 된소리되기발음을 정확히 해야 한다

단어발음에서는 앞의 받침소리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순한소리자음이 된소리로 나는 발음을 잘해야 한다.

된소리는 순한소리의 조음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음기관을 보다 긴장시켜서 내는 소리이다. 조음과정에서 이러한 긴장상태는 말소리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허뜨리는 방법으로 조성된다. 순한소리로부터 된소리에로의 이행을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해볼수도 있다. 먼저 막힘소리받침을 내면서 이어서 순한소리자음을 발음하면 뒤에 오는 순한소리자음이 된소리처럼 발음되는것을 느낄수 있다.

말소리흐름속에서 순한소리자음이 막힘소리나 그밖의 영향으로 된소리로 바뀌여 발음되는 과정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우리 말에서 된소리되기는 막힘소리뒤에서의 된소리되기와 울림소리뒤에서의 된소리되기, 특수한 한자음의 된소리되기로 크게 갈라서 살펴볼수 있다. 일부 모음뒤에서 된소리되기를 취급하는 경

우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모음과 순한소리사이에 막힘소리 《ㄷ》이 끼여서 이루어지는 발음이므로 어음론적으로는 막힘소리뒤에서의 된소리되기현상으로 볼수 있다. 말소리들사이에 막힘소리 《ㄷ》이 끼여나는 발음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론하기로 한다.

막힘소리뒤에서 순한소리자음들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막힘소리뒤에서 된소리되기는 거의나 법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말소리과정으로서 발음실천에서 별로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표기대로 발음한다고 하면서 단어안의 글자들을 꼭꼭 씹어서 막힘소리뒤의 순한소리를 그대로 내려고 하여 단어발음전체를 어색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례: 학습[학습]× [학씁]○
같다[갇다]× [갇따]○
웃고[욷고]× [욷꼬]○
닦다[닥다]× [닥따]○
합격[합격]× [합껵]○
없다[업다]× [업따]○
앞길[압길]× [압낄]○

1) 울림소리뒤에서의 된소리되기발음을 정확히 해야 한다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단어발음에서는 울림소리뒤에서 순한소리들이 된소리로 나는 발음에 대하여 잘 알고 그대로 발음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울림소리뒤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막힘소리뒤에서의 된소리되기와는 달리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발음생리적인 발음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꼭같은 말소리결합이라도 단어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것을 보고 알수 있다. 실례로 《신발을 신고》의 《신고》는 [신꼬]로 발음하지만 《신고를 하다》의 《신고》는 [신고]로 발음하며 《날자를 정하

다》의 《날자》는 [날짜]로 발음하지만 《하늘을 날자》의 《날자》는 된소리되기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울림소리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먼저 소리토막안에서 규정토 《ㄹ》이나 토안의 《ㄹ》받침뒤에 순한소리자음이 오게 되면 그 자음은 례외없이 된소리로 발음하여야 한다.

토에서 《ㄹ》뒤의 순한소리자음들은 언제나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러나 같은 울림소리라도 《ㄴ》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례: ㄹ가-갈가[갈까](집에 ～)
ㄹ듯-갈듯말듯[갈뜯말뜯]
ㄹ지-갈지말지[갈찌말찌]
ㄴ가-좋은가[조은가]
ㄴ듯-좋은듯[조은듣]
ㄴ지-좋은지[조은지]

소리토막안에서 토 《ㄹ》뒤에 불완전명사들이 올 때에도 순한소리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때에도 토 《ㄴ》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례: 좋을수[조을쑤] 있다
알바가[알빠가] 아니다
잊을번[이즐뻔]하다
할줄[할쭐] 알다
갈것이다[갈꺼시다]
좋은수가[조은수가] 있다
아는바이다[아는바이다]
좋은줄[조은줄] 안다
가는것이다[가는거시다]

토 《ㄹ》이 들어가 만들어진 단어들에서도 뒤에 오는 순한소리자음들은 된소리로 내야 한다.

례:들것(담가)[들걷]×　[들껃]○
길짐승(기는 짐승)[길짐승]×　[길찜승]○
멜가방(메는 가방)[멜가방]×　[멜까방]○
들가방(드는 가방)[들가방]×　[들까방]○
날짐승(나는 짐승)[날짐승]×　[날찜승]○
날다람쥐(나는 다람쥐)[날다람쥐]×　[날따람쥐]○

다음으로 수사 《열》과 《여덟》의 뒤에 순한소리자음으로 시작되는 불완전명사들이 올 때에는 그 순한소리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같은 울림소리라도 《ㄴ》으로 끝나는 《한》의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례:열개[열개]×　[열깨]○
여덟장[여덜장/여덥짱]×　[여덜짱]○
열그루[열그루]×　[열끄루]○
여덟대[여덜대/여덥때]×　[여덜때]○
한그루[한그루]○　[한끄루]×

다음으로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에 토가 어우를적에 울림소리뒤에서 된소리되기발음을 정확히 해야 한다. 말줄기가 《ㄴ, ㅁ》으로 끝난 동사나 형용사뒤에서 순한소리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러나 《ㄹ》받침으로 끝난 말줄기뒤에 오는 토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례:안다[안따], 안자[안짜], 안고[안꼬], 안소[안쏘]
감다[감따], 감자[감짜], 감고[감꼬], 감소[감쏘]
알다[알다], 알자[알자], 알고[알고], 아오[아오]

둘받침뒤에서는 울림소리뒤에서의 된소리되기가 기본적으로 일어난다.

례:앉다[안따], 앉자[안짜], 앉고[안꼬], 앉소[안쏘]
삶다[삼따], 삶자[삼짜], 삶고[삼꼬], 삶소[삼쏘]
핥다[할따], 핥자[할짜], 핥고[할꼬], 핥소[할쏘]

다음으로 한자어들에서 《ㄹ》받침뒤에 오는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것을 경우를 가려 잘하여야 한다.

한자말단순단어안에서 《ㄹ》받침뒤의 《ㄷ, ㅅ, ㅈ》은 모두 된소리로 발음하여야 한다. 한자말단순단어에서는 《ㄹ》받침뒤에서 《ㄷ, ㅅ, ㅈ》의 된소리되기가 법칙성을 띠므로 순한소리를 그대로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례:발달[발딸], 발동[발똥], 결단[결딴], 출두[출뚜], 갈등[갈뜽]…
결사[결싸], 출석[출썩], 발생[발쌩], 질서[질써], 절세의[절쎄의]…
물질[물찔], 결전[결쩐], 굴지[굴찌], 날조[날쪼], 철제일용[철쩨이룡]…

한자말파생단어들에서도 《ㄹ》받침뒤의 《ㄷ, ㅅ, ㅈ》을 대부분 된소리로 발음하여야 한다. 한자말말뿌리와 그에 붙은 앞붙이나 뒤붙이를 구분하여 발음한다고 하면서 필요이상으로 《ㄹ》받침뒤에 오는 《ㄷ, ㅅ, ㅈ》을 순한소리 그대로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 규찰대[규찰대]×　[규찰때]○
예술단[예술단]×　[예술딴]○
울밀대[울밀대]×　[울밀때]○
정밀도[정밀도]×　[정밀또]○
화물선[화물선]×　[화물썬]○
고물상[고물상]×　[고물쌍]○
검찰소[검찰소]×　[검찰쏘]○
시말서[시말서]×　[시말써]○
관찰사[관찰사]×　[관찰싸]○
불신임[불시님]×　[불씨님]○
몰상식[몰상식]×　[몰쌍식]○
섬멸전[섬멸전]×　[섬멸쩐]○
관철자[관철자]×　[관철짜]○
리별주[리별주]×　[리별쭈]○

다만 《력사》의 뜻을 나타내는 《사》, 《시설을 차려놓은 방》의 뜻을 나타내는 《실》을 비롯한 일부 뒤붙이들과 몇몇 단어들에 한해서는 굳어진대로 순한소리를 그대로 발음한다.

례:건설사[건설싸]× [건설사]○
학설사[학썰싸]× [학썰사]○
수술실[수술씰]× [수술실]○
진렬실[진녈씰]× [진녈실]○
리발사[리발싸]× [리발사]○
몰사격[몰싸격]× [몰사격]○
별세상[별쎄상]× [별세상]○

한자말합성단어들이나 단어결합에서는 《ㄹ》받침뒤에 오는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순한소리를 그대로 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리토막안에서 단어들의 경계를 명백하게 나타내는것이다. 그러므로 단어들사이에서 《ㄹ》뒤에 오는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친솔대오[친솔대오], 기술대학[기술대학], 미술도안[미술도안]…
물질생활[물찔생활], 기술수단[기술수단], 건달사상[건달사상]…
통일전선[통일전선], 개별지도[개별지도], 독불장군[독뿔장군]…

단어사이에서 울림소리뒤의 된소리되기를 하지 않는것은 세글자로 된 한자말합성단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세글자미만의 한자말단어는 덮어놓고 《ㄹ》뒤의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이러한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례:사열식[사열씩]× [사열식]○
계렬식[게열씩]× [게열식]○
삼일장[사밀짱]× [사밀장]○

고유어나 고유어가 들어가 만들어진 단어들에서는 한자말단어에서처럼 《ㄹ》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일부 고유어단어들에서 울림소리뒤의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현상들은 뒤에서 설명하게 될 사이소리끼우기에 의한 발음현상일뿐이지 울림소리의 영향에 의한 된소리되기가 아니다.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단어들에서는 《ㄹ》을 포함한 울림소리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유어단어들에서 《ㄹ》뒤의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무턱대고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례:돌담[돌:땀]× [돌:담]○
말대답[말때답]× [말대답]○
돌소금[돌쏘금]× [돌소금]○
말사슴[말싸슴]× [말사슴]○
겨울신[겨울씬]× [겨울신]○
보물섬[보물썸]× [보물섬]○
과일즙[과일쯥]× [과일즙]○
연설쟁이[연설쨍이]× [연설쟁이]○

다만 《색갈》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 《색》은 굳어진대로 《ㄹ》받침뒤에서 [쌕]으로 발음하여야 한다. 그러나 《ㄹ》받침이외의 울림소리뒤에서는 순한소리를 그대로 내여 발음하여야 한다.

례:풀색[풀색]× [풀쌕]○
물색[물색]× [물쌕]○
하늘색[하늘색]× [하늘쌕]○
감색[감색]○ [감쌕]×
노랑색[노랑색]○ [노랑쌕]×

이상 울림소리뒤에서 된소리로 바뀌여 나는 발음현상이 나타나는 언어적조건들에 대하여 크게 네가지로 갈라 설명하였다. 이 네가지 언어적조건 즉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와 토사이에서, 수사 《열》과 《여덟》의 뒤에서, 토 《ㄹ》과 관련된 발음에서 그리고 한자어안의 《ㄹ》뒤에 오는 《ㄷ, ㅅ, ㅈ》의 발음에서의 된소리되기를 제외한 기타의 조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내놓고는 모두 울림소리뒤에서 순한소리를 그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경우란 곧 사이소리가 끼여나는 경우이다.

2) 특수한 한자들의 된소리되기발음을 잘해야 한다

한자어단어들의 발음에서 일부 한자들이 된소리로 바뀌여 발음되는 원리를 잘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는것이 중요하다.

한자어안에서 일부 한자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특수한 자음의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한자어안에서 특수한자들의 된소리되기는 어떤 어음론적조건에 의한 필연적인 발음현상이 아니다. 구태여 특수한자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어음론적조건을 찾아본다면 그것이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오직 단어가운데나 끝에서 나타난다는것이다.

특수한 한자의 된소리되기는 그 한자가 나타내는 뜻을 명백하게 구별시켜 강조하려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굳어진 발음관습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므로 특수한 한자의 된소리되기발음을 정확히 하자면 단어안에서 나타내는 뜻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하게 되는 특수한 한자들의 용법에 대하여 잘 알고 그에 맞게 발음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먼저 단어안에서 된소리로 발음하게 되는 특수한 한자들로 어떤것들이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한다.

단어안에서 된소리로 발음하는 특수한 한자들에는 독자적으로 단어로 쓰일수 있는 한자들이 있는가 하면 홀로는 단어로 되지 못하고 다른 한자와 어울려서만 단어를 이루는 한자들도 있다. 대표적인 특수한 한자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홀로 단어로 쓰일수 있는것

○ 건(件)-《일거리》라는 뜻.

사건[사껀], 조건[조껀], 문건[문껀], 안건[안껀], 용건[용껀]…

○ 격(格)-《격식, 자격》의 뜻.

주격[주껵], 대격[대껵], 성격[성껵], 품격[품껵], 인격[인껵] …

○ 구(句)-《글, 말마디》의 뜻.

시구[시꾸], 문구[문꾸], 어구[어꾸], 례구[례꾸], 성구[성꾸]…

○ 과(課)-《부서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자재과[자재꽈], 설비과[설비꽈], 2과[이꽈], 9과[구꽈]…

○ 법(法)-《방법, 법제》의 뜻.

교수법[교수뻡], 공법[공뻡], 료법[료뻡], 례법[례뻡], 형법[형뻡], 민법[민뻡]…

○ 점(點)-《표식, 개소》의 뜻.

우점[우쩜], 시점[시쩜], 허점[허쩜], 거점[거쩜], 화점[화쩜]…

- 홀로 단어로 쓰이지 못하는것

○ 가(價)-《값》의 뜻.

대가[대까], 시가[시까], 진가[진까], 원가[원까], 물가[물까]…

○ 권(權)-《권한》의 뜻.

교권[교꿘], 군권[군꿘], 리권[리꿘], 소유권[소유꿘], 자주권[자주꿘]…

○ 권(卷)-《증명의 표식으로 되는 문건》.

려권[려꿘], 채권[채꿘], 초대권[초대꿘], 료양권[료양꿘]…

○ 권(圈)-《지역, 범위》의 뜻.

대기권[대기꿘], 포위권[포위꿘], 등수권[등수꿘]…

○ 과(果)-《맺어지는 결과》의 뜻.

효과[효꽈], 성과[성꽈], 후과[후꽈], 전과[전꽈]…

○ 과(科)-《학과나 전문분야의 단위》.

내과[내꽈], 공과[공꽈], 리과[리꽈], 콩과[콩꽈], 벼과[벼꽈]…

○ 성(性) -《성질, 성품》의 뜻.

강대성[강대썽], 자주성[자주썽], 독자성[독자썽], 인민성[인민썽]…

○ 적(的)-《…과 련관된, …의 범위의》.

내적[내쩍], 시적[시쩍], 당적[당쩍], 혁명적[혁명쩍]…

○ 증(症)-《병의 증상》의 뜻.

광증[광쯩], 염증[염쯩], 허기증[허기쯩], 미친증[미친쯩]…

○ 증(證)-《증명문서》의 뜻.

대표증[대표쯩], 사증[사쯩], 인수증[인수쯩], 송증[송쯩]…

우에서 렬거한 특수한 한자들의 된소리되기를 보면 사이소리에 의한 된소리되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적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다. 자립적으로 쓰일수 있는 한자들이 명사적단어뒤에 붙는 경우는 사이소리와 류사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특수한 한자들은 명사적형태부들사이의 규정적결합이외의 경우에도 된소리로 발음되는것을 알수 있다.

특수한 한자들은 《사건, 성격, 성구, 료법, 대가, 리권, 외과, 효과》에서처럼 형태부를 갈라 인식하기 어려운 《단순단어》에서도 된소리로 발음되며 《미친증》에서처럼 규정형태뒤에서도 된소리로 발음된다.

다음으로 특수한 한자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어휘의미적조건들과 례외지식을 잘 알아야 한다. 같은 한자라도 그것이 단어안에서 나타내는 뜻이 다른 때에는 달리 발음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에서 렬거한 한자가 들어있는 단어라고 하여 무작정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실례로 《과(果)》가 《과일》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실과, 채과, 무화과》에서처럼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으며 《건(件)》은 《사물의 가지가지나 일의 거리》를 나타낼 때에는 대개 된소리로 발음되나 《물건》에서만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것과 같은 례외도 있다.

한자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특수한 한자들의 자료를 참고자료에 수록하였다.

8. 소리끼우기와 관련한 발음을 바로해야 한다

단어발음에서 틀리기 쉽고 또 리해하기 어려워하는것이 바로 소리끼우기와 관련한 발음이다. 소리끼우기는 어떤 때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것을 바로 알고 단어발음을 정확하게 하도록 해

야 한다.

소리끼우기는 단어를 발음할 때 단어를 이루는 형태부들사이에 다른 말소리가 끼워들어가 단어발음이 표기와 달라지게 되는 발음현상이다. 형태부들사이에 어떤 소리가 어떻게 끼워나는가에 따라 형태부들사이에 접해있는 말소리들이 달리 발음된다. 여기서 취급하는 소리끼우기는 그 원인이 어떻든간에 맞춤법상의 형태표기로 드러나지 않은 말소리가 실지 발음상에서 나타나는 측면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묶여지는 발음현상들이다. 소리끼우기로 취급되는 발음현상들에는 고유한 의미에서 없던 제3의 소리가 끼워나는것도 있고 원래는 존재하던 소리가 맞춤법의 발전과 더불어 표기되지 않게 된것도 있다.

여기서는 소리끼우기와 관련한 발음을 사이소리끼워내기와 《ㄴ》의 끼워내기, 《암, 수》뒤에서 《ㅎ》의 끼우기로 갈라서 설명하려고 한다.

1) 사이소리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어머니와 어린이가 길을 가고있었다. 예닐곱살가량의 어린이는 한창 글을 익히는 때인지 길거리에 늘여진 간판들을 소리내여 열심히 읽고있었다.

《미용, 꽃, 금붕어, 국수집, 순대국집…》

《가만, 철이, 다시 읽어봐요.》

어머니의 요구에 아이는 의아해하며 다시 읽는다.

《순대…국…집》

《오, 쓰기는 그렇게 썼는데 읽는것은 <순대꾹찝>이라고 읽어야 해요.》

《순대꾹찝?!》

《그래, 철인 오늘아침 무슨 국을 먹었나요?》

《두부꾹!》

《그것 봐요. 두부를 넣고 끓인 국을 <두부꾹>이라고 말하는것처럼 순대를 넣어 끓인 국도 <순대꾹>이라구 하는거예요.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고기를 끓인건 <고기꾹>, 배추를 넣어 끓인건 <배추꾹>, 만두를 넣은건 <만두꾹>이라구 하나요?》

《그래, 말하기는 <고기꾹>, <배추꾹>, <만두꾹>이라구 하지만 쓰기는 <국>이라구 써야 해요.》

…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르친 내용의 발음현상을 언어학에서는 사이소리현상이라고 한다.

사이소리현상은 언어학적으로 정의하면 모음이나 울림소리로 끝나는 형태부가 뒤에 오는 형태부에 규정적관계로 어울릴 때 두 형태부사이에 막힘소리 [ㄷ]나 울림소리 [ㄴ]를 덧내여 발음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두개의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 뒤요소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여나거나 사이에 받침소리 [ㄴ]가 덧끼워나는 발음현상을 말한다.

실례로 《고기》와 《국》이 합쳐져 《고기국》이라는 단어를 이룰 때 뒤요소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되여 [고기꾹]으로 되는것을 들수 있다. 이것은 《고기》와 《국》사이에 사이소리로 막힘소리 [ㄷ]가 끼우고 그 영향으로 뒤에 오는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여진 결과로 이루어진것이다. 막힘소리뒤에서 순한소리가 자연스럽게 된소리로 넘어간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닭알국》이나 《토장국》, 《생선국》과 같이 울림소리들의 뒤에 놓인 《국》도 사이소리에 의해 된소리로 바뀌여 [꾹]으로 발음된다.

다른 실례로 《세수》에 《비누》나 《물》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단어들인 《세수비누》와 《세수물》의 발음을 보자. 이 단어들은 각기 [세수삐누]와 [세순물]로 발음해야 한다. 《세수비누》에서는 사이소리 [ㄷ]가 뒤에 오는 《ㅂ》을 된소리로 되게 하였고 《세수물》에서는 울림소리 《ㅁ》앞에서 사이소리 [ㄷ]가 울림소리로 닮아나서 울림소리받침인 [ㄴ]로 발음된것이다.

사이소리가 나는 단어들의 발음을 정확히 해주어야 한다. 사이소리를 내야 할것을 내지 않고 발음하면 단어의 뜻이 달라지며 말의 어감도 제대로 안겨오지 않게 된다.

실례로 《강가》라는 단어도 [강까]로 읽으면 《강의 기슭이 되는 부분》을 나타내지만 [강가]로 읽으면 성이 《강》씨인 사람을 가

리키는 말로 된다. 또한 《파국》이란 단어도 [파꾹]이라고 발음하면 《파를 썰어넣어 끓인 국》으로 리해되지만 [파국]이라고 발음하면 《일이 글러가는 판국》의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실례로 《비와 바람》이라는 뜻의 《비바람》은 [비바람]으로 발음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세차게 내리는 비》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비빠람]이라고 사이소리를 끼워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에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사이소리를 내야 할 단어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발음현실을 살펴보면 단어발음에서 사이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또 필요이상으로 사이소리를 끼워내여 단어의 뜻이 잘 안겨오지 않게 하고 듣기에도 어감상 어색하게 하는 발음편향들이 적지않게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편향들은 글을 읽을 때 더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말 맞춤법에서 단어를 글로 적을 때 사이소리와 관련한 표기를 밝혀적지 않는 사정과도 많이 련관되여있다.

사이소리와 관련한 발음을 바로하자면 무엇보다도 사이소리가 어떤 때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것을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이소리가 규정적관계에 놓이는 두 형태부사이에서 나타난다는것을 정확히 알고 단순단어안에서나 또는 병렬적인 관계에 놓이는 형태부들사이에서 사이소리를 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단순단어에서 사이소리가 나는 일은 없다. 여기서 한자어단어들의 발음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한자어를 이루는 한자들은 매 글자가 일정한 뜻을 가진 《형태부》라고 볼수 있으나 그것이 개별적으로 쓰일 때 조선사람의 언어직감에 말뿌리나 붙이와 같은 실질적인 형태부로 인식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단순단어를 이루는 단순한 글자(표기형태)로 되든가 아니면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루는 형태부로 될수 있다. 실례로 《세방》이라는 단어를 이루는 《세》와 《방》은 개별적인 글자들이 말뿌리적단어로 인식되는 형태부들이지만 《감방》의 《감》은 그것 혼자만으로는 실질적인 형태부로 인식되지 못하며 오직 《감시》, 《감독》, 《감금》과 같은 단어안에서 쓰이였을 때에만 《살펴본다》는 뜻을 지니고

단어를 이루는데 참가한다. 이로부터 《세방》은 두개의 말뿌리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인식되지만 《감방》은 말뿌리가 하나로 인식되는 단순단어로 보게 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세방》에서는 사이소리가 끼워나 [세빵]으로 발음되지만 《감방》에서는 사이소리가 끼워나지 않게 된다.

례:-방(房) 찬방[찬빵], 안경방[안경빵], 세방[세빵], 구두방[구두빵], 감방[감방], 과방[과방], 랭방[랭방], 주방[주방], 침방[침방]

-병(病) 페병[페뼝], 위병[위뼝], 질병[질병], 중병[중병]

-상(床) 제상[제쌍], 잔치상[잔치쌍], 반상[반상], 겸상[겸상]

합성단어안에서라고 해도 병렬관계로 결합한 형태부들사이에서는 사이소리가 끼워나지 않는다. 합성단어에서 형태부들은 크게 규정과 병렬의 두가지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즉 앞의것이 뒤의것을 어휘문법적으로 규정해주는 관계에 놓이거나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나란히 놓이는 관계에 있게 된다. 형태부들이 같은 자격으로 나란히 어울려 이루어지는 단어에서는 사이소리가 끼워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태부들의 결합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이소리를 잘 가려서 내야 한다.

실례로 《술과 밥》이라는 뜻으로 말할 때에는 [술밥]이라고 해야지 [술빱]이라고 사이소리를 내여 발음하면 안된다. 사이소리를 끼워내여 [술빱]이라고 발음하면 《술》과 《밥》의 사이에는 규정적결합관계가 이루어져 《술을 빚고 남은 찌끼》라는 뜻으로 되여버리고만다. 이러한 실례는 《비바람》, 《눈비》 등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다음으로 사이소리가 명사적형태부들사이에서 주로 끼워난다는것을 알고 무작정 사이소리를 끼워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형태부들이나 단어들사이의 규정적결합관계는 여러가지 수단과 수법들에 의해 맺어질수 있다. 류형적으로 보면 크게 명사적형태부들을 직접 결합하는것과 규정어적기능을 노는 형태부들을 리용하여 결합하는것의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사이소리는 명사적

형태부들이 직접 결합하여 시공간적 또는 속성적인 의미규정을 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게 된다. 앞의 형태부가 관형사적형태부라든가 또는 규정형으로 된 단어형태로 된것이라면 사이소리를 끼워내지 않는다.

실례로 《새서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로 하자. 《갓 결혼한 젊은 남자》를 의미하는 《새서방》에서 《새》는 《새롭다》는 뜻의 관형사적형태부이므로 단어발음은 사이소리가 없이 [새서방]으로 되게 된다. 그러나 《새》와 《서방》사이에 사이소리를 끼워넣어 [새써방]으로 발음한다면 이때의 《새》는 《새롭다》는 뜻의 관형사적형태부가 아니라 《사이》라는 명사적형태부로 인식되게 되며 따라서 단어의미는 《사이서방》으로 되여버리고만다.

다른 실례로 《노랑빛》과 《노란빛》을 보기로 하자. 단어 《빛》은 명사적말뿌리의 뒤에 붙어 쓰일 때 일반적으로 사이소리를 끼워내여 된소리로 발음된다.(례: 봄빛, 사과빛, 노을빛) 하여 명사적단어인 《노랑》의 뒤에 올 때에도 《빛》은 사이소리로 하여 [삗]으로 발음된다. 그렇지만 형용사 《노랗다》의 규정형인 《노란》의 뒤에 놓일 때에는 사이소리가 없이 순한소리 그대로 [빋]이라고 발음하여야 한다.

관형사적형태부나 규정형태뒤에서 사이소리를 마구 덧끼워내여 발음하는 편향들을 극복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단골》

> 《단골》은 [단골]로 발음해야 한다. 《단골》의 《단》은 《단간, 단번, 단벌, 단색》에서와 같이 《오직 하나뿐의》의 의미를 가진 관형사적형태부이다. 그러므로 비록 《谷》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부인 《골》이 단어의 뒤에 놓일 때 사이소리가 일반적으로 끼여난다 하더라도(례: 산골, 장수골, 샘골, 노루골…) 관형사적형태부인 《단》의 뒤에서는 사이소리를 끼워내지 말아야 한다. 하여 《단골집》은 [단골찝]으로, 《단골손님》은 [단골손님]이라고 발음해야 하는것이다.

을 [단꼴]이라고 사이소리를 끼워내여 발음하는가 하면 《새별》을 [새뼐]로 사이소리와 함께 발음하고있다.

《새별》과 《샛별》의 단어를 구분하여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새별》은 《새로운 별 즉 신성》의 뜻으로서 이때의 《새》는 관형사적인 형태부이다. 그러므로 《새별》에서는 사이소리를 끼워내여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단어 《샛별》은 《동쪽켠》을 의미하는 명사적형태부인 《새》와 《별》이 합쳐진 단어로서 [새뼐]로 사이소리를 끼워 발음한다. 이때 이 단어의 의미는 《동쪽켠에서 새벽에도 빛나는 별》 즉 《금성》이다. 우리 말 맞춤법에서는 두 단어의 이러한 발음상차이를 고려하여 표기에서 사이소리가 끼워나는 《샛별》은 두 형태부사이에 《ㅅ》받침을 끼워넣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표기실천에서는 형태부사이에 《ㅅ》을 끼워넣지 않고 형태를 밝혀적는 경향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단어의 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단어발음에서 《신성》의 뜻을 가진 단어는 [새별]로, 《금성》의 뜻을 가진 단어는 [새뼐]로 구별하여 발음해야 한다.

사이소리와 관련한 발음을 바로하자면 다음으로 사이소리가 끼워나는 단어들에 대한 어휘지식을 가지고 발음현실에서 옳게 구현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사이소리현상은 명사적형태부들사이의 규정적결합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발음법칙이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극히 소극화되여 제한된 범위에서 관습적으로 지켜지는 발음현상으로 되였다.

형태부가 나타내는 뜻에 따라 사이소리가 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이소리를 끼워내여 발음해야 하는 형태부들의 쓰임에 대하여 잘 알고 뜻에 맞게 정확하게 발음할줄 알아야 한다.

단어안에서 형태부가 나타내는 뜻에 따라 사이소리가 끼워나는 경우들을 몇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시공간적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인 《뒤, 아래, 먼저, 다음》과 같은 말들이 앞의 말뿌리로 쓰이는 경우에 그뒤에 사이소리가

끼워나게 발음한다.

례:-뒤사람[뒤싸람], 아래사람[아래싸람], 먼저사람[먼저싸람], 다음사람[다음싸람]

-뒤마을[뒨마을], 아래마을[아랜마을], 먼저놈[먼전놈]

그러나 이러한 형태부들의 뒤에 《ㅏ, ㅓ, ㅗ, ㅜ》와 같은 홑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부들이 올 때에는 사이소리가 끼워나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례:아래옷[아래돋]×[아래옫]○

뒤울안[뒤두란]×[뒤우란]○

단어의 뒤부분에 놓이면서 사이소리를 끼워낼것을 요구하는 형태부들도 있다. 실례로 단어의 뒤부분에 쓰이여 《…의 가녁》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 《가》, 《…을 넣어 끓인 국》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 《국》, 《…에 있거나 또는 그와 련관된 집》의 뜻을 나타내는 《집》 등은 앞에 사이소리를 끼워내여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내가[내까], 강가[강까], 길가[길까], 우물가[우물까]…

-김치국[김치꾹], 나물국[나물꾹], 두부국[두부꾹]…

-뒤집[뒤찝], 촌집[촌찝], 남향집[남향찝], 국수집[국수찝], 맥주집[맥주찝], 빨래집[빨래찝], 배나무집[배나무찝]…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라도 그것들이 어떤 뜻으로 어울려 쓰이는가 하는데 따라 사이소리가 끼우기도 하고 끼우지 않기도 한다. 실례로 앞에서 든 《배나무집》은 《배나무가 있거나 혹은 배나무와 어떤 인연이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사이소리가 끼우게 발음하지만 《나무로만 지은 집》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나무집》은 사이소리를 내여 발음하지 않는다. 《나무집》과 마찬가지로 《기와집》이나 《초가집》같은 단어들도 사이소리가 끼워나지 않는다. 만일 《나무집》을 사이소리를 넣어 [나무찝]이라고 발음한다면 《나무로 지은 집》으로가 아니라 《나무와 어떤 련관이 있는, 례하면 땔나무를 파는 집이거나 또는 나무의 어떤 부분을 리용한 집》 등으로 리해된다.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든 배》는 [나무배]로 발음하지만 《나무를 실은 배》는 사이소리를 끼워 [나무빼]로 발음하는것이다.

※ 일반적으로 《~을 재료로 하여 만든》의 뜻으로 결합된 형태부들 사이에는 사이소리가 끼워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어발음에서 사이소리를 요구하는 형태부들에 대해 잘 알고 뜻에 맞게 바로 발음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사이소리가 끼워나는 주요단어들을 앞뒤의 형태부들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2) 《ㄴ》의 끼워내기발음을 잘해야 한다

단어발음에서 《ㄴ》의 끼워내기와 관련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ㄴ》끼워내기와 관련된 단어들의 발음은 말소리결합조건의 류사성으로 하여 혼돈하기 쉬운 발음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것은 《ㄴ》의 끼워내기가 받침소리와 앞모음 《ㅣ》와 련관된 모음사이에서 일어나는것으로 하여 받침의 이어내기나 끊어내기와 혼돈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실례로 단어 《젖이》와 《꽃잎》은 《ㄴ》을 끼워내여 [전니], [꼰닙]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어내기로 발음하여 [저지], [꼬칩]이라고 하거나 끊어내기로 발음하여 [저디], [꼬딥]이라고 혼돈하여 발음하고있다.

소리끼우기와 관련한 단어들의 발음에서는 《ㄴ》이 끼워나게 되는 언어적조건을 잘 알고 《ㄴ》을 끼워내야 할것을 이어내여 발음하거나 끊어내여 발음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먼저 《ㄴ》이 끼워나는 어음론적결합조건을 잘 아는것이 필요하다. 《ㄴ》의 끼우기는 받침소리뒤에 모음 《ㅣ》와 《ㅑ, ㅕ, ㅛ, ㅠ》로 시작되는 형태부가 오는 경우에 일어난다. 받침과 모음사이에 끼워나는 《ㄴ》은 뒤형태부의 첫소리로 나게 되며 앞의 받침소리는 이 《ㄴ》의 영향으로 울림소리로 닮아나게 된다. 하여 앞에서 실례로 든 《젖이》나 《꽃잎》이 [전니], [꼰닙]으로 발음되게 된것이다.

례: 부엌-일[부어킬/부어길]× [부엉닐]○
바깥-일[바까틸/바까딜]× [바깐닐]○

앞-일[아필/아빌]× [암닐]○
짓-이기다[지시기다/지디기다]× [진니기다]○

앞의 받침소리가 혀옆소리 《ㄹ》인 경우에는 혀옆소리되기법칙에 따라 끼워들어간 《ㄴ》이 혀옆소리 [ㄹ]로 발음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 받침소리인 《ㄹ》을 이어내여 발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례: 불-여우[부려우]× [불려우]○
물-약[무략]× [물략]○
설익다[서릭따]× [설릭따]○

《ㄴ》끼우기는 기본적으로 받침소리뒤에서 일어난다. 모음으로 끝난 형태부뒤에 《ㄴ》이 끼여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형태부들사이에 사이소리가 끼워 막힘소리가 받침소리로 끼워나면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부뒤에서도 《ㄴ》이 끼워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도 본질에 있어서는 받침소리(사이소리로 끼운 막힘소리)뒤에서 《ㄴ》이 덧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례: 뒤욕[뒤:ㄷ욕→뒨:뇩]
뒤일[뒤:ㄷ일→뒨:닐]
아래이[아래ㄷ이→아랜니]

《ㄴ》끼우기의 발음을 잘하려면 다음으로 《ㄴ》이 끼워나는 단어들의 단어조성적특성에 대한 일정한 리해를 가지는것이 필요하다.

《ㄴ》끼우기는 대체로 고유어나 고유어화된 일부 한자어들의 결합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난다. 한자어로 된 형태부들의 결합에서 《ㄴ》끼우기는 극히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소극화되여가고있다. 그러므로 단어를 구성하는 뒤형태부가 고유어(또는 고유어화된 한자어)인가 아닌가 하는데 따라 《ㄴ》을 옳바로 끼워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뒤형태부가 고유어(또는 고유어화된 한자어)인 경우에는 대개 《ㄴ》을 끼워넣어 발음해야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단어들로는 《일, 이(발), 이마, 이야기, 잎, 입, 이불, 이끼, 여우, 요기, 유리》 등을 들수 있다.

례:밤일[바밀]× [밤닐]○
어금이[어그미]× [어금니]○
금이발[그미빨]× [금니빨]○
앞이마[아비마/아피마]× [암니마]○
옛이야기[예시야기/예디야기]× [옌니야기]○
가랑잎[가랑입]× [가랑닙]○
맨입[매닙]× [맨닙]○
홑이불[호티불/호디불]× [혼니불]○
물엿[무렫]× [물련]○
돌이끼[도리끼]× [돌:리끼]○
밤이슬[바미슬]× [밤니슬]○
불여우[부려우]× [불려우]○
산열매[사녈매]× [산녈매]○
눈요기[누뇨기]× [눈뇨기]○
꽃유리[꼬듀리/꼬츄리]× [꼰뉴리]○

《ㄴ》의 소리끼우기는 일부 단어들의 옛형태와 일련의 련관을 가지고있다. 우에서 실례로 든 단어들가운데서 《잎》이나 《이마》, 《이(발)》, 《이불》같은 단어들은 그 옛형태가 《닢》, 《니마》, 《니》, 《니불》과 같이 《ㄴ》을 첫소리로 하고있었다. 이로부터 일부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ㄴ》은 이전에 있었던 소리가 되살아난것으로서 고유한 의미에서의 끼워난 소리가 아니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전에 존재하였던 말소리가 되살아난것이든, 아니면 없었던것이 새롭게 끼워난것이든 관계없이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형태표기상 없는 말소리 《ㄴ》이 발음에서 덧나는 현상으로 통일시켜볼수 있으며 이런것으로 하여 우리는 《ㄴ》의 끼워내기현상으로 취급하고있는것이다.

한자어로 어루어진 단어에서 《ㄴ》끼우기와 관련한 발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자어단순단어안에서 《ㄴ》끼우기로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두 글자로 이루어지는 한자어들에서 받침은 이어내기로 발음하도록 하여야 한다.

례:영양[영냥]× [영양]○
결여[결려]× [겨려]○
금융[금늉]× [그뮹]○
겸열[겸녈]× [거멸]○
극약[금냑]× [그갹]○
원유[원뉴]× [워뉴]○
독약[동냑]× [도갹]○

한자어들로 이루어진 파생단어나 합성단어에서도 《ㄴ》끼워내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름》의 뜻을 나타내는 《유(油)》, 《염증》의 뜻을 나타내는 《염(炎)》,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인(人)》 등이 뒤에 붙어 만들어지는 단어들이나 《요일》, 《인사》와 같은 한자어들로 만들어지는 단어들에서 《ㄴ》을 끼워내여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휘발-유[휘발류]× [휘바류]○
륵막-염[룽망념]× [룽마겸]○
후견-인[후견닌]× [후겨닌]○
살균-용[살균뇽]× [살규뇽]○
월-요일[월료일]× [워료일]○
금-요일[금뇨일]× [그묘일]○
색-연필[생년필]× [새견필]○
몰-인정[몰린정]× [모린정]○
낮-인사[난닌사]× [나딘사]○
설-인사[설린사]× [서린사]○

일부 한자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여 쓰일 때 단어들의 경계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하여 《ㄴ》을 끼워내여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역》이나 《약》과 같이 겹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바로 그러하다.

례:출발역[출바력]× [출발력]○
건설역[건서력]× [건설력]○
전국역[전구격]× [전궁녁]○
기침약[기치먁]× [기침냑]○
살양말[사량말]× [살량말]○

꽃양산[꼬댱산]×　　　　[꼳냥산]○
겨울양복[겨우량복]×　　[겨울량복]○

《ㄴ》끼우기는 단어를 이루는 형태부들의 품사적성격과는 관계없이 나타난다. 이것은 같은 소리끼우기현상의 하나인 사이소리끼우기(막힘소리끼우기)와 구별되는 《ㄴ》끼우기의 특성이기도 하다.

《ㄴ》끼우기는 명사적인 형태부들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규정형태와 명사적형태부사이, 부사적형태와 용언적형태부사이 등 여러가지 품사적결합조건속에서 나타날수 있다.

례:-꽃잎[꼰닙], 물약[물략]…
-긴양말[긴냥말], 단약[단냑]…
-짓이기다[진니기다], 못 잊다[몬닏따]…
-곱잇다[곰닏따], 헛읽다[헌닉따]…
-낮익다[난닉따]…

다음으로 단어결합에서 《ㄴ》의 끼워내기를 바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에서 본것은 단어수준의 소리토막의 발음에서 《ㄴ》이 끼워나는 경우들이였다. 단어결합에서는 보통 단어들사이에 《ㄴ》을 끼워내여 발음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대체로 끊어서 발음해주어야 한다. 단어결합에서 단어들사이에 덮어놓고 기계적으로 《ㄴ》을 끼워넣어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례:긴 이랑[긴 니랑]×　　[긴 이랑]○
첫 양복[천 냥복]×　　[천 양복]○
옷 열벌[온 녈뻘]×　　[온 열뻘]○
집 열채[짐 녈채]×　　[집 열채]○

단어들이 토없이 어울려 쓰인 단어결합들에서 단어들을 잘 구획하여 끊어서 발음하여야 한다. 토없이 붙어썼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ㄴ》을 끼워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

례:사람이름[사람니름]×　　[사람이름]○
공장일[공장닐]×　　[공장일]○
옷입고[온닙꼬]×　　[온입꼬/오딥꼬]○
책읽기[챙닐끼]×　　[책일끼/채길끼]○

다만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못》이 동사앞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소리토막으로 발음하면서 《ㄴ》의 끼워내기를 하여야 한다.

례:못 잊을[모디즐]×　　[몬니즐]○
못 입고[모딥꼬]×　　[몬닙꼬]○
못 이겨[모디겨]×　　[몬니겨]○
못 이룬[모디룬]×　　[몬디룬]○

3) 《암》, 《수》가 들어간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생물의 성을 구별하여 쓰는 말인 《암》과 《수》가 붙어 이루어지는 단어들의 발음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암》과 《수》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들은 형태부사이에 《ㅎ》이 끼워나게 발음해야 한다. 하여 《암》과 《수》뒤에 오는 형태부의 첫소리가 순한소리자음일 때에는 거센소리로 합쳐나게 되며 《ㅅ》이나 모음 《ㅑ, ㅕ, ㅛ, ㅠ》 등이 《암》이나 《수》의 뒤에 올 때에는 사이소리가 끼워날 때와 같이 발음하게 된다.

즉 《암》이나 《수》뒤에 《ㄱ, ㄷ, ㅂ, ㅈ》의 순한소리로 시작되는 형태부가 오게 되면 그 사이에 끼워나는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로 발음하게 되며(례: 암+돼지→[암퇘지], 수+범→[수펌], 수+개→[수캐]) 《ㅑ, ㅕ, ㅛ, ㅠ》로 시작되는 형태부가 오게 되면 끼워난 《ㅎ》을 막힘소리 《ㄷ》의 끼워내기처럼 발음한다.(례: 수+여우→[순녀우], 수+양→[순냥]) 또한 《수》뒤에 《ㅅ》으로 시작되는 형태부가 올 때에도 《ㅎ》을 막힘소리 《ㄷ》처럼 끼워넣어서 《ㅅ》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례: 수+소→[수쏘], 수+사자→[수싸자])

《암》과 《수》의 뒤에 《ㅎ》이 끼워나는것은 《암》과 《수》의 력사적인 형태와 련관되여있다. 원래 《암》과 《수》의 력사적형태는 《암ㅎ》, 《수ㅎ》였다. 그러던것이 형태표기의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에는 《암》과 《수》로만 적게 되였다. 하지만 《암》과 《수》가 들어간 단어의 발음에서는 의연히 《ㅎ》이 살아있으면서 여러가지 말소리변화를 일으킨다.

《암, 수》가 들어간 단어의 발음을 바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단어의 형태표기를 따라 그대로 발음하면서 《ㅎ》을 끼워내지 않는 경향을 없애는것이다.

우리 글 맞춤법에서는 단어의 형태를 밝혀적는 원칙에서 《암, 수》뒤에 오는 형태부들의 표기도 발음대로가 아니라 원래의 형태를 살려 적도록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글의 내용이 명확하게 안겨오게 하고있다.(례: 암+닭→암닭, 수+강아지→수강아지, 암+병아리→암병아리)

그러나 맞춤법에서 단어의 형태를 밝혀적는다고 하여 발음에서도 표기그대로 형태부사이에 《ㅎ》을 끼워 발음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기와 발음의 차이가 생기는것은 사이소리끼우기를 비롯한 이여의 소리끼우기현상들의 표기와 발음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다.

그러므로 단어의 적기에서는 비록 사이에 끼여나는 《ㅎ》의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암》과 《수》의 뒤에서는 《ㅎ》이 덧나게 발음하여야 한다.

례:수돼지[수돼지/수뙈지]×　　[수퇘지]○
　암기와[암기와/암끼와]×　　[암키와]○
　수병아리[수병아리/수뼝아리]×　[수평아리]○
　수돌쩌귀[수돌쩌귀/수똘쩌귀]×　[수톨쩌귀]○

《암, 수》가 들어간 단어의 발음을 바로하는데서 다음으로 뒤형태부가 《ㅅ》 또는 울림소리로 시작되거나 《ㅑ, ㅕ, ㅛ, ㅠ, ㅣ》로 시작되는 경우의 발음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뒤형태부가 《ㅅ》, 《ㅈ》 또는 울림소리로 시작되거나 《ㅑ, ㅕ, ㅛ, ㅠ, ㅣ》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앞형태부가 《수》인 때에만 막힘소리를 끼워낼 때처럼 발음한다. 다시말하여 사이소리를 끼워내듯이 발음한다. 앞형태부가 《암》인 경우는 사이소리가 끼워나지 않는다.(발음의 끝에서나 《ㅅ》 등의 앞에서 《ㅎ》받침이 막힘소리 [ㄷ]처럼 발음된다는데 대해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뒤형태부가 《ㅅ》 또는 《ㅈ》이나 울림소리자음으로 시작되면 《수》의 뒤에는 사이소리가 끼워나게 발음하여야 한다.

례:수소[수소]×　　[수쏘]○
　암소[암소]○　　[암쏘] ×
　수사자[수사자]×　　[수싸자]○
　암사자[암사자]○　　[암싸자]×
　수짐승[수짐승/수침승]×　[수찜승]○
　암짐승[암짐승/암침승]×　[암찜승]○
　수놈[수놈]×　　[순놈]○
　수말[수말]×　　[순말]○

뒤형태부가 《ㅑ, ㅕ, ㅛ, ㅠ, ㅣ》로 시작되면 《수》의 뒤에 사이소리를 끼워내고 이어서 《ㄴ》끼워내기로 발음한다. 《암》의 경우에는 다만 《ㄴ》끼우기로만 발음한다.

끼워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끼워내지 않고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수양[수양/수댱]×　　[순냥]○
　수여우[수여우/수뎌우]×　[순녀우]○
　암여우[아며우]×　　[암녀우]○
　암염소[아몀소]×　　[암념소]○

Ⅲ. 발음참고자료

여기에는 우리 말 발음에서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소리끼우기와 된소리되기, 긴소리발음과 관련한 자료들을 추려서 제시한다. 이와 함께 발음련습을 위한 읽기자료도 첨부한다.

1. 소리끼우기관련 발음자료

소리끼우기가 일어나는 위치의 앞 또는 뒤에 놓이는 형태부들을 올림말로 하여 그것들이 단어나 단어결합의 앞 또는 뒤에 놓일 때 소리끼우기가 일어나는 경우를 류형별로 모아서 제시한다. 편의상 앞부분에 놓이는 형태부는 뒤에, 뒤부분에 놓이는 형태부는 앞에 이음표를 붙여 표시한다.

자료제시에 리용된 기호와 표식들은 다음과 같다.

🕮 올림말로서의 형태부

① 단어안에서 형태부가 나타내는 뜻

✓ 사이소리가 끼워나는 실례의 단어들

× 사이소리가 끼워나지 않는 실례의 단어들

❖ 참고로 알아둘 내용

(ㄱ)

🕮 -가

① 물과 기슭이 닿는 부분

✓ 강-가[강까], 개-가[개까], 나루-가[나루까], 내-가[내까], 물-가[물까], 바다-가[바다까], 시내-가[시내까], 해변-가[해변까]

② 《~의 변두리》

✓ 길-가[길까], 눈-가[눈까], 부두-가[부두까], 창-가[창까], 우물-가[우물까]

🕮 -가게

① 《~을 파는 가게》

✓ 담배-가게[담배까게], 반찬-가게[반찬까게], 쌀-가게[쌀까게]

② 《~모양의 가게》, 《~로 지은 가게》

× 구멍-가게 (조그마한 가게), 난-가게(건물도 없이 한데서 벌려놓은 가게)

🕮 -가락

① 긴 꼬치나 토막

✓ 도-가락[도까락](윷놀이에서 홀려떨군 하나의 윷가락), 발-가락[발까락], 손-가락[손까락], 저-가락[저까락](쇠~, 놋~, 부~, 비닐~)

② 소리의 조화, 률동

✓ 노래-가락[노래까락], 사이-가락[사이까락](사이사이의 장단), 춤-가락[춤까락]

🕮 -가루

《~의 가루》

✓ 감자-가루[감자까루], 고추-가루[고추까루], 금-가루[금까루], 눈-가루[눈까루], 돌-가루[돌까루], 미시-가루[미시까루], 밀-가루[밀까루], 번-가루[번까루](가루반죽때 덧치는 가루), 사탕-가루[사탕까루], 솔-가루[솔까루], 콩-가루[콩까루], 탄-가루[탄까루], 후추-가루[후추까루], 회-가루[회까루], 뼈-가루[뼈까루], 쌀-가루[쌀까루], 은-가루[은까루]

🕮 -가리

《~을 쌓아놓은 무지》

✓ 나무-가리[나무까리], 벼-가리[벼까리]

× 동-가리

🕮 -가시

① 《~에 난 가시모양의것》

✓ 분-가시[분까시](분독이 올라 생기는 여드름같은것), 장-가시[장까시](된장에 생기는 가시 즉 구데기)

② 《～모양의 가시, ～로 만든 가시》

× 잔-가시(작은 가시), 얼음-가시(얼음으로 된 가시), 쇠-가시

📖 -가죽

① 《～부분의 거죽》

✓ 눈-가죽[눈까죽], 등-가죽[등까죽], 배-가죽[배까죽], 살-가죽[살까죽], 뺨-가죽[뺨까죽]

② 《～상태의 가죽, ～짐승의 가죽》

× 생-가죽, 털-가죽, 인조-가죽

× 개-가죽, 말-가죽, 소-가죽

📖 -가치

가늘고 긴 모양의 굳은 물건

✓ 나무-가치[나무까치], 대-가치[대까치], 산-가치[산까치](셈세기용 나무가치), 성냥-가치[성냥까치]

📖 -간(間)

간막이를 하여 만든 칸

✓ 고-간[고깐](창고), 굴-간[굴깐], 대장-간[대장깐], 뒤-간[뒤깐], 마구-간[마구깐], 문-간[문깐], 방아-간[방아깐], 절-간[절깐], 허청-간[허청깐], 야장-간[야장깐]

❖ 《사이》라는 의미로 쓰인 《간(間)》은 《잠간[잠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간]으로 발음한다.

례: 시간, 공간, 인간, 사촌간, 부녀간, 중간, 수년간…

📖 -감

① 무엇을 만드는데 쓸 재료, 어떤 일을 하려 하는 감

✓ 널-감[널깜], 다듬이-감[다드미깜], 물-감[물깜], 칠-감[칠깜], 회-감[회깜], 빨래-감[빨래깜], 안-감[안깜], 일-감[일깜]

② 어떤 자격에 알맞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해당한 소재

✓ 구경-감[구경깜], 놀림-감[놀림깜], 놀이-감[노리깜], 망신-감[망신깜], 사위-감[사위깜], 서까래-감[서까래깜], 신랑-감[실랑깜], 색시-감[색씨깜], 웃음-감[우슴깜]

📖 -갑

물건을 넣는 갑

✓ 분-갑[분깝], 필-갑[필깝](연필-갑), 비누-갑[비누깝], 담배-갑[담배깝], 성냥-갑[성냥깝]

❖ 《교갑, 지갑, 수갑, 장갑》같은 단순단어에서는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 -값

《～의 값, ～의 대가》

❖ 고기-값[고기깝], 구경-값[구경깝], 극대-값[극때깝], 극소-값[극쏘깝], 극한-값[그칸깝], 근사-값[근사깝]; 금-값[금깝], 계산-값[게산깝], 나-값[나깝](나이값), 나무-값[나무깝], 나이-값[나이깝], 낟알-값[나달깝], 덩치-값[덩치깝], 도매-값[도매깝], 돈-값[돈깝], 말-값[말깝], 몸-값[몸깝], 배-값[배깝], 사람-값[사람깝], 산-값[산깝](《화학》), 상대-값[상대깝], 소매-값[소매깝], 수-값[수깝], 술-값[술깝], 시장-값[시장깝], 실효-값[실효깝～시료깝], 셈-값[셈깝], 절대-값[절때깝], 중-값[중깝](～과헐값), 진리-값[질리깝], 차-값[차깝], 최대-값[최대깝], 최소-값[최소깝], 품-값[품깝], 피-값[피깝], 함수-값[함수깝], 외상-값[외상깝], 원자-값[원자깝], 무값[무깝](～으로 팔다)

❖ 《제값, 싼값》과 같이 관형사적요소나 규정형태가 붙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다.

📖 -갓

《～을 가꾸는 산판, ～에 있는 산판》

✓ 나무-갓[나무깓](땔나무 가꾸는 산판), 메-갓[메깓](마을가까이의 산판), 풀-갓[풀깓](풀가꾸는 산판)

📖 -거리

① 《～을 하거나 만드는 밑감》

✓ 구경-거리[구경꺼리], 김치-거리[김치꺼리], 소-거리[소꺼리](소를 만드는 감새), 장-거리[장꺼리](장볼 물건), 찬-거리[찬꺼리], 치레-거리[치레꺼리], 끼니-거리[끼니꺼리], 일-거리[일꺼리]

② 《～의 요인으로 되는 대상》

✓ 걱정-거리[걱쩡꺼리], 골치-거리[골치꺼리], 근심-거리

[근심꺼리], 놀림-거리[놀림꺼리], 말썽-거리[말썽꺼리], 시비-거리[시비꺼리], 재미-거리[재미꺼리], 흥미-거리[흥미꺼리], 웃음-거리[우슴꺼리], 이야기-거리[이야기꺼리]

③ 《~이 있는 큰길》

✓ 길-거리[길꺼리], 뒤-거리[뒤꺼리], 장-거리[장꺼리](장이 서는 거리)

× 네-거리

📖 -거웃

《~의 털이나 터럭》

✓ 삼-거웃[삼꺼욷](삼검불)

📖 -것

① 《~의 사람이나 물건, 그러한 성질의 물건》

✓ 공-것[공껃](공짜물건), 상-것[상껃], 좀-것[좀껃], 촌-것[촌껃], 아래-것[아래껃]

② 《~으로 만든 물건》

✓ 무명-것[무명껃](무명옷), 밀-것[밀껃](밀로 만든 음식), 솜-것[솜껃], 뜨개-것[뜨개껃]

❖ 규정토 《ㄷ》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나 대명사나 관형사, 규정토 《ㄴ》등의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들것[들껃](~으로 나르다), 물것[물껃](모기, 빈대, 벼룩 등), 볼-것[볼껃], 탈-것[탈껃], 먹을-것[머글껃]

× 이-것, 그-것, 저-것, 날-것 (~으로 먹다), 새-것, 생-것

× 갓난-것[간난걷], 낡은-것[날근걷], 늙은-것[늘근걷], 젊은-것[절믄걷]

📖 -겨

《~낟알을 찧어낸 껍질》

✓ 벼-겨[벼껴], 보리-겨[보리껴], 수수-겨[수수껴], 조-겨[조껴], 피-겨[피껴], 쌀-겨[쌀껴], 강낭-겨[강낭껴]

× 등-겨, 왕-겨

📖 -결

① 《~에 나있는 줄모양의 짜임새》

✓ 나무-결[나무껼], 돌-결[돌껼], 물-결[물껼], 바람-결[바람껼], 비단-결[비단껼], 살-결[살껼], 숨-결[숨껼]

② 《~의 바탕이나 상태》

✓ 분-결[분껼](~에 한마디 하ㅗ다), 성-결[성껼](성품의 상태)

③ 《~의 겨를》

✓ 귀-결[귀껼](~에 듣다), 눈-결[눈껼](~에 뜨이다), 잠-결[잠껼], 꿈-결[꿈껼], 아침-결[아침껼]

📖 -고

① 《~의 물목》

✓ 개-고[개꼬](~공사), 논-고[논꼬], 물-고[물꼬], 샘-고[샘꼬](~가 터지다)

②(庫) 《~물건을 보관하는 고간》

✓ 기관-고[기관꼬], 랭동-고[랭동꼬], 랭장-고[랭장꼬], 무기-고[무기꼬], 병기-고[병기꼬], 사물-고[사물꼬], 저장-고[저장꼬], 창-고[창꼬], 탄-고[탄꼬]

× 문헌-고, 문서-고, 보물-고

❖ 단순단어에서는 소리가 끼워나지 않는다.

례: 문고, 금고, 차고, 서고

📖 -고기

① 물고기

✓ 강-고기[강꼬기], 물-고기[물꼬기], 바다-고기[바다꼬기], 밤-고기[밤꼬기], 중-고기[중꼬기](중간크기의 물고기)

② 《~모양의 물고기이름》

× 가시-고기, 반디-고기, 달-고기, 돌-고가, 기타 물고기이름안의 《고기》

③ 짐승고기

× 불-고기, 날-고기

×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개-고기, 단-고기

❖ 다만 《살고기[살꼬기]》의 경우만은 례외이다. 《살고기》는 이전에 [살코기]로도 발음하였다.

📖 -고랑

골이 진 부분

✓ 기와-고랑[기와꼬랑], 개-고랑[개꼬랑], 논-고랑[논꼬랑], 락수-고랑[락쑤꼬랑], 산-고랑[산꼬랑], 땀-고랑[땀꼬랑]

📖 -고리

① 《~을 넣어두는 고리짝》

✓ 돈-고리[돈꼬리], 바느질-고리[바느질꼬리], 소주-고리[소주꼬리], 쌀-고리[쌀꼬리](~와 쌀뒤주)

② 《~모양 또는 ~으로 만든 고리짝》

× 동-고리(동글납작한 작은 고리짝), 대-고리(대나무로 만든 고리짝)

📖 -고래

① 《~에 놓은 온돌의 불구멍》

✓ 구들-고래[구들꼬래], 방-고래[방꼬래]

② 《~모양으로 생긴 온돌의 불구멍》

× 긴-고래, 골-고래(골이 지게 놓은 고래)

📖 -고장

① 《~이 많이 나거나 있는 고장》

✓ 감-고장[감꼬장](감이 많이 나는 곳), 논-고장[논꼬장], 두메-고장[두메꼬장], 들-고장[들꼬장](들이 많은 고장), 쌀-고장[쌀꼬장](쌀이 많이 나는 고장)

② 관형사적으로 쓰이였거나 규정형태로 된 말과 어울린 경우

× 먼-고장(멀리 떨어진 지방), 본-고장(원래 고장), 제-고장(자기 지역), 타-고장(다른 지역)

📖 -골

① 《~의 골짜기, 고랑》

✓ 강-골[강꼴](강이 흐르는 골), 기준-골[기준꼴](기준고랑), 기와-골[기와꼴](기와고랑), 등-골[등꼴](~이 오싹하다)

② 고장이름으로 쓰인 경우

✓ 남산-골[남산꼴](~샌님), 장수-골[장수꼴], 함정-골[함정꼴]

③ 골수, 두뇌

✓ 뒤-골[뒤꼴](~이 쑤시다), 뼈-골[뼈꼴](~에 사무치다)

④ 《~의 모양을 바로잡는 기본틀》

✓ 망건-골[망건꼴](~에 앉다), 신-골[신꼴](~을 엮다)

📖 -곬

① 《~이 지나는 곬》

✓ 내-곬[내꼴], 물-곬[물꼴], 바람-곬[바람꼴], 샘물-곬[샘물꼴], 온돌-곬[온돌꼴]

② 《~모양의 곬》

× 실-곬, 통-곬, 한-곬, 외-곬

📖 -곱

《~에 있는 때나 기름덩지》

✓ 눈-곱[눈꼽], 손-곱[손꼽]

📖 -공부

《~을 익히는 일》

✓ 글-공부[글꽁부], 말-공부[말꽁부](빈말만 하는것)

📖 -공이

① 《~의것을 찧거나 빻는 도구》

✓ 메-공이[메꽁이], 방아-공이[방아꽁이], 절구-공이[절구꽁이]

② 《~으로 만든, ~모양의 공이》

× 돌-공이, 나무-공이, 쇠-공이

📖 -구뎅이

《~에 나있는 또는 ~이 들어있는 우묵한 곳》

✓ 금-구뎅이[금꾸뎅이], 논-구뎅이[논꾸뎅이], 눈-구뎅이[눈꾸뎅이], 물-구뎅이[물꾸뎅이], 불-구뎅이[불꾸뎅이], 땅-구뎅이[땅꾸뎅이], 움-구뎅이[움꾸뎅이]

📖 -구멍

① 《~에 난 또는 ~이 나거나 들어가는 구멍》

✓ 귀-구멍[귀꾸멍], 노-구멍[노꾸멍](노젓과 ~), 단추-구멍[단추꾸멍], 바늘-구멍[바늘꾸멍], 수채-구멍[수채꾸멍], 숨-구멍[숨꾸멍], 샘-구멍[샘꾸멍], 총-구멍[총꾸멍], 코-구멍[코꾸멍]

② 《~이 뚫어놓은 또는 나드는 구멍》

× 개-구멍, 개미-구멍, 게-구멍, 쥐-구멍

📖 -구석

《～의 외진 곳》

✓ 눈-구석[눈꾸석], 두메-구석[두메꾸석], 방-구석[방꾸석], 산-구석[산꾸석], 시골-구석[시골꾸석], 촌-구석[촌꾸석]

× 빈-구석, 한-구석

📖 -구실

① 《～에 붙인 옛날의 세금》

✓ 몸-구실[몸꾸실](봉건사회때 사람단위로 부과한 역), 터-구실[터꾸실](터세), 땅-구실[땅꾸실](땅세)

② 《～의 역할》

× 사람-구실, 사내-구실, 녀자-구실, 제-구실

📖 -국

① 《～을 넣어 끓인 국》

✓ 갈비-국[갈비꾹], 감자-국[감자꾹], 고기-국[고기꾹], 김치-국[김치꾹], 나물-국[나물꾹], 내포-국[내포꾹], 된장-국[된장꾹], 만두-국[만두꾹], 명태-국[명태꾹], 배추-국[배추꾹], 생선-국[생선꾹], 토장-국[토장꾹]

② 《～이 우러난 물》

✓ 땀-국[땀꾹](흠뻑 젖은 땀물), 때-국[때꾹](진하게 오른 때에 낀 물기), 오미자-국[오미자꾹](오미자가 우러난 물)

📖 -군

《～을 일거리로 하는 사람》

✓ 가래-군[가래꾼](가래질군), 갈개-군[갈개꾼](닥나무껍질 벗기는 사람, 남의 일을 훼방하는 사람), 거간-군[거간꾼], 전달-군[전달꾼], 구경-군[구경꾼], 나무-군[나무꾼](땔～), 나물-군[나물꾼](나물을 하러 다니는 사람), 남포-군[남포꾼](남포질하는 사람), 노름-군[노름꾼], 놀이-군[노리꾼](돈～), 농사-군[농사꾼], 달구지-군[달구지꾼](소～), 련애-군[려내꾼](련애쟁이), 렵탐-군[렵탐꾼], 마차-군[마차꾼], 마을-군[마을꾼](마을돌이하는 사람), 말썽-군[말썽꾼], 몰이-군[모리꾼](말～, 소～), 매질-군[매질꾼](사람을 잘 치는 싸움군), 방해-군[방해꾼], 벌이-군[버리꾼](막～, 삯～), 불평-군[불평꾼](늘 불평을 부리는 사람),

배-군[배꾼], 사기-군[사기꾼], 사냥-군[사냥꾼], 사환-군[사환꾼](남의 심부름이나 앞잡이노릇 하는 사람), 살림-군[살림꾼], 술-군[술꾼], 시중-군[시중꾼], 심부름-군[심부름꾼], 잡이-군[자비꾼](보～, 가래～), 장-군[장꾼](장을 보는 사람), 장기-군[장기꾼](장기를 두는 사람), 장난-군[장난꾼], 장사-군[장사꾼], 정탐-군[정탐꾼], 주정-군[주정꾼](술～, 건～), 줄-군[줄꾼](가래줄을 잡은 사람, 가래군과 ～), 중매-군[중매꾼], 지게-군[지게꾼](지게를 진 사람), 짐-군[짐꾼](짐을 져나르는 일군), 품팔이-군[품파리꾼], 홰-군[홰꾼](홰불을 드는 사람), 떼-군[떼꾼](떼를 모는 사람, 떼를 몹시 쓰는 사람), 싸움-군[싸움꾼], 씨름-군[씨름꾼], 아첨-군[아첨꾼], 음모-군[음모꾼], 익살-군[익쌀꾼], 일-군[일꾼], 애-군[애꾼](애를 먹이는 사람)

❖ 《농군》의 《군》은 《軍》으로서 《농사군》에서의 《군》과 다르다. 그러므로 사이소리와 인연이 없으며 순한소리로 발음한다.

📖 -굴

① 《～을 캐거나 또는 ～이 나들도록 하기 위해 뚫은 길》

✓ 기차-굴[기차꿀], 먼지-굴[먼지꿀](먼지가 빠지는 굴), 산-굴[산꿀], 차-굴[차꿀], 탄-굴[탄꿀], 땅-굴[땅꿀]

② 《～모양의 굴》, 《～를 위한 굴》

× 가다리-굴, 로천-굴, 토-굴(～집), 뙤리-굴

× 판개-굴, 눈막이-굴, 물길-굴[물낄굴], 버림-굴(폐갱)

③ 《～을 넣어두거나 또는 ～이 사는 굴》

× 감자-굴, 개미-굴, 너구리-굴, 노다지-굴, 내리-굴, 두더지-굴, 돼지-굴, 범-굴, 빈민-굴, 짐승-굴

❖ 《동굴, 마굴》과 같은 단순단어에서는 [굴]로 발음한다.

📖 -굽

《～의 굽도리부분》

✓ 가마-굽[가마꿉], 가슴-굽[가슴꿉], 눈-굽[눈꿉], 도래-굽[도래꿉], 말-굽[말꿉], 바자-굽[바자꿉], 바위-굽[바위꿉], 발-굽[발꿉], 손-굽[손꿉], 장화-굽[장화꿉], 창-굽[창꿉](신발의 ～), 추녀-굽[추녀꿉], 팔-굽[팔꿉], 함지-굽[함지꿉], 안-굽[안

꼽], 우물-굽[우물꼽]

× 네-굽

📖 -굽이

《～의 굽인돌이》

✓ 강-굽이[강꾸비], 도래-굽이[도래꾸비], 물-굽이[물꾸비], 바위-굽이[바위꾸비], 벼랑-굽이[벼랑꾸비], 산-굽이[산꾸비], 시내-굽이[시내꾸비]

📖 -그릇

① 《～을 담거나 ～을 하는데 쓰는 그릇》

✓ 국수-그릇[국쑤끄륻], 개수-그릇[개수끄륻], 반찬-그릇[반찬끄륻], 비빔-그릇[비빔끄륻], 손-그릇[손끄륻](가까이 두고 쓰는 잔세간), 차-그릇[차끄륻], 찬-그릇[찬끄륻]

② 《～으로 만든, ～모양의 그릇》

× 나무-그릇, 늪-그릇, 비닐-그릇, 법랑-그릇, 사기-그릇, 수지-그릇, 쇠-그릇, 질-그릇, 채-그릇, 참대-그릇, 오지-그릇

📖 -그림자

① 《～이 남긴 그림자》

✓ 발-그림자[발끄림자](발자취), 산-그림자[산끄림자], 손-그림자[손끄림자]

② 《～에 비쳐진 그림자》

× 달-그림자, 불-그림자, 해-그림자

📖 -그물

① 《～류형의 그물》

✓ 걸-그물(걸끄물), 들-그물[들끄물], 삼태-그물[삼태끄물], 소매-그물[소매끄물], 후리-그물[후리끄물]

② 《～모양의 또는 ～재료로 만든 그물》, 《～을 잡거나 위한데 쓰이는 그물》

× 살-그물, 발-그물, 실-그물, 나이론-그물, 쇠-그물, 뜨개-그물

× 고기-그물, 고래-그물, 게-그물, 새우-그물, 새-그물, 꿩-그물, 안전-그물, 위장-그물

📖 -글

① 문구나 문장

✓ 기둥-글[기둥끌](기둥에 쓴 글), 나라-글[나라끌], 동냥-글[동냥끌], 되-글[되끌](～이나 알다), 밤-글[밤끌](밤에 읽는 글), 시체-글[시체끌](류행하는 글), 식전-글[식쩐끌](아침식사전에 읽는 글)

② 《～민족의 글 또는 ～형태의 글》

× 조선-글, 작대기-글(길게 엮어진 글), 참-글, 한-글

📖 -금

① 긋거나 새겨진 자리

✓ 눈-금[눈끔], 명-금[명끔], 손-금[손끔], 칼-금[칼끔]

② 물건의 값, 금새

✓ 벼-금[벼끔](벼의 금새), 장-금[장끔](장시세), 통-금[통끔](통채로 파는 값), 쌀-금[쌀끔]

📖 -기(氣)

① 《～의 기색》

✓ 걱정-기[걱쩡끼](～가 어리다), 근심-기[근심끼], 심술-기[심술끼], 웃음-기[우슴끼]

② 《～의 기운 또는 ～의 느낌》

✓ 결-기[결끼], 기름-기[기름끼], 물-기[물끼], 바람-기[바람끼], 불-기[불끼], 비누-기[비누끼], 살-기[살끼](살이 붙은 정도), 소금-기[소금끼], 술-기[술끼], 숨-기[숨끼](숨기운), 시장-기[시장끼], 쇠-기[쇠끼], 피-기[피끼](～가 있다)

❖일부 한자말 단순단어안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기도 한다.

례: 장기[장끼], 근기[근끼], 광기[광끼], 정기[정끼], 윤기[윤끼], 인기[인끼]

이밖에 대부분의 단순단어에서 《-기》는 순한소리 그대로 발음한다.

례: 노기(노한 기색), 열기(～띠다), 생기, 취기, 패기

📖 -기운

《～이 느껴지는 기미》

✓ 가을-기운[가을끼운], 낟알-기운[나달끼운], 눈-기운[눈끼운](눈이 올 기운), 말-기운[말끼운](～이 있다), 봄-기운[봄끼

운], 불-기운[불끼운], 비-기운[비끼운](비가 올 기운), 산-기운[산끼운], 술-기운[술끼운], 숨-기운[숨끼운](~이 없다), 잠-기운[잠끼운](잠기), 땅-기운[땅끼운]

📖 길-

《길가에서 하는 또는 길가의 ~》

✓ 길-거리[길꺼리], 길-동무[길똥무], 길-손[길쏜], 길-벗[길뻗](길동무)

📖 -길

《~모양이나 상태의 길》, 《~에 난 길》, 《~이 다니는 길》, 《~이 미치는 방향이나 방도》

✓ 갈림-길[갈림낄], 갈래-길[갈래낄], 고개-길[고개낄], 고생-길[고생낄], 기차-길[기차낄], 논-길[논낄], 논두렁-길[논뚜렁낄], 눈-길[눈낄](~을 걷다, ~을 보내다), 달구지-길[달구지낄], 들-길[들낄](들에 난 길), 뒤-길[뒤낄](뒤에 있는 길), 만리-길[말리낄], 천리-길[철리낄], 모래-길[모래낄](모래우에 난 길), 물-길[물낄](수로), 바다-길[바다낄](바다에서 다니는 길), 발-길[발낄], 밤-길[밤낄](밤에 걷는 길), 벼랑-길[벼랑낄], 불-길[불낄], 비탈-길[비탈낄], 배-길[배낄], 사이-길[사이낄], 산-길[산낄], 살-길[살낄](살아갈 방도), 소로-길[소로낄](좁은 길), 손-길[손낄], 십자-길[십짜낄](네거리), 장사-길[장사낄](장사하려고 떠난 길), 지름-길[지름낄], 차-길[차낄], 철-길[철낄], 초행-길[초행낄], 촌-길[촌낄], 하루-길[하루낄](하루동안 걸려 걸을수 있을 정도의 거리), 오솔-길[오솔낄], 오줌-길[오줌낄](뇨도)

📖 -김

① 물김, 기운

✓ 코-김[코낌], 훈-김[훈낌](김으로 인한 훈훈한 기운), 땅-김[땅낌]

× 된-김, 실-김, 뜬-김

② 《~이 나는 서슬》

✓ 부아-김[부아낌](~에), 분-김[분낌](~에), 술-김[술낌], 홍-김[홍낌], 화-김[화낌], 운-김[운낌](여럿이 함께 일할때 절로 우러나오는 힘)

× 내친-김, 단-김

③ 잡초

✓ 논-김[논낌], 손-김[손낌]

× 두벌-김, 애벌-김, 마감-김

④ 바다나물

× 긴-김, 돌-김, 참-김, 둥근-김

📖 -깃

① 짚이나 풀

✓ 고기-깃[고기낃](물속의 ~), 부시-깃[부시낃]

② 옷깃

✓ 동정-깃[동정낃], 조임-깃[조임낃](닫긴깃), 안-깃[안낃](~과 바깥깃)

× 동구래-깃, 댕기-깃, 선-깃, 제낀-깃, 닫긴-깃[닫낀긷]

📖 개-

《밀물이 드나드는 곳 또는 개울의 ~》

✓ 개-가[개까], 개-고랑[개꼬랑], 개-물[갠물], 개-바닥[개빠닥], 개-바람[개빠람], 개-벌[개뻘]

📖 -개

① 짐승

✓ 들-개[들깨], 바다-개[바다깨], 물-개[물깨], 사냥-개[사냥깨], 서당-개[서당깨], 좀-개[좀깨], 종자-개[종자깨], 중-개[중깨], 땅-개[땅깨], 똥-개[똥깨]

× 검정-개, 흰-개, 진도-개

② 윷놀이의 한 끗수

✓ 날-개[날깨], 뒤-개[뒤깨]

③ 명사뒤에서 《약간의 정도》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

✓ 힘-개[힘깨](~나 쓰다), 뚝심-개[뚝심깨]

📖 -개비

가는 나무토막의 개개

✓ 나무-개비[나무깨비], 대-개비[대깨비](대가치), 목두-개비[목뚜깨비](다듬을 때 잘라버린 나무개비), 성냥-개비[성냥깨비], 재-개비[재깨비](~가 날리다), 참대-개비[참대깨비], 싸리-

개비[싸리깨비]

📖 귀-

《귀의 ～》

✓ 귀-구멍[귀꾸멍], 귀-달[귀딸](연의 네귀에 붙이는 달), 귀-맛[귀맏](～이 좋다), 귀-머리[귄머리](앞머리를 귀뒤로 넘긴 머리), 귀-바퀴[귀빠퀴], 귀-박죽[귀빡쭉](=귀바퀴), 귀-방울[귀빵울](귀불, 귀구슬), 귀-벽[귀뼉](귀의 안쪽벽), 귀-속[귀쏙](～다짐, ～말), 귀-전[귀쩐](귀언저리)

× 귀-마개, 귀-머거리, 귀-밑(～머리), 귀-수작(귀속말), 귀-젖

📖 -귀

①《～의 모서리》

✓ 눈-귀[눈뀌], 바늘-귀[바늘뀌]

② 알아차리는 감각능력

✓ 말-귀[말뀌](～가 어둡다), 잠-귀[잠뀌](～가 밝다), 글-귀[글뀌]

📖 -귀신

① 《～에 있다는 귀신》

✓ 물-귀신[물뀌신], 불-귀신[불뀌신], 산-귀신[산뀌신], 얼음-귀신[어름뀌신]

② 《～이 죽어서 된다는 귀신》

× 소-귀신(죽은 ～같다)

📖 -곽

《～을 넣는 작은 그릇》

✓ 담배-곽[담배꽉], 분-곽[분꽉], 비누-곽[비누꽉], 사탕-곽[사탕꽉], 성냥-곽[성냥꽉], 시계-곽[시게꽉], 점심-곽[점심꽉], 찬-곽[찬꽉], 연필-곽[연필꽉]

📖 -궤

① 《～에 두고 쓰는 또는 ～을 넣어두는 궤》

✓ 돈-궤[돈꿰], 머리-궤[머리꿰](머리맡에 두고 쓰는 궤), 손-궤[손꿰](가까이 두고 쓰는 궤), 쌀-궤[쌀꿰]

② 《～로 만든 궤》, 《～모양의 궤》

× 금-궤, 철-궤, 장-궤

(ㄴ)

📖 난데-

《다른 고장에서 온 ～》

✓ 난데-놈[난덴놈], 난데-사람[난데싸람]

📖 -날

① 《～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

✓ 가래-날[가랜날], 가위-날[가윈날], 대패-날[대팬날], 코-날[콘날]

× 도끼-날, 자귀-날

② 하루의 동안

✓ 가위-날[가윈날](추석), 동지-날[동진날], 뒤-날[뒨날], 분배-날[분밴날], 잔치-날[잔친날], 제-날[젠날], 제사-날[제산날], 하루-날[하룬날], 후-날[훈날], 아흐레-날[아흐렌날], 이레-날[이렌날]

📖 논-

《논과 관련한 또는 논의 ～》

✓ 논-고[논꼬](논의 물고), 논-고장[논꼬장], 논-길[논낄](논사이로 난 길), 논-김[논낌], 논-귀[논뀌](논의 귀퉁이), 논-도랑[논또랑], 논-두렁[논뚜렁], 논-바닥[논빠닥], 논-벌[논뻘], 논-벼[논뼈], 논-보리[논뽀리], 논-배미[논빼미], 논-자리[논짜리](논이 있는 자리), 논-종다리[논쫑다리], 논-지렁이[논찌렁이]

× 논-관개, 논-밭(논과 밭), 논-정리

📖 눈-

① 인체의 눈

✓ 눈-가[눈까], 눈-가량[눈까량](눈짐작), 눈-가죽[눈까죽], 눈-결[눈껼](～에), 눈-곱[눈꼽](～이 끼다, ～자기), 눈-구멍[눈꾸멍], 눈-구석[눈꾸석], 눈-굽[눈꿉], 눈-그루[눈끄루], 눈-금[눈끔], 눈-가[눈끼], 눈-길[눈낄](어머니의 ～), 눈-귀[눈뀌],

눈-독[눈똑], 눈-동자[눈똥자], 눈-두덩[눈뚜덩], 눈-등[눈뜽], 눈-대답[눈때답](눈으로 하는 대답), 눈-방울[눈빵울], 눈-버릇[눈뻐릇], 눈-병[눈뼝], 눈-부리[눈뿌리](눈초리), 눈-불[눈뿔], 눈-살[눈쌀], 눈섭[눈썹], 눈-자리[눈짜리](~가 나겠다), 눈-자위[눈짜위], 눈-정[눈쩡](눈정기), 눈-정기[눈쩡기], 눈-짐작[눈찜작], 눈-짓[눈찟]

× 눈-속임, 눈-신호, 눈-겨냥, 눈-가짐

② 자연현상의 눈

✓ 눈-가루[눈까루](~를 날리다), 눈-구뎅이[눈꾸뎅이], 눈-구름[눈꾸름](~이 밀려오다), 눈-굴[눈꿀](~을 뚫다), 눈-기둥[눈끼둥], 눈-기운[눈끼운](눈내릴 기미), 눈-길[눈낄](생~, 숫~), 눈-둔덕[눈뚠덕], 눈-발[눈빨](~이 날리다), 눈-밤[눈빰](첫겨울의 ~), 눈-벌[눈뻘](눈발), 눈-송이[눈쏭이], 눈-집[눈찝](~을 만들다)

× 눈-단장, 눈-바람, 눈-발구, 눈-사태, 눈-밭, 눈-보라, 눈-산, 눈-석이, 눈-성에, 눈-세수

📖 -내

《~의 냄새》

✓ 겨-내[견내](겨볼내), 고기-내[고긴내](고기냄새), 내-내[낸내](내굴내), 쇠-내[쇤내](쇠의 냄새), 자리-내[자린내](뜬냄새)

(ㄷ)

📖 -다리

① 《~의 다리가 되는 부분》

✓ 상다리[상따리](~가 부러지다), 장-다리[장따리](장딴지), 지게-다리[지게따리], 총-다리[총따리], 아래-다리[아래따리], 안경-다리[안경따리], 안-다리[안따리](~걸이)

× 가위-다리, 마디-다리, 기계-다리, 량-다리, 무쇠-다리

× 개-다리(~질), 까치-다리, 돼지-다리

② 우로 건너다닐수 있게 만든 시설

✓ 철-다리[철따리], 굴-다리[굴따리](구름다리), 물-다리[물따리]

× 공중-다리, 구름-다리, 나무-다리, 널-다리, 돌-다리, 립체-다리, 배-다리, 수중-다리, 쇠-다리, 줄-다리, 징검-다리

📖 다음-

《일정한 차례에서의 바로 뒤의 ~》

✓ 다음-번[다음뻔], 다음-달[다음딸], 다음-주[다음쭈]

📖 -단

《~을 묶은 단》

✓ 나무-단[나무딴], 모-단[모딴], 매-단[매딴](형틀옆의 ~), 벼-단[벼딴], 보리-단[보리딴], 삼-단[삼딴](~같은 불길), 수수-단[수수딴], 새초-단[새초딴], 조-단[조딴](~과 수수단)

📖 -단지

① 《~을 넣은 단지 또는 치료에 쓰는 기구》

✓ 간장-단지[간장딴지], 반찬-단지[반찬딴지], 부항-단지[부항딴지], 꿀-단지[꿀딴지], 뜸-단지[뜸딴지], 양념-단지[양념딴지], 영양-단지[영양딴지]

② 《~이 많은 물건이나 사람》

✓ 자랑-단지[자랑딴지], 얌전-단지[얌전딴지], 오물-단지[오물딴지], 요물-단지[요물딴지], 요지경-단지[요지경딴지], 우환-단지[우환딴지]

③ 《~모양의, ~로 만든 단지》

× 돌-단지[돌단지], 불-단지, 알-단지, 사기-단지, 유리-단지

📖 -달

① 지구주위를 도는 자연위성

✓ 가을-달[가을딸], 그믐-달[그믐딸], 보름-달[보름딸], 초생-달[초생딸], 어스름-달[어스름딸]

× 반-달, 쟁반-달

② 한해를 열둘로 나눈 기간

✓ 다음-달[다음딸], 동지-달[동지딸], 전-달[전딸](이전달), 해산-달[해산딸], 이듬-달[이듬딸](다음달)

× 오는-달, 지난-달

③ 연의 뼈대를 이루는 대오리

✓ 귀-달[귀딸], 머리-달[머리딸], 허리-달[허리딸], 연-달[연딸]

📖 -닭

① 《~에 사는 닭》, 《~에 우는 닭》, 《~종류의 닭》

✓ 메-닭[메딱], 산-닭[산딱], 촌-닭[촌딱]

✓ 새벽-닭[새벽딱], 점심-닭[점심딱]

✓ 대-닭[대딱], 상-닭[상딱], 장-닭[장딱], 좀-닭[좀딱], 중-닭[중딱], 종자-닭[종자딱], 토종-닭[토종딱], 싸움-닭[싸움딱]

② 《~이름의 닭》, 《~모양의 닭》

× 만경-닭, 룡주-닭, 검정-닭, 난쟁이-닭, 묵은-닭, 매-닭, 통-닭(~구이), 어미-닭, 후보-닭, 고기-닭, 알낳이-닭, 금-닭, 장수-닭

📖 -담불

《~을 쌓아놓은 무더기》

✓ 돌-담불[돌땀불], 벼-담불[벼땀불]

📖 -더미

《~이 쌓인 무더기》

✓ 거름-더미[거름떠미], 나무-더미[나무떠미], 돈-더미[돈떠미], 두엄-더미[두엄떠미], 마초-더미[마초떠미], 박토-더미[박토떠미], 벼-더미[벼떠미], 산-더미[산떠미](~같이 쌓이다), 재-더미[재떠미]

📖 -덜미

목의 뒤쪽과 그 아래부분

✓ 등-덜미[등떨미], 뒤-덜미[뒤떨미]

📖 -덩어리, -덩이

① 《~이 크게 뭉쳐져 이루어진것》

✓ 고기-덩어리[고기떵어리], 구름-덩어리[구름떵어리], 금-덩어리[금떵어리], 돈-덩어리[돈떵어리], 비게-덩어리[비게떵어리], 숨-덩어리[숨떵어리](갓난아이), 쇠-덩어리[쇠떵어리], 피-덩어리[피떵어리], 땅-덩어리[땅떵어리], 연-덩어리[연떵어리],

은-덩어리[은떵어리]

✓ 고기-덩이[고기떵이], 금-덩이[금떵이], 기름-덩이[기름떵이], 눈-덩이[눈떵이], 메주-덩이[메주떵이], 비게-덩이[비게떵이], 쇠-덩이[쇠떵이]

× 한-덩어리

② 《~투성이의 사람이나 일》

✓ 골치-덩어리[골치떵어리], 보배-덩어리[보배떵어리], 비위-덩어리[비위떵어리], 우환-덩어리[우환떵어리], 의심-덩어리[의심떵어리]

📖 -도랑

물이 흐르도록 되여있는 좁고 작은 골

✓ 개-도랑[개또랑], 논-도랑[논또랑], 머리-도랑[머리또랑], 물-도랑[물또랑], 보-도랑[보또랑](보뚝도랑), 산-도랑[산또랑]

📖 -독

① 《~을 채워두는 용기》

✓ 거름-독[거름똑], 기름-독[기름똑], 김장-독[김장똑], 김치-독[김치똑], 물-독[물똑], 술-독[술똑], 장-독[장똑], 쌀-독[쌀똑]

② (毒) 독기, 해로운 성분

✓ 눈-독[눈똑](~을 들이다), 매-독[매똑](매맞은 상처의 독기), 벌-독[벌똑](벌에 쐬운 자리의 독기운), 분-독[분똑](~이 오르다), 불-독[불똑](불에 덴 상처의 독기), 손-독[손똑](손에서 옮는 독기), 쇠-독[쇠똑](쇠붙이로 인한 상처의 독)

📖 돈-

화폐

✓ 돈-가방[돈까방], 돈-값[돈깝], 돈-거리[돈꺼리], 돈-고생[돈꼬생], 돈-구멍[돈꾸멍], 돈-궤[돈꿰], 돈-더미[돈떠미], 돈-덩어리[돈떵어리], 돈-벌레[돈뻘레], 돈-벌거지[돈뻘거지], 돈-벌이[돈뻐리], 돈-벼락[돈뼈락](~맞다), 돈-배[돈빼](돈실은 배, 돈내고 타는 배), 돈-소리[돈쏘리], 돈-자리[돈짜리](은행구좌), 돈-종이[돈쫑이](돈만드는 종이), 돈-주머니[돈쭈머니], 돈-줄[돈쭐](~을 잡다), 돈-지갑[돈찌갑]

× 돈-거래, 돈-시세, 돈-질(돈을 주고받는것)

🕮 -돈

《~의 화폐》

✓ 거스름-돈[거스름똔], 공-돈[공똔](공짜돈), 계-돈[계똔](계의 돈), 나라-돈[나라똔], 세-돈[세똔], 세배-돈[세배똔], 주머니-돈[주머니똔], 용-돈[용똔]

🕮 -돌

《~에 있는, ~에 쓰는 돌》

✓ 고임-돌[고임똘](밑에 고인 돌), 김치-돌[김치똘](김치독안에 넣는 돌), 다듬이-돌[다드미똘], 디딤-돌[디딤똘], 대-돌[대똘](섬돌, 기념비의 밑에 받쳐놓은 돌), 망-돌[망똘], 매-돌[매똘], 바위-돌[바위똘], 방치-돌[방치똘], 부시-돌[부시똘], 상-돌[상똘], 성-돌[성똘], 쇠-돌[쇠똘], 주추-돌[주추똘], 회-돌[회똘](석회석), 빨래-돌[빨래똘]

× 고인-돌(~무덤)

🕮 들-

① 《들게 된 ~》, 《들이는 ~》

✓ 들-가방[들까방], 들-것[들껃](~에 담다), 들-구멍[들꾸멍](집짐승이 나드는 구멍), 들-보[들뽀](보짱, ~를 얹다), 들-손[들쏜](그릇옆의 손잡이), 들-숨[들쑴](들이쉬는 숨)

② 《들판에 있는 ~》

× 들-곡식, 들-국화, 들-밭

🕮 등-

《등부위에 있는 ~》

✓ 등-가슴[등까슴](가슴의 등부분), 등-가죽[등까죽], 등-골[등꼴], 등-덜미[등떨미], 등-바닥[등빠닥], 등-바대[등빠대](등쪽의 바대), 등-살[등쌀], 등-솔[등쏠](등솔기), 등-솔기[등쏠기](~가 터지다), 등-줄[등쭐](등쪽의 줄), 등-줄기[등쭐기](등골줄기), 등-짐[등찜]

× 등-받이[등바지], 등-걸상[등걸쌍], 등-섶[등섭](등쪽의 옷섶), 등-지느러미[등지느러미]

🕮 -등

《~의 두덩이 되는 부위》

✓ 고래-등[고래뚱](방고래의 두덩), 귀-등[귀뚱], 산-등[산뚱], 손-등[손뚱], 코-등[코뚱], 허리-등[허리뚱]

× 고래-등(고래의 등어리), 새우-등(새우의 굽은 등)

🕮 대-

《대나무의 ~, 막대모양의 ~, 담배대의 ~》

✓ 대-가치[대까치], 대-구멍[대꾸멍], 대-줄기[대쭐기], 대-진[대찐], 대-집[대찝], 대-잎[댄닙]

🕮 -대

①《~의 긴 막대 또는 ~을 위한 긴 막대》

✓ 가름-대[가름때], 갈비-대[갈비때], 걸이-대[거리때](거름같은것을 찍어넘기는데 쓰는 농기구), 기-대[기때](기발을 매다는 막대기), 낚시대[낙씨때], 노-대[노때](배의 ~), 담배-대[담배때], 초-대[초때](초의 긴 가락, 초를 세워놓게 된 대), 받침-대[받침때], 산-대[산때](셈세기에 쓰는 산가치), 살-대[살때](화~), 소제-대[소제때](소제에 쓰기 위해 만든 대), 장-대[장때](긴 막대), 저울-대[저울때], 지레-대[지레때], 총-대[총때], 표-대[표때](목표로 삼거나 표식을 한 대), 펜-대[펜때](철필대), 홰-대[홰때](두 끝에 끈을 매여 매달아놓고 옷을 걸수 있게 한 막대기, 닭우리에 설치한 가름대), 운전-대[운전때]

② 《~의 줄기》

✓ 피-대[피때](큰 피줄, 식물의 하나인 피의 줄기), 수수-대[수수때], 종-대[종때](파, 마늘 등의 가운데 자라올라오는 줄기)

× 외-대(하나의 대)

🕮 -댁 (宅)

《~의 또는 ~와 인연이 있는 집 또는 그 집의 안사람》

✓ 고관-댁[고관땍], 과부-댁[과부땍], 본가-댁[본가땍], 사돈-댁[사돈땍], 삼촌-댁[삼촌땍], 주인-댁[주인땍], 처가-댁[처가땍], 처남-댁[처남땍], 친정-댁[친정땍], 후처-댁[후처땍], 안-댁[안땍](《남의 처》를 높이는 말), 외가-댁[외가땍]

× 귀-댁(상대의 집을 높여 이르는 말), 본-댁(본집), 시-댁(～식구), 새-댁(새색시), 작은-댁(작은집, 후처), 큰-댁(큰집, 본처)

🕮 뒤-

《뒤쪽의 ～》

✓ 뒤-거두매[뒤꺼두매], 뒤-거둠새[뒤꺼둠새], 뒤-거둠질[뒤꺼둠질], 뒤-거래[뒤꺼래], 뒤-걸음[뒤꺼름], 뒤-결[뒤껻], 뒤-고개[뒤꼬개], 뒤-고방[뒤꼬방](뒤골방), 뒤-골방[뒤꼴방], 뒤-골목[뒤꼴목], 뒤-골[뒤꼴], 뒤-공론[뒤꽁논], 뒤-구석[뒤꾸석], 뒤-그루[뒤끄루](앞그루와 ～), 뒤-근심[뒤끈심], 뒤-귀[뒤뀌](뒤에서 돌아가는 말을 듣는것), 뒤-날[뒨날], 뒤-내[뒨내](뒤쪽의 내가), 뒤-뇌[뒨뇌](뒤쪽의 뇌), 뒤-다리[뒤따리], 뒤-담벽[뒤땀벽], 뒤-덜미[뒤떨미], 뒤-동산[뒤똥산], 뒤-둥[뒤뚱], 뒤-대[뒤때](북쪽에 있는 지방), 뒤-마당[뒨마당], 뒤-마을[뒨마을], 뒤-맛[뒨맏], 뒤-모습[뒨모습], 뒤-모양[뒨모양], 뒤-목[뒨목], 뒤-문[뒨문](～거래), 뒤-맵시[뒨맵씨], 뒤-바라지[뒤빠라지], 뒤-바람[뒤빠람], 뒤-발질[뒤빨질], 뒤-붙이[뒤뿌치], 뒤-배[뒤빼](～앓이), 뒤-산[뒤싼], 뒤-선[뒤썬](앞선과 ～), 뒤-소리[뒤쏘리], 뒤-소문[뒤쏘문], 뒤-속[뒤쏙], 뒤-손가락질[뒤쏜까락질], 뒤-손질[뒤쏜질], 뒤-수습[뒤쑤습], 뒤-시비[뒤씨비], 뒤-시중[뒤씨중], 뒤-자리[뒤짜리](～숲), 뒤-잔등[뒤짠등], 뒤-장난[뒤짱난], 뒤-전[뒤쩐](～에 밀려나다), 뒤-조사[뒤쪼사], 뒤-주머니[뒤쭈머니], 뒤-지느러미[뒤찌느러미], 뒤-짐[뒤찜](～을 지다), 뒤-짐작[뒤찜작], 뒤-집[뒤찝], 뒤-재주[뒤째주](～를 부리다)

(ㅁ)

🕮 -마루

《～에 난 등성이 또는 두드러진 곳》

✓ 고개-마루[고갠마루], 재-마루[잰마루], 코-마루[콘마루]

× 길이-마루, 높이-마루, 대-마루(지붕의 ～), 소리-마루

🕮 머리-

《머리말에 두고 쓰는 ～》

✓ 머리-궤[머리꿰], 머리-장[머리짱]

🕮 -머리

① 머리카락

✓ 귀-머리[귄머리], 배내-머리[배낸머리]

② 《～의 머리가 되는 부분》

✓ 배-머리[밴머리], 베개-머리[베갠머리], 아래-머리[아랜머리]

🕮 먼저-

《시간이나 순서에서 앞의 ～》

✓ 먼저-번[먼저뻔], 먼저-놈[먼전놈], 먼저-사람[먼저싸람]

🕮 -몸

《～의 몸체부위》

✓ 배-몸[밴몸](배의 몸체), 쇠-몸[쇤몸], 아래-몸[아랜몸], 이-몸[인몸]

🕮 문-

《문이 달려있는 또는 문에 있는 ～》

✓ 문-간[문깐](출입문 있는 곳), 문-고리[문꼬리](문에 매단 고리모양의 손잡이), 문-구멍[문꾸멍], 문-길[문낄](문의 자리길), 문-바람[문빠람], 문-발[문빨], 문-쇠[문쐬](～로 열다), 문-장부[문짱부](널문짝의 ～), 문-지방[문찌방](문설주의 밑에 가로지른 나무)

🕮 물-

《물이 있거나 흐르는 곳의 ～ 또는 물에서 사는 ～》

✓ 물-결[물껼], 물-고[물꼬](～동, ～를 틀다), 물-곬[물꼴], 물-구멍[물꾸멍], 물-기둥[물끼둥], 물-바람[물빠람], 물-방울[물빵울], 물-병[물뼝], 물-독[물똑], 물-도랑[물또랑], 물-돌[물똘], 물-동이[물똥이]

✓ 물-고기[물꼬기](물에 사는 고기), 물-개[물깨], 물-닭[물딱], 물-소[물쏘], 물-짐승[물찜승], 물-새[물쌔]

🕮 -물

① 《～에 있는 또는 ～에 쓰는 물》

✓ 개-물[갠물](개울에 흐르는 물), 개수-물[개순물](설겆이물), 내-물[낸물], 두부-물[두분물], 모-물[몬물](모를 내기 위해 논에 대는 물), 보-물[본물](논보의 물), 비누-물[비눈물], 비-물[빈물], 시내-물[시낸물], 세수-물[세순물], 쇠-물[쇤물], 재-물[잰물], 초-물[촌물](초가 녹아내리는 물), 코-물[콘물], 피-물[핀물], 회-물[휜물](회를 푼 물), 때-물[땐물](때가 섞인 물), 바다-물[바단물], 수도-물[수돈물]

× 설겆이-물[설거지물]

② 짐승의 끓인 먹이

× 개-물 (개먹이), 돼지-물

📖 -매

《～의 모양새》

✓ 다리-매[다린매](다리맵시), 허리-매[허린매]

📖 메-

《산에 사는, 산에서 나는 ～》

✓ 메-닭[메딱], 메-두릅[메뚜릅], 메-돼지[메뙈지], 메-부엉이[메뿌엉이], 메-비둘기[메삐둘기], 메-새[메쌔], 메-종다리[메쫑다리], 메-짐승[메찜승], 메-쥐[메쮜]

(ㅂ)

📖 -바가지

① 《～이 들어있는 또는 ～을 담는데 쓰는 물건》, 《궁한 사람》, 《바가지모양의 물건》을 낮추어 말할 때

✓ 고생-바가지[고생빠가지], 궁-바가지[궁빠가지], 궁상-바가지[궁상빠가지], 뜨물-바가지[뜨물빠가지]

✓ 탈-바가지[탈빠가지], 해골-바가지[해골빠가지]

② 《～으로 만든 바가지》

× 나무-바가지, 비닐-바가지, 삭도-바가자, 쇠-바가지

📖 바다-

《바다에 있는, 바다에서 나는 ～》

✓ 바다-고기[바다꼬기], 바다-나물[바단나물], 바다-물[바단물]

📖 -바대

《～에 덧댄 천》

✓ 등-바대[등빠대], 어깨-바대[어깨빠대]

📖 -바닥

《～의 평평하게 넓은 곳》

✓ 구들-바닥[구들빠닥], 길-바닥[길빠닥], 등-바닥[등빠닥], 마루-바닥[마루빠닥], 모래-바닥[모래빠닥], 발-바닥[발빠닥], 방-바닥[방빠닥], 손-바닥[손빠닥], 신-바닥[신빠닥], 혀-바닥[혀빠닥], 땅-바닥[땅빠닥]

✓ 대처-바닥[대처빠닥], 시내-바닥[시내빠닥]

✓ 강-바닥[강빠닥], 논-바닥[논빠닥], 개-바닥[개빠닥]

📖 -바람

① 《～에 또는 ～에서 부는 바람》

✓ 가을-바람[가을빠람], 강-바람[강빠람], 개-바람[개빠람](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바람), 들-바람[들빠람], 문-바람[문빠람], 물-바람[물빠람], 바다-바람[바다빠람], 밤-바람[밤빠람], 벌-바람[벌빠람], 봄-바람[봄빠람], 서리-바람[서리빠람], 새-바람[새빠람](동풍), 코-바람[코빠람], 아래-바람[아래빠람]

✓ 가마-바람[가마빠람], 배-바람[배빠람]

× 눈-바람, 비-바람, 칼-바람, 갈-바람(서풍), 하늬-바람[하늬바람](북풍)

❖ 마파람(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② 《～채로의 또는 ～에서 일구는 기세》

✓ 궁둥이-바람[궁둥이빠람], 대-바람[대빠람](～에), 맨머리-바람[맨머리빠람], 상투-바람[상투빠람], 신-바람[신빠람], 치마-바람[치마빠람], 어깨-바람[어깨빠람](～이 나다), 엉뎅이-바람[엉뎅이빠람]

📖 -바리

《～을 실은 짐》

✓ 거름-바리[거름빠리], 나무-바리[나무빠리], 짐-바리[짐빠리]

❖ 《그릇》으로서의 《바리》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나무바리》를 [나무바리]로 읽으면 《나무로 만든 바리(그릇)》를, [나무빠리]로 읽으면 《나무를 실은 짐》으로 리해된다.

📖 발-

발의 부위

✓ 발-가락[발까락], 발-걸음[발꺼름], 발-등[발뜽], 발-바닥[발빠닥], 발-부리[발뿌리], 발-잔등[발짠등]

📖 -발

① 《~을 신은채로의 발》

✓ 구두-발[구두빨], 군화-발[군화빨]

② 《~에 드리운 발》, 《~이 여러줄로 줄기를 이룬것》

✓ 문-발[문빨], 수염-발[수염빨], 국수-발[국쑤빨], 글-발[글빨], 눈-발[눈빨], 바람-발[바람빨], 비-발[비빨], 산-발[산빨], 해-발[해빨], 땀-발[땀빨], 다림-발[다림빨], 서리-발[서리빨](~총창), 구름-발[구름빨], 두부-발[두부빨](~이 서다), 피-발[피빨]

📖 밤-

《밤시간에 하는 ~, 밤시간의》

✓ 밤-교대[밤꾜대], 밤-고기[밤꼬기](밤에 잡는 물고기), 밤-동무[밤똥무], 밤-번[밤뻔](밤근무), 밤-손님[밤쏜님], 밤-장[밤짱](야시장)

📖 -밤

《~의 밤시간》

✓ 가을-밤[가을빰], 겨울-밤[겨울빰](짧은 ~), 그믐-밤[그믐빰], 눈-밤[눈빰](눈내리는 밤), 달-밤[달빰], 보름-밤[보름빰], 첫날-밤[천날빰], 하루-밤[하루빰](~을 지새우다), 한데-밤[한데빰], 열-밤[열빰](열흘밤)

× 간밤, 야밤, 날밤(~을 보내다), 한밤(~중), 재밤(~중)

📖 -밥

① 《음식물 또는 먹이, ~거리》

✓ 공-밥[공빱], 낚시-밥[낙씨빱], 눈치-밥[눈치빱], 대포-밥[대포빱](전쟁~), 련-밥[련빱](련꽃의 열매), 말-밥[말빱](~에 오르다), 비빔-밥[비빔빱], 사자-밥[사자빱](~이 되다), 상-밥[상빱], 식혜-밥[시케빱], 점심-밥[점심빱], 제-밥[제빱], 제사-밥[제사빱], 떼-밥[떼빱](떼가 잘 자라도록 뿌리는 흙), 아침-밥[아침빱]

× 지에-밥[지에밥](쌀을 불궈 김으로 찐 밥), 증기-밥[증기밥]

❖ 술-밥[술밥](술과 밥, ~을 대접하다)

② 《~로 일한 뒤에 남는 부산물》

✓ 가래-밥[가래빱], 가위-밥[가위빱], 대패-밥[대패빱], 바늘-밥[바늘빱], 술-밥[술빱](지에밥, ~을 찌다), 실-밥[실빱], 쇠-밥[쇠빱], 자귀-밥[자귀빱], 끌-밥[끌빱]

📖 -방(房)

살거나 일하기 위해 벽을 막아 만든 칸

✓ 금-방[금빵](금붙이세공을 전문하는 집), 가게-방[가게빵], 건너-방[건너빵], 구두-방[구두빵], 글-방[글빵], 단간-방[단간빵], 뒤-방[뒤빵], 살림-방[살림빵], 세-방[세빵](세를 낸 방), 점-방[점빵](가게), 행랑-방[행랑빵], 아래-방[아래빵], 안경-방[안경빵], 안-방[안빵], 온돌-방[온돌빵], 외간-방[외간빵](단간방)

❖ 《감방, 과방(잔치집~), 난방(온수~), 다방(차집), 랭방, 마방(마구간), 서방(~님), 신방(~에 들다), 주방(식당~), 침방(침실), 토방, 통방》과 같은 단순단어에서는 [방]으로 발음한다.

📖 -방울

① 둥근 모양의 자그마한 덩이

✓ 공기-방울[공기빵울], 기름-방울[기름빵울], 김-방울[김빵울], 귀-방울[귀빵울](귀불), 물-방울[물빵울](눈~), 비-방울[비빵울], 솔-방울[솔빵울], 침-방울[침빵울], 코-방울[코빵울], 피-방울[피빵울], 땀-방울[땀빵울], 이슬-방울[이슬빵울]

② 소리나는 작은 물건

× 금-방울, 은-방울, 소-방울, 말-방울, 매-방울, 줄-방울, 통-방울, 왕-방울

📖 -버릇

《～을 하는데서 습관된 행동》

✓ 눈-버릇[눈뻐릇], 말-버릇[말뻐릇], 배내-버릇[배내뻐릇], 손-버릇[손뻐릇], 술-버릇[술뻐릇], 잠-버릇[잠뻐릇], 코-버릇[코뻐릇]

✗ 군-버릇, 개-버릇

📖 -벌

① 벌판

✓ 강-벌[강뻘](강가의 벌판), 고향-벌[고향뻘], 논-벌[논뻘], 농장-벌[농장뻘], 눈-벌[눈뻘](눈덮인 벌판), 미루-벌[미루뻘](밋밋하고 번번한 벌), 풍년-벌[풍년뻘], 협동-벌[협똥뻘], 황금-벌[황금뻘], 옥토-벌[옥토뻘]

✗ 난-벌(떨어져있는 벌)

② 곤충

✓ 좀-벌[좀뻘], 토-벌[토뻘](토종벌), 토종-벌[토종뻘], 따벌[따뻘]

✗ 왕-벌, 로동-벌, 꿀-벌, 말-벌

③ 《～의 정도, 혈족관계》

✓ 손아래-벌[소나래뻘], 조카-벌[조카뻘], 촌-벌[촌뻘](촌수벌), 외가-벌[외가뻘]

📖 -벗

《～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벗》

✓ 글-벗[글뻗], 말-벗[말뻗], 길-벗[길뻗]

📖 -벽

《～에 있는 넙적한 부분》

✓ 귀-벽[귀뼉], 담-벽[담뼉], 바람-벽[바람뼉], 버팀-벽[버팀뼉], 사이-벽[사이뼉], 손-벽[손뼉], 새-벽[새뼉](사이벽), 안-벽[안뼉]

✗ 간막이-벽, 나무-벽, 바위-벽, 방-벽, 방란-벽, 방음-벽

📖 -병

① (病) 병환

✓ 고질-병[고질뼝], 구루-병[구루뼝], 눈-병[눈뼝], 당뇨-병[당뇨뼝], 랭-병[랭뼝], 문둥-병[문둥뼝], 미친개-병[미친개뼝], 발-병[발뼝](발에 생긴 병), 배-병[배뼝], 백혈-병[배결뼝], 상사-병[상사뼝], 성-병[성뼝], 돌림-병[돌림뼝], 심장-병[심장뼝], 심화-병[심화뼝～시뫄뼝], 전염-병[저념뼝], 체-병[체뼝], 코-병[코뼝], 피부-병[피부뼝], 페-병[페뼝], 흑사-병[흑싸뼝], 꾀-병[꾀뼝], 울화-병[울화뼝～우롸뼝], 일사-병[일싸뼝], 위-병[위뼝]

❖ 《간병(간호), 검병(검진), 로병(로환), 만병(갖가지 병), 문병(～을 가다), 발병(병이 생기다), 신병(몸에 생긴 병), 중병(중한 병)》과 같은 단순단어에서는 [병]으로 발음된다.

② (瓶) 《～을 넣은 병사리》

✓ 물-병[물뼝], 맥주-병[맥쭈뼝], 사이다-병[사이다뼝], 술-병[술뼝], 되-병[되뼝]

📖 -볕

해에서 비치는 뜨거운 기운

✓ 가을-볕[가을뼏], 봄-볕[봄뼏](봄의 해볕), 해-볕[해뼏]

✗ 된-볕, 땡-볕(몹시 뜨거운 해볕)

📖 -보

① 두 기둥사이에 가로지른 구조물

✓ 들-보[들뽀], 지붕-보[지붕뽀]

② 《～에 씌우는 보자기》

✓ 상-보[상뽀](밥～), 옷장-보[온짱뽀], 책상-보[책쌍뽀]

③ 《～의 본새》

✓ 담-보[담뽀](～가 크다), 마음-보[마음뽀], 심-보[심뽀](고약한 ～)

④ 《～이 많이 있는것 또는 ～이 많은 사람》

✓ 말-보[말뽀](～를 터뜨리다), 심술-보[심술뽀], 울음-보[우름뽀], 웃음-보[우슴뽀], 잠-보[잠뽀](잠꾸러기)

✗ 털-보, 째보, 울보, 뚱뚱보, 땅딸보

📖 -복

《～의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는것》

✓ 길-복[길뽁], 매-복[매뽁], 자손-복[자손뽁], 일-복[일

뽁]

× 만복, 사람-복, 장군-복, 인민-복

🕮 -봉우리

《~의 높은 부분》

✓ 눈-봉우리[눈뽕우리], 물-봉우리[물뽕우리], 메-봉우리[메뽕우리], 산-봉우리[산뽕우리]

× 돌-봉우리(돌로 된 봉우리)

🕮 -부리

《~에 있는 부리모양의 부분》

✓ 눈-부리[눈뿌리](=눈귀), 돌-부리[돌뿌리](땅우에 내민 돌의 뾰족한 부분, ~를 차다), 메-부리[메뿌리], 발-부리[발뿌리](발가락끝), 산-부리[산뿌리], 소매-부리[소매뿌리], 손-부리[손뿌리], 총-부리[총뿌리], 코-부리[코뿌리]

× 매-부리(~코), 새-부리, 제비-부리

❖ 《눈부리》와 《눈뿌리》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발음은 같다.

🕮 -불

《~이 내는 불》, 《~에 일어난 불》

✓ 겨-불[겨뿔], 난로-불[날로뿔], 담배-불[담배뿔], 등대-불[등대뿔], 등-불[등뿔], 뒤-불[뒤뿔], 모기-불[모기뿔], 반디-불[반디뿔], 번개-불[번개뿔], 산-불[산뿔], 성냥-불[성냥뿔], 전기-불[전기뿔], 전지-불[전지뿔], 초-불[초뿔], 탄-불[탄뿔], 향-불[향뿔], 화로-불[화로뿔], 홰-불[홰뿔], 우등-불[우등뿔]

🕮 -비

① 《~에 내리는 비》

✓ 모-비[모삐](모내기에 좋게 오는 비), 밤-비[밤삐](~가 내리다), 봄-비[봄삐], 산-비[산삐], 장마-비[장마삐]

② 《~을 쓰는 비자루》

✓ 마당-비[마당삐], 방-비[방삐](~로 쓸다)

🕮 -빛

《~의 색갈이나 ~의 기운》

✓ 가을-빛[가을삗](가을의 특징적현상), 구리-빛[구리삗],

금-빛[금삗], 눈-빛[눈삗](~세계, 인자한 ~), 달-빛[달삗], 닭알-빛[달갈삗], 등-빛[등삗], 물-빛[물삗], 별-빛[별삗], 보라-빛[보라삗], 봄-빛[봄삗], 불-빛[불삗], 비취-빛[비취삗], 석양-빛[서걍삗], 자주-빛[자주삗], 주홍-빛[주홍삗], 해-빛[해삗], 얼굴-빛[얼굴삗], 우유-빛[우유삗], 은-빛[은삗]

🕮 배-

① 《물우에서 다니는 배의 ~》

✓ 배-고동[배꼬동], 배-노래[밴노래], 배-놈[밴놈](배사람), 배-놀이[밴노리], 배-지게[배찌게](배짐지는데 쓰는 지게)

② 《인체부분인 배의 ~》

✓ 배-가죽[배까죽], 배-살[배쌀], 배-심[배씸](~있다), 배-집[배찝](~이 크다)

🕮 -배

① 물우를 다닐수 있게 만든 운수수단

✓ 강-배[강빼](강에서 다니는 배), 거루-배[거루빼](돛없는 작은 배), 고기-배[고기빼], 기계-배[기게빼], 나루-배[나루빼], 낚시-배[낙씨빼], 놀이-배[노리빼], 몰이-배[모리빼], 밤-배[밤빼](밤에 다니는 배), 장사-배[장사빼], 짐-배[짐빼], 싸움-배[싸움빼]

② 몸의 한 부분

✓ 뒤-배[뒤빼](~를 보다), 물-배[물빼](~만 채우다), 똥-배[똥빼], 아래-배[아래빼]

🕮 배내-

① 《배안에 있을 때의 ~》

✓ 배내-머리[배낸머리], 배내-버릇[배내뻐른], 배내-짓 [배내찓]

② 《배내기로 기르는 ~》

✓ 배내-닭 [배내딱], 배내-소 [배내쏘]

🕮 베개-

《베개의 ~》

✓ 베개-마구리[베갠마구리], 베개-말[베갠말], 베개-머리[베갠머리], 베개-모[베갠모], 베개-목[베갠목], 베개-밑[베갠

닏](~ 송사), 베개-보[베개뽀], 베개-속[베개쏙], 베개-잇[베갠닏]

(ㅅ)

📖 -사람

① 《~에 있거나 사는 또는 ~에서 일하는 사람》

✓ 눈-사람[눈싸람], 바다-사람[바다싸람], 배-사람[배싸람], 사회-사람[사회싸람], 산-사람[산싸람], 상-사람[상싸람](평민), 섬-사람[섬싸람], 촌-사람[촌싸람], 후-사람[후싸람], 아래-사람[아래싸람], 안-사람[안싸람]

② 《~류형의 사람》

× 군-사람(쓸데없는 ~), 난-사람(잘난 사람), 만-사람(~의 축복), 생-사람(~을 잡다), 참-사람

📖 사이-

《갈라진 틈사이에 들어있는 ~》

✓ 사이-가락[사이까락], 사이-길[사이낄], 사이-그루[사이끄루], 사이-대[사이때], 사이-방[사이빵], 사이-벽[사이뼉], 사이-소리[사이쏘리]

📖 -삯

《~을 쓴 값》

✓ 배-삯[배싹](~을 받다), 짐-삯[짐싹], 차-삯[차싹], 품-삯[품싹]

📖 산-

《산에 있는 ~》

✓ 산-골짜기[산꼴짜기], 산-골짝[산꼴짝], 산-등성이[산뜽성이], 산-그림자[산끄림자], 산-버들[산뻐들], 산-비둘기[산삐둘기], 산-비탈[산삐탈], 산-잔등[산짠등], 산-쥐[산쮜]

× 산-경치, 산-변두리, 산-사태

📖 살-

《인체나 고기에 붙은 살의 ~》

✓ 살-가죽[살까죽], 살-갗[살깓], 살-고기[살꼬기], 살-기

[살끼](살집이 있는 정도), 살-덩이[살떵이], 살-빛[살삗]

📖 -살

①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이룬 연한 물질

✓ 구녕-살[구녕쌀](소엉치살), 등-살[등쌀](~을 벗기다), 머리-살[머리쌀](~이 아프다), 조개-살[조개쌀], 주름-살[주름쌀], 초마-살[초마쌀](소의 사타구니의 살)

× 고리-살, 군-살, 게-살(~을 먹다), 덩지-살

② 《~이 이룬 주름이나 줄기》

✓ 구김-살[구김쌀](~이 생기다), 다듬이-살[다드미쌀](다듬이감의 풀기, ~이 퍼지다), 물-살[물쌀](~이 빠르다), 비-살[비쌀], 해-살[해쌀], 눈-살[눈쌀](~을 펴다), 코-살[코쌀], 이마-살[이마쌀], 이-살[이쌀](이발짬)

③ 《~의 골조》

✓ 문-살[문쌀](문짝의 뼈대가 되는 나무오리), 바퀴-살[바퀴쌀], 부채-살[부채쌀], 창-살[창쌀]

④ 나이로 먹은 해수

✓ 나-살[나쌀](~이나 먹다), 나이-살[나이쌀]

📖 상-

① (床) 《가구인 상에 있는 또는 상을 차리는 ~》

✓ 상-귀[상뀌](상의 귀퉁이), 상-돌[상똘], 상-밥[상빱], 상-보[상뽀], 상-수건[상쑤건], 상-술[상쑬]

② (常) 《보통정도의, 흔한 ~》

✓ 상-사람[상싸람], 상-대접[상때접](일반적인 대접), 상-닭[상딱](좋지도 곱지도 않은 닭)

❖ 《상설, 상수, 상습, 상식, 상주(~대표)》와 같은 단순단어에서는 소리가 끼우지 않는다.

📖 -상(床)

《~로 준비한 음식상 또는 ~을 올려놓게 된 가구》

✓ 반주-상[반주쌍], 세배-상[세배쌍](세배하러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상), 잔치-상[잔치쌍], 점심-상[점심쌍], 주안-상[주안쌍], 진지-상[진지쌍], 제사-상[제사쌍], 제-상[제쌍], 자리-상[자리쌍](이부자리 등을 올려놓는 상)

❖ 《겸상, 반상(반상기, 밥차림그릇), 침상》과 같은 단순단어인 경우는 [상]으로 발음한다.

📖 -소리

《~에서 나는 소리》

✓ 고동-소리[고동쏘리], 노래-소리[노래쏘리], 문-소리[문쏘리], 바다-소리[바다쏘리], 비-소리[비쏘리], 사이-소리[사이쏘리], 상-소리[상쏘리], 숨-소리[숨쏘리], 쇠-소리[쇠쏘리], 종-소리[종쏘리], 총-소리[총쏘리], 칼도마-소리[칼또마쏘리], 코-소리[코쏘리], 파도-소리[파도쏘리], 포-소리[포쏘리], 혀-소리[혀쏘리], 혀아래-소리[혀아래쏘리], 혼자-소리[혼자쏘리], 쌍-소리[쌍쏘리]

📖 -속

《~의 안쪽,~의 속통》

✓ 귀-속[귀쏙], 리속[리쏙], 말-속[말쏙], 불-속[불쏙], 배-속[배쏙], 실속[실쏙], 장사-속[장사쏙], 품-속[품쏙], 꿍꿍이-속[꿍꿍이쏙], 뼈-속[뼈쏙], 이불-속[이불쏙]

📖 손-

① 《손에 들고 쓰는 자그마한 ~》

✓ 손-가방[손까방], 손-거울[손꺼울], 손-대야[손때야], 손-저울[손쩌울]

× 손-수레

② 《손가까이 두고 쓰는 ~》

✓ 손-궤[손꿰], 손-뒤주[손뛰주]

③ 《손으로 하는 ~, 손로동의 ~》

✓ 손-그림자[손끄림자], 손-고동[손꼬동], 손-기계[손끼계], 손-도장[손또장], 손-심부름[손씸부름], 손-장단[손짱단], 손-잔등[손짠등], 손-짐작[손찜작]

📖 -손

① 《~의 손잡이》

✓ 대패-손[대패쏜](대패손잡이), 망-손[망쏜](망손잡이), 매-손[매쏜](망손)

② 《~의 손님》

✓ 먼데-손[먼데쏜](먼데서 온 손님), 밤-손[밤쏜]

📖 -솔

《~을 닦거나 칠하는데 쓰는 물건》

✓ 구두-솔[구두쏠], 치솔[치쏠], 회-솔[회쏠], 이-솔[이쏠]

📖 수- (수컷)

① (모음이나 울림소리앞에서)

✓ 수-놈[순놈](수컷), 수-말[순말]

✓ 수-양[순냥], 수-여우[순녀우]

② (《ㅅ, ㅈ》앞에서)

✓ 수-소[수쏘], 수-짐승[수찜승], 수-쥐[수쮜]

❖ 다른 순한소리앞에 있을 때는 [ㅎ]가 덧나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례: 수-돼지[수퇘지], 수-고양이[수코양이]

📖 -수

(數) 《~의 수효》

✓ 건-수[건쑤](~가 많다), 개-수[개쑤](~를 세다), 권-수[권쑤](책의 ~), 날-수[날쑤], 대-수[대쑤](자동차의 ~), 되-수[되쑤](되의 수), 리-수[리쑤](리의 수), 마리-수[마리쑤], 말-수[말쑤](~가 적다), 머리-수[머리쑤](사람의 수), 매-수[매쑤](종이의 ~), 해-수[해쑤](~로 3년), 회-수[회쑤](~가 잦다)

× 호수, 점수, 부수, 문수, 공수, 함수, 분수, 변수, 소수, 지수, 씨수

📖 -술

《~으로 마시는 술, ~에 마시는 술》

✓ 공-술[공쑬](공짜로 마시는 술), 병-술[병쑬](병에 담은 술), 상-술[상쑬](안주상에 곁들여 파는 술), 잔-술[잔쑬](잔에 따른 술), 제사-술[제사쑬], 해장-술[해장쑬], 화-술[화쑬](화가나서 마시는 술), 화해-술[화해쑬]

× 선-술 (~집), 고뿌-술(고뿌로 마시는 혹은 고뿌로 파는 술)

📖 -심

《~의 힘》

✓ 고개-심[고개씸], 다듬이-심[다듬이씸](다듬이한 결과 빳빳한 기운), 다리-심[다리씸](다리힘), 등-심[등씸](소등의 힘살, 소~살), 배-심[배씸](~좋다), 뼈-심[뼈씸](~이 있다), 아래-심[아래씸](아래몸으로 쓰는 힘)

🕮 새-

① 《사이의 ~》

✓ 새-강[새깡](강줄기가 섬을 끼고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강), 새-거리[새꺼리](새참거리), 새-길[새낄](사이길), 새-대문[새때문](사이대문), 새-문[샌문](사이문), 새-서방[새써방](사이서방)

② 《색갈이 진한 ~》

✓ 새-노랗다[샌노라타], 새-말갛다[샌말가타]

🕮 -새

① 《~에 사는 새》

✓ 메-새[메쌔], 바다-새[바다쌔], 밤-새[밤쌔], 산-새[산쌔]

② 새의 이름

× 참-새, 황-새, 할미-새, 두견-새

🕮 -세

① (稅) 《~의 대가로 내는 세금이나 값》

✓ 방-세[방쎄], 산림-세[살림쎄], 수리-세[수리쎄], 장-세[장쎄], 터-세[터쎄](~를 내다), 통과-세[통과쎄]

❖ 《감세, 과세, 면세, 징세》와 같이 단순단어에서는 [세]로 발음한다.

② 《~의 모양, 형세》

✓ 산-세[산쎄](험한 ~), 터-세[터쎄](~가 세다), 손-세[손쎄](~를 쓰다), 몸-세[몸쎄]

❖ 《대세, 수세, 시세, 자세, 정세, 외세》와 같은 단순단어안에서는 [세]로 발음한다.

🕮 세수-

《세수하는데 쓰는 ~》

✓ 세수-대야[세수때야], 세수-물[세순물], 세수-비누[세수삐누]

🕮 -쇠

《~에 쓰는 쇠나 쇠쪼각》

✓ 금-쇠[금쐬](목재에 금긋는 도구), 귀-쇠[귀쐬](가구의 모서리에 대는 쇠쪼각), 문-쇠[문쐬], 자리-쇠[자리쐬](~를 끼우다), 조임-쇠[조임쐬](~로 조이다), 이음-쇠[이음쐬](계철)

× 디딤-쇠, 단-쇠

(ㅈ)

🕮 -자

(字) 《~모양의 글자나 수자》

✓ 2-자[이짜](수가 2인 수자), 3-자[삼짜], 4-자[사짜], 갈지-자[갈지짜], 글-자[글짜], 날-자[날짜], 돌림-자[돌림짜](이름의 ~), 라틴-자[라틴짜], 로마-자[로마짜](로마글자), 수-자[수짜], 정음-자[정음짜]

✓ 문자[문짜], 한자[한짜], 오자[오짜](틀린 글자)

❖ 《타자, 전자(~법), 외자(밖의 글자), 천자문》과 같이 단순단어안에서는 대체로 [자]로 발음된다.

🕮 -자국

《~이 남긴 흔적》

✓ 마마-자국[마마짜국], 손-자국[손짜국], 신-자국[신짜국], 피-자국[피짜국], 안경-자국[안경짜국], 이-자국[이짜국](이발자리), 땀-자국[땀짜국]

🕮 -자락

《~의 아래로 드리운 부분》

✓ 드림-자락[드림짜락](길게 아래로 드리운 부분), 비-자락[비짜락](비자루의 앞끝), 소매-자락[소매짜락], 장삼-자락[장삼짜락], 적삼-자락[적삼짜락], 치마-자락[치마짜락], 호미-자락[호미짜락], 안-자락[안짜락], 산-자락[산짜락]

× 한-자락[한자락]

📖 -자루

① 《~의 손잡이부분 또는 손잡이처럼 길죽하게 생긴것》

✓ 가래-자루[가래짜루], 강냉이-자루[강냉이짜루], 도끼-자루[도끼짜루], 망-자루[망짜루](망손잡이), 망치-자루[망치짜루], 메-자루[메짜루], 비-자루[비짜루], 총-자루[총짜루], 호미-자루[호미짜루]

× 쇠-자루(쇠로 된 자루), 나무-자루

②《~을 담는데 쓰는 큰 주머니》

✓ 동냥-자루[동냥짜루], 두부-자루[두부짜루](두부를 앗을 때 쓰는 자루), 보리-자루[보리짜루]

× 명주-자루(명주로 만든 자루), 비닐-자루, 베-자루, 종이-자루

📖 -자리

① 《~이 위치한 곳》

✓ 논-자리[논짜리], 모-자리[모짜리], 모판-자리[모판짜리], 묘-자리[묘짜리], 잠-자리[잠짜리], 뜸-자리[뜸짜리]

❖ 《누구의 자리》라는 뜻으로 쓸 때에는 된소리로 나지 않는다.

례: 동무-자리[동무자리], 영수-자리[영수자리], 군인-자리[구닌자리]

② 《~이 남긴 자욱》

✓ 가리마-자리[가리마짜리], 마마-자리[마마짜리], 바퀴-자리[바퀴짜리]

📖 -잔

《~을 마시는데 쓰는 작은 그릇》

✓ 교배-잔[교배짠], 술-잔[술짠], 차-잔[차짠], 축배잔[축배짠], 퇴주-잔[퇴주짠]

× 등-잔, 나무-잔, 금-잔, 반-잔, 사기-잔, 알-잔, 한-잔, 유리-잔

📖 잠-

《자는 상태에서의 ~》

✓ 잠-소리[잠쏘리], 잠-시간[잠씨간], 잠-자리[잠짜리]

📖 -잠

① 《~에 자는 잠》

✓ 겨울-잠[겨울짬], 밤-잠[밤짬](~을 못 자다), 한데-잠[한데짬], 아침-잠[아침짬], 여름-잠[여름짬]

② 《~모양으로 자는 잠》

× 노루-잠(자꾸 놀래여 깨는 잠), 단-잠, 두벌-잠(그루잠), 발편-잠(~을 자다), 선-잠, 새우-잠, 토끼-잠, 한-잠(~ 잘 자다), 여우-잠(설핀 잠)

📖 장-

(場) 《시장, 저자의 ~》

✓ 장-거리[장꺼리], 장-바닥[장빠닥](장마당의 땅바닥), 장-시세[장씨세]

📖 -장

① 《넙적한 판모양의 ~》

✓ 구들-장[구들짱], 구름-장[구름짱], 기와-장[기와짱], 마루-장[마루짱], 바위-장[바위짱], 보-장[보짱], 떼-장[떼짱], 얼음-장[어름짱]

② (張) 《종이로 된 낱장》

✓ 누에-장[누에짱](누에를 깨운 종이장), 백지-장[백찌짱], 종이-장[종이짱], 주패-장[주패짱]

❖ 한-장, 두-장, 여덟-장[여덜짱], 열-장[열짱]

③ (狀) 《~의 내용을 담은 문서나 편지》

✓ 감사-장[감사짱], 경고-장[경고짱], 고소-장[고소짱], 광고-장[광고짱], 기소-장[기소짱], 년하-장[년하짱~녀나짱], 론고-장[론고짱], 밀고-장[밀고짱], 배치-장[배치짱], 소개-장[소개짱], 소송-장[소송짱], 소환-장[소환짱], 신임-장[시님짱], 위임-장[위임짱], 임명-장[임명짱], 초대-장[초대짱], 초청-장[초청짱], 축하-장[추카짱], 특허-장[트커짱], 파견-장[파견짱], 표창-장[표창짱]

④ (欌) 《~을 넣어두는 가구》

✓ 가시-장[가시짱], 신-장[신짱], 차-장[차짱], 찬-장[찬짱], 이불-장[이불짱]

⑤ (場) 《～에 서는 시장》

✓ 뒤-장[뒤짱](후에 서는 장), 촌-장[촌짱](촌에 서는 장), 후-장[후짱]

📖 -적

① (的) 《～에 관계된, ～와 관련된, ～의 범위에서의》

✓ 가정-적[가정쩍], 공-적[공쩍](～문제), 군-적[군쩍](～으로), 기업소-적[기업소쩍](～인 사업), 개인-적[개인쩍], 내-적[내쩍](～질서), 단-적[단쩍](～실례), 당-적[당쩍](～사업), 도-적[도쩍](～으로), 동-적[동쩍](～으로), 량-적[량쩍](～지표), 리-적[리쩍](～으로), 미-적[미쩍](～감정), 병-적[병쩍](～증상), 사-적[사쩍](력사적), 사-적[사쩍](개인적, ～문제), 성-적[성쩍](～구분), 수-적[수쩍](～우세), 시-적[시쩍](～감흥), 시-적[시쩍](～인 사업), 전반-적[전반쩍], 전-적[전쩍], 지-적[지쩍](～재산권), 외-적[외쩍](～느낌)

❖ 《～의, ～성격의, ～관점의, ～이 있는, ～와 같은》 등의 뜻으로 쓰인 경우 받침소리뒤에서는 [쩍]으로 발음하나 모음뒤에서는 [적]으로 발음한다.

례1: 광-적으로[광쩌그로], 동-적[동쩍](～상태), 정-적[정쩍](～상태)

례2: 일시-적, 필수-적, 말세-적, 필사-적, 론리적[롤리적], 성과-적, 리기-적, 고의적[고이적], 비교-적, 거시-적, 사회주의-적[사회주이적], 일차-적, 압도-적, 쌍무-적, 신화-적

② 《～의 시기》

✓ 소시-적[소시쩍], 태고-적[태고쩍](～이야기), 아이-적[아이쩍](～모습)

📖 전-

(前) 《먼저의, 앞의 ～》

✓ 전-번[전뻔](먼저번), 전-시간[전씨간], 전-경기[전경기], 전-기[전끼](～의 졸업생)

📖 -전

《～의 언저리부분》

✓ 가마-전[가마쩐](가마의 운두둘레), 귀-전[귀쩐](～에 들리다), 뒤-전[뒤쩐](～에 물러나다), 배-전[배쩐](～에 부딪치다), 아래-전[아래쩐](아래쪽변두리), 안-전[안쩐](안쪽언저리), 이마-전[이마쩐](～의 땀방울)

📖 조

① (調) 《～가 어린 어조나 어투》

✓ 경어-조[경어쪼], 놀림-조[놀림쪼], 론-조[론쪼](론증하는 투), 롱-조[롱쪼], 명령-조[명령쪼], 불만-조[불만쪼], 불평-조[불평쪼], 비양-조[비양쪼], 시비-조[시비쪼](시비하는 투), 시험-조[시험쪼], 훈시-조[훈시쪼]

❖ 《강조, 고조, 어조, 대(소)조, 시조》와 같이 단순단어에서는 [조]로 발음된다.

② (條) 《～의 명목이나 조건, 부분》

✓ 리자-조[리자쪼](～로 돈을 받다), 셈-조[셈쪼](～를 따지다)

❖ 《신조, 개조(10～), 교조(～주의)》와 같은 단순단어들에서는 대체로 [쪼]로 발음하지 않는다.

📖 -종

① 《～의 종대》

✓ 마늘-종[마늘쫑], 무우-종[무우쫑], 파-종[파쫑]

② 《～에 두고 부리는 머슴》

✓ 몸-종[몸쫑], 안-종[안쫑](녀자종)

📖 -주머니

① 무엇을 넣고다닐수 있게 만든 물건

✓ 그물-주머니[그물쭈머니](그물모양의 주머니), 돈-주머니[돈쭈머니], 동냥-주머니[동냥쭈머니], 수-주머니[수쭈머니](수놓은 주머니), 숨-주머니[숨쭈머니], 천-주머니[천쭈머니]

② 《～이 가득한 대상 또는 사람》

✓ 고생-주머니[고생쭈머니], 병-주머니[병쭈머니], 샘-주머니[샘쭈머니], 웃음-주머니[우슴쭈머니]

📖 -줄

《～에 붙은 줄 또는 줄모양의것》

✓ 가래-줄[가래쭐], 금-줄[금쭐](금광의 줄기, 통행을 금지

하기 위해 가로지른 줄), 낚시-줄[낙씨쭐], 돈-줄[돈쭐](돈을 융통해 쓸수 있는 연줄), 명-줄[명쭐], 바-줄[바쭐], 시계-줄[시계쭐], 전기-줄[전기쭐], 전화-줄[전화쭐~저놔쭐], 태-줄[태쭐], 피-줄[피쭐], 힘-줄[힘쭐], 연-줄[연쭐], 오라-줄[오라쭐]

× 금-줄[금줄](금물을 올려 만든 줄), 쇠-줄

📖 -줄기

《~의 기본을 이루는 부분 또는 길게 뻗어나간것》

✓ 강-줄기[강쭐기], 등-줄기[등쭐기], 대-줄기[대쭐기], 메-줄기[메쭐기], 바람-줄기[바람쭐기], 바위-줄기[바위쭐기], 비-줄기[비쭐기], 산-줄기[산쭐기], 샘-줄기[샘쭐기], 탄-줄기[탄쭐기], 피-줄기[피쭐기], 땀-줄기[땀쭐기], 땅-줄기[땅쭐기]

× 본-줄기, 뿌리-줄기(~식물), 외-줄기, 원-줄기, 나무-줄기, 덩이-줄기

📖 중-

《중간크기의 동물로서의 ~》

✓ 중-개[중깨], 중-닭[중딱], 중-고기[중꼬기](중간크기의 물고기)

📖 -진

《~에서 나는 끈덕끈덕한 물질》

✓ 담배-진[담배찐](역한 ~), 대-진[대찐](~냄새)

❖ 《송진》과 같은 단순단어들에서는 [진]으로 발음한다.

📖 -짐

《~에 지거나 실어서 나르기 위해 꾸린 물건》

✓ 등-짐[등찜], 보-짐[보찜](보에 싼 짐, 길~, 괴나리~, 단~, 반~), 배-짐[배찜](~을 부리다), 이사-짐[이사찜](~을 싣다)

📖 -집

① 《~에 있는, ~을 하거나 ~상태의 건물》, 《~와 관련이 있는 집》

✓ 거리-집[거리찝](길거리에 있는 집), 건너-집[건너찝](건너편의 집), 국수-집[국쑤찝](국수를 파는 집), 객주-집[객쭈찝], 남향-집[남향찝~나먕찝](남쪽으로 향한 집), 농가-집[농가찝], 다층-집[다층찝], 단간-집[단간찝], 단층-집[단층찝], 동향-집[동향찝](동쪽으로 향한 집), 료리-집[료리찝](료리를 만들어 파는 집), 맥주-집[맥쭈찝], 부자-집[부자찝](부자의 집), 북향-집[부캉찝], 살림-집[살림찝], 상가-집[상가찝], 세-집[세찝](세를 주고 쓰는 집), 잔치-집[잔치찝], 제사-집[제사찝], 차-집[차찝](차를 팔아주는 집), 초상-집[초상찝], 촌-집[촌찝](촌에 있는 집), 판자-집[판자찝], 빨래-집[빨래찝](빨래를 해주는 집), 앞뒤-집[압뛰찝](앞과 뒤의 이웃집)

✓ 과부-집[과부찝], 배나무-집[배나무찝], 사돈-집[사돈찝], 순천-집[순천찝], 주인-집[주인찝], 일가-집[일가찝](친척이 되는 집), 외가-집[외가찝]

× 나무-집(나무로 지은 집), 기와-집, 돌-집, 벽돌-집

② 《~이 들어있는 주머니》

✓ 고름-집[고름찝](고름이 모여든 곳), 권총-집[권총찝](권총을 넣어 차고다니는데 쓰는 주머니), 대패-집[대패찝](대패날을 박게 된 나무의 틀), 벼루-집[벼루찝](벼루, 먹 같은것을 넣어두는 자그마한 상자), 총-집[총찝], 안경-집[안경찝], 웃음-집[우슴찝](웃음보), 이-집[이찝](이뿌리가 박힌 구멍)

③ 《~의 덩어리, 자리》

✓ 몸-집[몸찝](몸의 덩치), 매-집[매찝](~이 좋다), 병-집[병찝](사상적~), 배-집[배찝](배통, ~이 크다)

📖 -짓

《~을 놀려서 하는 동작》

✓ 고개-짓[고개찓], 궁둥이-짓[궁둥이찓], 눈-짓[눈찓], 다리-짓[다리찓], 몸-짓[몸찓], 배내-짓[배내찓], 손-짓[손찓], 어깨-짓[어깨찓]

📖 -짚

《~의 이삭을 털고 남은 줄기나 잎》

✓ 강낭-짚[강낭찝], 강냉이-짚[강냉이찝], 벼-짚[벼찝], 보리-짚[보리찝], 수수-짚[수수찝], 신-짚[신찝](짚신을 삼기 위해 마련한 짚), 조-짚[조찝], 콩-짚[콩찝], 깨-짚[깨찝]

📖 재-

① 《타고남은 물질 또는 그런 색갈의 ~》

✓ 재-간[재깐](재를 모아두는 헛간), 재-더미[재떠미], 재-독[재똑](재를 담는 독), 재-모[잰모](재를 낸 모자리의 모), 재-물[잰물](양~), 재-박[재빡](재 담는 그릇), 재-불[재뿔](재속의 불), 재-비[재삐](재 섞인 비), 재-빛[재삗], 재-강아지[재깡아지]

② 《언덕에 있는 ~》

✓ 재-길[재낄](재에 난 길), 재-마루[잰마루]

📖 -재

《~이 타고 남은 물질》

✓ 담배-재[담배째], 보리-재[보리째](보리밭의 재거름), 탄-재[탄째], 아궁-재[아궁째], 오줌-재[오줌째]

× 매운-재, 마른-재, 구-재(그을음과 재)

📖 -재간, -재주

《~을 잘하는 능력이나 솜씨》

✓ 말-재간[말째간], 손-재간[손째간], 일-재간[일째간]

✓ 말-재주[말째주], 발-재주[발째주], 손-재주[손째주]

× 공-재주, 잔-재간

(ㅊ~ㅉ)

📖 차-

《음료인 차를 마시는데 쓰는 ~》

✓ 차-그릇[차끄릇], 차-잔[차짠], 차-잎[찬닙]

📖 찬-

《반찬을 만들거나 담는데 쓰는 ~》

✓ 찬-가위[찬까위], 찬-감[찬깜], 찬-그릇[찬끄릇], 찬-곽[찬꽉]

📖 코-

《코에 나있는 또는 코에서 나는 ~》

✓ 코-구멍[코꾸멍], 코-날[콘날], 코-노래[콘노래], 코-마루[콘마루], 코-물[콘물], 코-방귀[코빵귀], 코-수염[코쑤염],

코-잔등[코짠등]

📖 터-

《집이 있거나 집을 지을 자리의 ~》

✓ 터-구렝이[터꾸렝이](업구렝이), 터-돌[터똘], 터-마당[턴마당](집터의 너른 마당), 터-세[터쎄], 터-자리[터짜리]

× 터-밭

📖 한데-

《밖에서의 ~》

✓ 한데-밤[한데빰], 한데-잠[한데짬]

📖 후-

《순서상에서 뒤에 오는 ~》

✓ 후-맛[훈맏], 후-번[후뻔](다음번)

📖 해-

《태양의 ~》

✓ 해-님[핸님], 해-무리[핸무리], 해-발[해빨], 해-빛[해삗], 해-살[해쌀], 해-시계[해씨게]

📖 따-, 땅-

《땅에 사는 또는 땅에 붙은것같이 작은 ~》

✓ 따-쥐[따쮜], 땅-강아지[땅깡아지], 땅-거미[땅꺼미], 땅-거죽[땅꺼죽], 땅-고집[땅꼬집](~을 부리다), 땅-금[땅끔], 땅-기슭[땅끼슥], 땅-김[땅낌], 땅-개[땅깨], 땅-벌레[땅뻘레], 땅-벼락[땅뻐락](땅에 치는 벼락, ~같이 으르다)

(ㅏ~ㅞ)

📖 아래-

《아래쪽에 있는 ~》

✓ 아래-누이[아랜누이], 아래-다리[아래따리], 아래-단위[아래따뉘], 아래-도리[아래또리], 아래-마을[아랜마을], 아래-바지[아래빠지], 아래-벌[아래뻘], 아래-주머니[아래쭈머니]

📖 안-

《바깥의 반대쪽에 있는 ～, 집안의 ～》

✓ 안-고름[안꼬름], 안-사돈[안싸돈], 안-사람[안싸람], 안-섶[안썹](옷의 ～), 안-손님[안쏜님], 안-주머니[안쭈머니], 안-주인[안쭈인](집안의 녀자주인)

📖 -여우

교활한 짐승

✓ 불-여우[불려우], 물-여우[물려우], 북극-여우[북끙녀우]

📖 -윷

민속놀이의 하나

✓ 가락-윷[가랑뉻], 밤-윷[밤뉻], 콩-윷[콩뉻], 앞-윷[암뉻], 풋-윷[푼뉻]

📖 -이

① 이발

✓ 결-이[전니], 금-이[금니], 덧-이[던니], 못-이[몬니](못으로 고정한 인공이발), 묻힌-이[무친니], 방석-이[방성니](송곳이다음의 어금이), 버덩-이[버덩니], 벋-이[번니], 배내-이[배낸니](이발갈이를 하지 않은 이), 사랑-이[사랑니](성년기에 맨 나중에 나는 네개의 작은 어금이), 속-이[송니], 송곳-이[송곤니], 생-이[생니], 젖-이[전니], 톱-이[톰니](톱의 이발), 틀-이[틀리], 뻐드렁-이[뻐드렁니], 아래-이[아랜니], 앞-이[암니], 어금-이[어금니], 옥-이[옹니](안으로 옥아들어간 이), 웃-이[운니]

② 벌레

✓ 가랑-이[가랑니](새끼이, ～가 더 문다), 머리-이[머린니](사람의 머리칼에 기생하는 이), 옷-이[온니]

📖 -이발

음식을 씹을수 있게 입안에 나있는 희고 굳은것

✓ 금-이발[금니빨], 덧-이발[던니빨], 생-이발[생니빨]

📖 -이불

잘 때 덮는것

✓ 겹-이불[겹니불], 길-이불[길리불](길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이불), 깃-이불[긴니불], 솜-이불[솜니불], 통-이불[통니불], 홑-이불[혼니불]

× 누비-이불

📖 -입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인체의 기관

✓ 군-입[군닙], 뭇-입[문닙](여러 사람의 입), 맨-입[맨닙], 빈-입[빈닙]

× 대구-입

📖 -잇

거죽에 씌우는 천

✓ 베개-잇[베갠닏], 이불-잇[이불릳]

× 모자-잇, 요포-잇

📖 -잎

식물의 가지나 줄기에 달리는 잎사귀 또는 ～의 잎모양

✓ 가랑-잎[가랑닙], 간-잎[간닙], 결-잎[전닙], 겹-잎[겸닙], 계단-잎[게단닙], 담배-잎[담밴닙], 돈-잎[돈닙], 대-잎[댄닙], 본-잎[본닙], 속-잎[송닙], 솔-잎[솔립], 순-잎[순닙], 진-잎[진닙](～밥, ～죽), 차-잎[찬닙], 첫-잎[천닙], 콩-잎[콩닙], 홑-잎[혼닙], 햇-잎[핸닙], 꽃-잎[꼰닙], 깨-잎[깬닙], 떡갈-잎[떡깔립], 뽕-잎[뽕닙], 쪽-잎[쫑닙], 옹근-잎[옹근닙], 원-잎[원닙]

2. 한자음의 된소리되기자료

📖 -가: (價－값 가)

✓ 감가[감까](～상각금), 고가[고까](～약), 단가[단까](상품～), 등가[등까](～물), 대가[대까](값비싼 ～), 렴가[렴까](～로 사다), 무가[무까](병을 ～로 치료하다), 물가[물까](물건값, ～가 오르다), 시가[시까](시장가격, 시세가격), 저가[저까](낮은 가격, ～로 팔다), 정가[정까](～를 매기다), 주가[주까](주식값), 진가[진까](물건의 ～를 알다), 평가[평까], 이가[이까](～원소), 원가[원까](제품의 ～)

📖 -건: (件－가지 건)

✓ 문건[문껀], 본건[본껀](이 안건 또는 사건), 사건[사껀](형사~, ~사고), 조건[조껀], 안건[안껀](회의~), 요건[요껀](요긴한 안건), 용건[용껀](~을 말하다)

✓ 한-건[한껀], 두-건[두껀], 세-건[세껀]

× 물건

📖 -격: (格－격식 격)

① 《자격이나 급수》의 의미를 나타낼 때

✓ 동격[동껵](같은 자격, ~으로 대하다), 손님-격[손님껵](언제나 ~이다), 승격[승껵](과장으로 ~되다), 신격[신껵](~화), 실격[실껵](자격을 잃는것)

② 언어학에서 《격》의 의미로 쓰인 경우

✓ 구격[구껵], 대격[대껵], 비교격[비교껵], 조격[조껵], 주격[주껵], 여격[여껵], 위격[위껵]

③ 《격식이나 성품》의 의미

✓ 정격[정껵](정해진 규격, ~전압), 변격[변껵](불규칙적인 격식), 본격[본껵](~적으로), 성격[성껵](쾌활한 ~), 품격[품껵], 풍격[풍껵], 인격[인껵](~을 모욕하다)

× 가격, 골격, 규격, 자격, 체격

📖 -구: (句－글귀 구)

① 시구절

✓ 결구[결꾸](시의 마지막 구절이나 줄, 화려한 ~), 대구[대꾸](시의 ~), 시구[시꾸](시구절, ~가 잘되다), 조흥구[조흥꾸], 종결구[종결꾸]

② 말마디

✓ 관용구[관용꾸], 례구[례꾸](본보기로 될 글토막), 문구[문꾸], 성구[성꾸], 어구[어꾸](말마디)

× 미사려구, 반구(일언~도 안한다), 자자구구

📖 -구: (口－입 구)

✓ 창구[창꾸](창구멍), 총구[총꾸](총구멍)

× 개찰구, 갱구, 돌파구, 매표구, 접수구, 출구, 파렬구[파열구], 포구, 항구, 화구, 인구

📖 -급: (級－등급 급)

✓ 고위급[고위끕](~회담), 군급[군끕](~기관), 도급[도끕](~기업소), 시급[시끕](~모임), 리급[리끕], 동급[동끕](~조동), 좌급[좌끕], 위급[위끕](~군관), 중량급[중냥끕](~경기)

× 고급, 계급, 등급, 류급(한 학년을 ~하다), 무급, 상급, 수급(~전범자), 승급, 저급(낮은 수준), 진급(한 학년 ~하다), 초급(~일군), 하급(~학년), 유급(~일군)

📖 -기: (氣－ 기운 기)

✓ 결기[결끼](결단성있는 성미), 근기[근끼] (참을성있게 견디는 힘), 강기[강끼] (강한 기운), 광기[광끼](미친 기운), 윤기[윤끼](반들거리는 기운), 인기[인끼](사람들의 환심이 쏠리는 기운)

× 노기(노한 기색), 온기(더운 느낌), 열기(뜨거운 기운), 감기, 경기(~가 좋다), 공기, 대기, 분위기, 사기, 살기(독살스런 기운), 생기, 연기, 원기, 전기, 정기, 증기, 취기, 태기, 패기, 풍기, 향기

📖 -과: (果－열매 과)

① 결과

✓ 성과[성꽈](로력적~), 전과[전꽈], 효과[효꽈], 후과[후꽈]

× 결과

② 열매

× 무화과(~열매), 사과, 실과, 정과(건포도~)

📖 -과: (科－과목 과)

✓ 공과[공꽈](~와 문과), 농과[농꽈], 내과[내꽈], 단과[단꽈](~대학), 등과[등꽈](과거에 합격하는것), 리과[리꽈](~대학), 무과[무꽈](~시험), 문과[문꽈](~와 리과), 본과[본꽈](대학 ~의 강의), 분과[분꽈](~위원회), 벼과[벼꽈](~식물), 산과[산꽈](~의사), 소생과[소생꽈], 소아과[소아꽈], 전과[전꽈](~

자, 과를 옮기는것), 안과[안꽈], 이비인후과[이비인후꽈], 예과[예꽈](예비과), 외과[외꽈](~병원), 의과[의꽈](~를 전공하다)

× 교과(~서), 전과(전과목)

📖 -과: (課-일과 과)

✓ 자재과[자재꽈], 기술과[기술꽈], 업무과[엄무꽈], 설비과[설비꽈]

✓ 2과[이꽈], 9과[구꽈], 11과[시빌꽈]

× 부과(책임을 ~하다), 일과

📖 -권: (券-책권 권)

✓ 관람권[괄람꿘], 구매권[구매꿘], 량권[량꿘], 려권[려꿘], 료양권[료양꿘], 휴양권[휴양꿘], 정양권[정양꿘], 야영권[야영꿘], 은행권[은행꿘], 주권[주꿘](유가증권, ~시세), 증권[증꿘](~시장, 유가~), 채권[채꿘], 초대권[초대꿘], 통근권[통근꿘], 후불권[후불꿘]

📖 -권: (權-권세 권)

✓ 가권[가꿘](~을 세우다), 강권[강꿘](~정치), 거주권[거주꿘], 교권[교꿘](교원의 권위), 군권[군꿘](~을 장악하다), 금권[금꿘](돈의 권력, ~정치), 기권[기꿘](~과 찬성), 관권[관꿘](~과 금권), 녀권[녀꿘](녀성의 권리, ~을 존중하다), 당권[당꿘](~을 틀어쥐다), 대리권[대리꿘], 령도권[령도꿘](~쟁탈), 령유권[령유꿘](북극에 대한 ~), 리권[리꿘](~을 보호하다), 모권[모꿘](어머니의 사회적권한), 민권[민꿘](~옹호), 병권[병꿘](~을 장악하다), 분권[분꿘](지방~), 삼권[삼꿘](~분립), 상소권[상소꿘], 상표권[상표꿘], 소유권[소유꿘], 실권[실꿘](~을 틀어쥐다), 생존권[생존꿘], 자주권[자주꿘], 자유권[자유꿘], 자위권[자위꿘](~을 행사하다), 전권[전꿘](~대표), 정권[정꿘](인민~), 주권[주꿘](~기관), 주도권[주도꿘], 지명권[지명꿘](~을 주다), 지배권[지배꿘](정치적~), 재판권[재판꿘], 제공권[제공꿘](~을 장악하다), 제해권[제해꿘], 통수권

[통수꿘](군의 ~), 평등권[평등꿘](남녀~), 패권[패꿘](~주의), 언권[언꿘](~을 요구하다), 우선권[우선꿘], 인권[인꿘](~옹호), 왕권[왕꿘](~정치), 월권[월꿘](~행위)

📖 -권: (圈-동그라미 권)

✓ 등수권[등수꿘], 대기권[대기꿘], 대류권[대류꿘], 문화권[문화꿘], 성층권[성층꿘], 생물권[생물꿘], 자기권[자기꿘](자기마당이 미치는 령역), 포위권[포위꿘], 우주권[우주꿘]

📖 -법: (法-법 법)

✓ 가감법[가감뻡](더덜기법), 가정법[가정뻡], 공법[공뻡](건설~), 교수법[교수뻡](교육~), 구구법[구구뻡](~을 외우다), 국가법[국까뻡], 국제법[국쩨뻡], 군법[군뻡](~에 따라 처리한다), 기법[기뻡](재치있는 ~), 파장법[파장뻡], 관리법[괄리뻡](기업~), 권법[권뻡](주먹쓰는 법), 농법[농뻡](주체~), 농사법[농사뻡], 더덜기법[더덜기뻡], 대구법[대꾸뻡](~으로 시를 짓다), 대비법[대비뻡](~으로 그리다), 로동법[로동뻡], 론법[론뻡](삼단~), 료법[료뻡](치료~), 례법[례뻡](~을 어기다), 맞춤법[맏춤뻡], 문법[문뻡](국어~), 물음법[무름뻡], 미분법[미분뻡], 민법[민뻡], 변증법[변증뻡](유물~), 병법[병뻡](군사를 쓰는 법), 산법[산뻡], 서법[서뻡](글씨쓰는 법), 속기법[속끼뻡], 수법[수뻡](형상~), 술법[술뻡], 시공법[시공뻡], 십진법[십찐뻡], 셈법[셈뻡], 전법[전뻡](령활한 ~), 전자법[전자뻡], 전사법[전사뻡], 준법[준뻡](~기풍), 진법[진뻡](진치는 방법), 제강법[제강뻡], 축지법[축찌뻡], 치료법[치료뻡], 표기법[표기뻡](무용~), 필법[필뻡], 항법[항뻡], 헌법[헌뻡], 형법[형뻡], 형사법[형사뻡], 해양법[해양뻡], 용법[용뻡], 은유법[으뉴뻡], 인사법[인사뻡]

× 방법, 사법(법을 해석집행하는 활동), 무법(법이 없는), 비법(법에 맞지 않는), 불법(법을 따르지 않는)

📖 -성: (性-성품 성)

✓ 가능성[가능썽], 가망성[가망썽], 가변성[가변썽], 감수성[감수썽], 강대성[강대썽](~의 신화), 강의성[강이썽], 거만성

[거만썽], 겸손성[겸손썽], 경제성[경제썽], 고유성[고유썽], 공고성[공고썽], 공개성[공개썽], 공통성[공통썽], 교만성[교만썽], 구체성[구체썽], 군중성[군중썽], 규률성[규율썽], 균일성[규닐썽], 근로성[글로썽], 근면성[근면썽], 기동성[기동썽], 기형성[기형썽], 긴장성[긴장썽], 개방성[개방썽], 개연성[개연썽], 계기성[게기썽], 계승성[게승썽], 귀염성[귀염썽], 과감성[과감썽], 관대성[관대썽], 관용성[과뇽썽], 다면성[다면썽], 다양성[다양썽], 단순성[단순썽], 당성[당썽](~단련), 당위성[당위썽], 독자성[독짜썽], 동시성[동시썽], 대상성[대상썽], 대중성[대중썽], 대양성[대양썽](~기후), 락관성[락꽌썽], 량성[량썽](~산화물), 련관성[련관썽], 련대성[련대썽], 론리성[롤리썽], 류사성[류사썽], 립체성[립체썽], 명료성[명뇨썽], 무조건성[무조껀썽], 문제성[문제썽](~이 있다), 문화성[문화썽~무놔썽], 반동성[반동썽], 방사성[방사썽](~동위원소), 보수성[보수썽](~이 강하다), 보편성[보편썽], 봉사성[봉사썽], 부당성[부당썽], 불변성[불변썽], 불패성[불패썽], 불의성[부리썽], 사검성[사검썽], 사상성[사상썽], 산만성[산만썽], 상대성[상대썽], 서정성[서정썽], 소심성[소심썽], 순수성[순수썽], 습관성[습꽌썽], 시기성[시기썽], 시대성[시대썽], 실용성[시룡썽], 생산성[생산썽], 세균성[세균썽], 자주성[자주썽], 전망성[전망썽], 절대성[절때썽], 정당성[정당썽], 정치성[정치썽], 조심성[조심썽], 중요성[중요썽], 진보성[진보썽], 집체성[집체썽], 창조성[창조썽], 책임성[채김썽], 타당성[타당썽], 특수성[특쑤썽], 퇴성[퇴썽], 파렴치성[파렴치썽], 편파성[편파썽], 편의성[펴니썽], 표현성[표현썽], 필연성[피련썽], 필요성[피료썽], 합리성[함니썽], 헌신성[헌신썽], 혁명성[형명썽], 호소성[호소썽], 해양성[해양썽](~기후), 안정성[안정썽], 야만성[야만썽], 야수성[야수썽], 열대성[열때썽], 온대성[온대썽], 염기성[염끼썽], 염성[염썽], 요구성[요구썽], 용감성[용감썽], 우수성[우수썽], 우위성[우위썽], 유구성[유구썽], 유효성[유효썽], 인간성[인간썽], 인내성[인내썽], 인민성[인민썽], 인사성[인사썽], 일관성[일관썽], 외교성[외교썽], 위대성[위대썽], 위험성[위험썽], 의식성[의식썽], 완강성[완강썽], 완고성[완고썽]

× 감성, 전성(~륵막염), 근성(노예~), 개성(~이 있다), 관성(~렬차), 남성, 녀성, 동성(성별이 같은것), 리성, 만성(~적), 모성(~애), 본성, 부성(~애), 산성, 수성(물의 성질), 자성(자기력의 성질), 정성(성질을 밝히는것, ~적분석), 조성(《음악》), 중성(중간성질), 지성(리성과 ~), 천성, 타성, 품성, 야성(들에서 자라면서 지닌 성질), 이성(성별이 다른것)

❖ 《성(性)》이 [썽]으로 발음되는것은 대체로 의미가 뚜렷한 단어의 뒤에 붙어 《성질, 능력, 속성, 특성》같은것을 나타내는 뒤붙이로 쓰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단순단어에서 《성질》의 뜻을 나타내는 《성》은 《감성, 근성, 남성, 녀성, 개성, 리성, 만성, 모성, 본성, 지성, 천성, 타성, 품성》에서처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점: (點-점 점)

✓ 거점[거쩜](군사적~), 관점[관쩜](~과 립장), 단점[단쩜](우점과 ~), 론점[론쩜](~을 바로 정하다), 방점[방쩜](~을 찍다), 분기점[분기쩜](갈림길), 소수점[소수쩜], 시점[시쩜](관점), 장점[장쩜](~과 단점), 종점[종쩜](끝점), 지점[지쩜](도착~), 채점[채쩜](시험~), 허점[허쩜](잘못), 화점[화쩜](~을 까부시다), 우점[우쩜](~과 결점)

✓ 5점[오쩜], 2점[이쩜], 3점[삼쩜]

📖 -증: (症-증세 증)

✓ 가렴증[가렴쯩](가려운 증세), 건망증[건망쯩], 경련증[경년쯩](위~), 공포증[공포쯩](~에 사로잡히다), 구토증[구토쯩], 궁금증[궁금쯩](~이 나서 견딜수 없다), 궁증[궁쯩](~이 들다), 과대망상증[과대망상쯩], 과민증[과민쯩](신경~), 광증

[광쫑](미친증), 너리증[너리쫑](이몸이 헐고 이뿌리가 드러나면서 이가 빠지는 병), 멀미증[멀미쫑](차~, 배~), 몽유증[몽유쫑](꿈속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증세), 미심증[미심쫑](미심스러운 생각), 미친증[미친쫑], 바람증[바람쫑](경풍), 변비증[변비쫑], 병증[병쫑](앓는 증세), 불면증[불면쫑], 비대증[비대쫑], 비만증[비만쫑], 설사증[설싸쫑], 식곤증[식꼰쫑], 축농증[충농쫑], 통증[통쫑](아픔을 느끼는 증세), 태증[태쫑](갓난아이의 선천적인 병증세), 피부증[피부쫑], 허기증[허기쫑], 허리증[허리쫑], 현기증[현기쫑](어지럼증), 현훈증[현훈쫑~혀눈쫑](어지럼증), 협심증[협씸쫑], 후유증[후유쫑], 화농증[화농쫑], 어지럼증[어지럼쫑], 염증[염쫑]

🕮 -증: (證-증험할 증)

✓ 검사증[검사쫑](신체~), 군인증[구닌쫑], 당원증[당원쫑], 도강증[도강쫑](강을 건너다닐수 있음을 확인한 증서), 대표증[대표쫑], 렬사증[렬싸쫑], 령수증[령수쫑], 면허증[면허쫑~며너쫑](운전~), 맹원증[맹원쫑], 사증[사쫑](출국~, 입국~), 시민증[시민쫑], 신분증[신분쫑], 채용증[채용쫑], 출고증[출고쫑], 출생증[출쌩쫑], 통행증[통행쫑], 파견증[파견쫑], 파송증[파송쫑], 학생증[학쌩쫑], 허가증[허가쫑], 회원증[회원쫑], 인수증[인수쫑](물자~), 입사증[입싸쫑]

❖ 《검증, 고증, 례증, 론증, 반증, 인증》 등에서처럼 《어떤 증서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단어들에서는 [쫑]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 -질: (秩-차례 질)

✓ 상질[상찔](여럿가운데서 좋은 등급), 중질[중찔](중간부류의 등급), 하질[하찔](제일 낮은 등급)

❖ 《도서 한질, 두질》에서의 《질》은 [질]로 발음한다.

3. 긴소리발음자료

1) 길고짧은 소리로 뜻이 차이나는 대표적인 고유어 단어들

🕮 걷다

① [걷다] 거두다, 없어지다 (빨래를 ~, 안개가 ~)

② [걷:다] 다리로 움직이다 (길을 ~)

🕮 골

① [골] 머리, 성 (~아프다, ~내다)

② [골:] 골짜기, 고을 (~짜기)

🕮 곱다

① [곱따] 굽다 (손이 안으로 ~)

② [곱:따] 아름답다 (얼굴이 ~)

🕮 개

① [개] 물이 나드는 곳, 윷의 가락 (~가, ~울, ~가락)

② [개:] 짐승 (~먹이, ~고기)

🕮 눈

① [눈] 인체기관 (~이 아프다, ~물, ~자위, ~금)

② [눈:] 자연현상 (~이 내리다, ~가래, ~사람)

🕮 내

① [내] 냄새, 연기 (~굴, ~가 나다)

② [내:] 개울 (~가, ~를 건는다)

🕮 돌

① [돌] 한해째 (~잔치)

② [돌:] 광물질덩어리 (~과 모래)

🕮 되다

① [되다] 이루어지다 (학생이 ~)

② [되:다] 헤아리다, 묽지 않다 (쌀을 말로 ~, 반죽이 지내 ~)

📖 말

① [말] 짐승, 그릇 (~타다, ~로 되다)

② [말:] 언어 (~을 듣다)

📖 말다

① [말다] 감다, 풀다 (종이를 ~, 밥을 물에 ~)

② [말:다] 그만두다 (싸움을 ~)

📖 멱

① [멱] 멱살 (~을 잡다)

② [멱:] 미역 (~감다, ~국)

📖 매

① [매] 치는것 (~맞다)

② [매:] 새 (~사냥)

📖 발

① [발] 인체부위 (~을 씻다, ~목)

② [발:] 길게 드리운것 (~이 굵다, 문에 ~을 드리우다)

📖 밤

① [밤] 자연현상 (~낮, ~일, ~이 깊다)

② [밤:] 열매 (~나무, ~을 먹다)

📖 벌

① [벌] 들 (~판, ~로 나가다)

② [벌:] 곤충 (~한테 쏘이다)

📖 섬

① [섬] 그릇, 계단 (~과 말, ~돌)

② [섬:] 물우의 땅 (~에서 살다)

📖 술

① [술] 음료 (~마시다)

② [술:] 장식 (~을 달다)

📖 새

① [새] 새로운, 풀 (~살림, ~초)

② [새:] 나는 짐승, 사이 (~를 잡다, 없는~에)

📖 새다

① [새다] 흘러나오다 (물이 ~)

② [새:다] 날이 밝다 (날이 ~)

📖 참

① [참] 진짜 (~과 거짓)

② [참:] 쉬는 시간 (쉬는 ~)

📖 채

① [채] 치는 물건, 가루치는 도구 (~찍, 가루를 ~로 치다)

② [채:] 나물 (오이로 만든 ~)

2) 길고짧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한자음들

📖 强

① [강] 세다

강국, 강성국가, 강경하다, 강군, 강심먹다, 강조하다, 강세, 강약

② [강:] 강제로 하다

강요, 강간, 강도, 강압, 강제

📖 考

① [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고안하다

② [고:] 따지다

고시, 고고학, 고증하다

📖 料

① [료] 헤아리다

료리하다, 치료하다, 료리, 료법, 료해

② [료:] 돈

료금, 수업료

📖 素

① [소] 본래의것

소질, 소자(반도체~)
② [소:] 색갈을 들이지 않은것
소복, 소묘
🕮 長
① [장] 길다
장기, 장수, 장편소설, 장단,
② [장:] 나이나 급수 등이 으뜸인것
장로, 장관
🕮 將
① [장] 앞으로
장차
② [장:] 통솔하다, 으뜸
장교, 장령, 장수
🕮 種
① [종] 종자
종곡, 종균, 종묘장, 종부, 종자, 종축
② [종:] 갈래
종류, 종목, 종별
🕮 討
① [토] 치다
토벌
② [토:] 의논하다
토의, 토론
🕮 布
① [포] 베천
포목장사, 포대(자루)
② [포:] 널리 펴다
포고, 포교활동, 포치하다
🕮 包
① [포] 싸다
포장하다
② [포:] 끌어넣다, 에워싸다
포괄, 포섭, 포함, 포위

4. 읽기자료

1) 《시집가는 쥐》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을 가진 쥐부부가 살고있었습니다.	먼 옌날 어느 한 마으레 시집깔 나이가 된 따를 가진 쥐부부가 살고이썬씀니다.
매일 많은 총각쥐들이 찾아와 《집의 따님을 저의 색시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혼하였습니다.	매일 마는 총각쮜들이 차자와 《지븨 따니믈 저의 색씨로 되게 해주십씨요.》라고 청혼하엳씀니다.
그러나 딸을 가진 아비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따를 가진 아비쥐의 생가근 달랃씀니다.
(나는 내 딸을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훌륭한 대상과 결혼시킬테다.)	(나는 내 따를 세상에서 제일 히미 세고 훌륭한 대상과 겨론시킬테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것이 무엇일가?)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아비쥐는 해님을 찾아가 청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히마 센거시 무어실까?)하고 생가카고 생가카고 또 생가카던 아비쥐는 핸니믈 차자가 청을 드리기로 하엳씀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해님, 내 딸을 당신의 안해로 맞아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히미 센 핸님, 내 따를 당시늬 아내로 마자주십씨요.》
이 말을 들은 해님은 말하였습니다.	이 마를 드른 핸니믄 마라엳씀니다.
《그거 참 딱한 일이군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것은 내가 아닌데…》	《그거 참 따칸 이리군요. 세상에서 제일 히미 센거슨 내가 아닌데…》
바로 그때 구름이 뭉게뭉게 몰려오더니 해님을 가리워버리는것이였습니다.	바로 그때 구르미 뭉게뭉게 몰려오더니 핸니믈 가리워버리는거시엳씀니다.
구름에 가리운 해님이 말했습니다.	구르메 가리운 핸니미 마랟씀니다.
《보세요. 구름이 밀려오면 나는 가리워 보이지 않는답니다. 나도 구름한테는 어쩔수 없답니다.》	《보세요. 구르미 밀려오면 나는 가리워 보이지 안는담니다. 나도 구르만테는 어쩔쑤 업땀니다.》

이것을 본 아비쥐는 구름에게 말했습니다.	이거슬 본 아비쥐는 구르메게 마랟씀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구름님, 내 딸을 당신의 안해로 맞아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히미 센 구름님, 내 따를 당시늬 아내로 마자주십씨요.》
그러자 구름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르믄 마랟씀니다.
《그거 참 딱한 일이로군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것은 내가 아닌데…》	《그거 참 따칸 이리로구뇨. 세상에서 제일 히미 센거슨 내가 아닌데…》
바로 그때 《휘익-》하고 바람이 나타나 구름을 모두 불어버리는것이였습니다.	바로 그때 《휘익-》하고 바라미 나타나 구르믈 모두 부러버리는거시엳씀니다.
《보라요. 나는 아무래도 바람한테는 견디지 못한답니다.》	《보라요. 나는 아무래도 바라만테는 견디지 모탄담니다.》
그러자 아비쥐는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비쥐는 바라메게 마랟씀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바람님, 내 딸을 당신의 안해로 맞아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바람님, 내 따를 당시늬 아내로 마자주십씨요.》
《그거 참 딱한 일이로군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것은 내가 아닌데…》라고 말하며 바람은 있는 힘껏 담벽을 쳤습니다.	《그거 참 따칸 이리로구뇨. 세상에서 제일 강한거슨 내가 아닌데…》라고 마라며 바라믄 인는 힘껃 담뼈글 쳗씀니다.
그러나 담벽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뼈근 끄떡또 하지 아낟씀니다.
그러자 아비쥐는 또다시 담벽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비쥐는 또다시 담뼈게게 마랟씀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담벽님, 내 딸을 당신의 안해로 맞아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담뼝님, 내 따를 당시늬 아내로 마자주십씨요.》
이 말에 담벽은 대답했습니다.	이 마레 담뼈근 대다팯씀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건 내가 아닌데…》	《아니예요, 아니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건 내가 아닌데…》

바로 그때 담벽에 구멍이 뚫리더니 쥐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담뼈게 구멍이 뚤리더니 쥐의 머리가 불쑥 나타낟씀니다.
《당신네 쥐들이 나를 이렇게 계속 쏠아 구멍을 내니 내가 쥐들한테 견딜게 뭐야요.》	《당신네 쥐드리 나를 이러케 계속 쏘라 구멍을 내니 내가 쥐드란테 견딜께 뭐야요.》
담구멍을 보는 아비쥐는 그만 눈이 휘둥그래지고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쩐지 기뻤습니다.	담꾸멍을 보는 아비쥐는 그만 누니 휘둥그래지고마랃씀니다. 그러면서도 마으믄 어쩐지 기뻗씀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것이 우리 쥐들이로구나! 그러니 내 딸을 쥐와 결혼시킬테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거시 우리 쥐드리로구나! 그러니 내 따를 쥐와 겨론시킬테다.》라고 중얼거렫씀니다.
이리하여 그 집 딸쥐는 이웃집 아들쥐와 결혼하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 집 딸쥐는 이욷찝 아들쥐와 겨론하게 되엳씀니다.
모든 쥐들의 축복속에서 결혼한 쥐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모든 쥐드리 축뽁쏘게서 겨론한 쥐부부는 오래오래 행보카게 사랃땀니다.

2) 《황금덩이와 구렝이》

옛날 어느 마을에 소경과 앉은뱅이가 앞뒤집에서 살고있었습니다.	옏날 어느 마으레 소경과 안즌뱅이가 압뛰찌베서 살고이썯씀니다.
그들은 너무도 의가 좋아 하루도 떨어져 지낸적이 없었습니다.	그드른 너무도 의가 조아 하루도 떠러져 지낸저기 업썯씀니다.
가족들이 다 밭으로 일하러 나간 뒤에는 의례히 둘이 마주앉아 서로 도와가며 삼태기를 삼거나 새끼를 꼬아서 가족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뜨리 다 바트로 이라러 나간 뒤에는 의레이 두리 마주안자 서로 도와가며 삼태기를 삼꺼나 새끼를 꼬아서 가족뜨릐 일쏘늘 조그미라도 더러주려고 한시도 쉬지 아낟씀니다.

그러던 어느날, 둘은 짚신을 몇 컬레씩 삼아가지고 두 고개너머에 있는 고을로 난생 처음 장을 보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소경은 앉은뱅이를 등에 업고, 등에 업힌 앉은뱅이는 소경의 머리를 잡고 길잡이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두른 집씨늘 멷 컬레씩 사마가지고 두 고개너머에 인는 고을로 난생 처음 장을 보러 가기로 하엳씀니다. 소경은 안즌뱅이를 등에 업꼬, 등에 어핀 안즌뱅이는 소경의 머리를 잡꼬 길자비노르슬 하엳씀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첫 고개도 넘기 전에 등골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때마침 멀찌감치 샘물터가 바라보였습니다. 샘물터앞에 이른 앉은뱅이가 먼저 소경에게 말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르미라 천 꼬개도 넘끼 저네 등꼴로 따미 줄줄 흘러내렫씀니다. 때마침 멀찌감치 샘물터가 바라보엳씀니다. 샘물터아페 이른 안즌뱅이가 먼저 소경에게 마라엳씀니다.
《여보게, 샘물터네. 시원히 한바가지씩 마시구 가자구.》라고 말을 건늬였습니다. 소경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여보게, 샘물터네. 시원니 한바가지씩 마시구 가자구.》라고 마를 건늬엳씀니다. 소경도 조타고 하엳씀니다.
그래서 앉은뱅이가 물을 떠서 소경에게 먼저 권하고나서 다시 물을 뜨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커다란 금덩이 하나가 옆에 있는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그래서 안즌뱅이가 무를 떠서 소경에게 먼저 궈나고나서 다시 무를 뜨려고 허리를 구피는데 커다란 금떵이 하나가 여페 인는거시 누네 띄엳씀니다.
그러나 사람은 둘이고 금덩이는 하나였으므로 아쉽지만 그냥 두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믄 두리고 금떵이는 하나여쓰므로 아쉽찌만 그냥 두고 가기로 하엳씀니다.
첫 고개마루에 올라서려는데 웬 갓쓴 량반이 고양이수염을 내리쓸며 뚱기적뚱기적 마주 걸어왔습니다.	천 꼬개마루에 올라서려는데 웬 갇쓴 량바니 고양이수여믈 내리쓸며 뚱기적뚱기적 마주 거러왇씀니다.
량반은 다리가 아팠던지 소경에게 앉은뱅이를 당장 내려놓고 자기를 목적지까지 업어다달라는것이였습니다.	량바는 다리가 아팓떤지 소경에게 안즌뱅이를 당장 내려노코 자기를 목적찌까지 어버다달라는거시엳씀니다.

앉은뱅이는 그놈에게 사정하다못해 첫 고개너머 샘터에 금덩이 하나가 있는데 대신 그것이나 가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은 체면도 차리지 않고 《으흐흐… 그게 정말이겠지!》하고 탐욕스럽게 웃고나서 헐레벌떡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량반이 달려가보니 거기에는 금덩이 대신 들보같은 굵은 구렝이 한마리가 절이대같이 세갈래로 갈라진 혀바닥을 불길처럼 날름거리며 물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안즌뱅이는 그노메게 사정하다모태 천 꼬개너머 샘터에 금떵이 하나가 인는데 대신 그거시나 가서 가지라고 하엳씀니다. 그랟떠니 그노믄 체면도 차리지 안코 《으흐흐… 그게 정마리겓찌!》하고 타묙쓰럽께 욷꼬나서 헐레벌떡꺼리며 달려갇씀니다. 량바니 달려가보니 거기에는 금떵이 대신 들뽀가튼 굴근 구렝이 한마리가 거리때가치 세갈래로 갈라진 혀빠다글 불낄처럼 날름거리며 물겓따고 덤벼드럳씀니다.
혼쌀이 난 량반은 커다란 몽둥이를 얻어다가 죽을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구렝이는 꼭같이 두토막으로 허리가 끊기여 죽고말았습니다.	혼싸리 난 량바는 커다란 몽둥이를 어더다가 주글 히믈 다해 내리쳐씀니다. 그랟떠니 구렝이는 꼭까치 두토마그로 허리가 끈키여 죽꼬마랃씀니다.
《이놈들이 날 속였구나. 단단히 복수를 해야지.》	《이놈드리 날 소겯꾸나. 단다니 복쑤를 해야지.》
격분한 량반놈은 씨근거리며 되돌아와서 소경과 앉은뱅이를 따라잡았습니다.	격뿐한 량반노믄 씨근거리며 되도라와서 소경과 안즌뱅이를 따라자받씀니다.
《이놈들, 속여두 푼수가 있지, 구렝이를 보고 금덩이라고? 나를 잡으려 했으니 이제 죽어봐라!》하면서 마구 치며 덤벼들었습니다.	《이놈들, 소겨두 푼수가 읻찌, 구렝이를 보고 금떵이라고? 나를 자브려 핻쓰니 이제 주거봐라!》하면서 마구 치며 덤벼드럳씀니다.

소경은 보진 못했지만 만져는 보았고 앉은뱅이는 직접 제 눈으로 똑똑히 본것인데 그럴수가 있는가고 하면서 량반에게 정말 그럴것 같으면 다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량반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치는듯 손을 내흔들며 《네놈들이나 어서 썩 가서 실컷 가져라.》하고 얼굴이 수수떡처럼 벌개져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소경은 보진 모탠찌만 만져는 보안꼬 안즌뱅이는 직쩝 제 누느로 똑또키 본거신데 그럴쑤가 인는가고 하면서 량바네게 정말 그럴껃 가트면 다시 가보자고 핻씀니다. 그러나 량바는 생강만 해도 몸서리가 치는듣 소늘 내흔들며 《네놈드리나 어서 썩 가서 실컨 가져라.》하고 얼구리 수수떡처럼 벌개져서 욕써를 퍼부얻씀니다.
소경과 앉은뱅이는 턱없이 매를 맞은것도 억울하지만 난생 처음 사람을 속였다는 말을 들으니 도무지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소경과 안즌뱅이는 터겁시 매를 마즌걷또 어구라지만 난생 처음 사라믈 소견따는 마를 드르니 도무지 차믈쑤가 업썯씀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은 다시 샘터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까 그 금덩이가 꼭같이 두덩이로 갈라져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 두른 다시 샘터로 가보안씀니다. 그랟떠니 거기에는 아까 그 금떵이가 꼭까치 두덩이로 갈라져인찌 안켇씀니까?
앉은뱅이가 너무도 좋은김에 《야! 금덩이가 두개다!》하면서 소경의 등에서 미끄러져내리는데 두다리가 쭉 펴졌고 소경도 《어디?》하면서 금덩이들을 보려 할때 두눈이 번쩍 띄여졌습니다.	안즌뱅이가 너무도 조은기메 《야! 금떵이가 두개다!》하면서 소경의 등에서 미끄러져내리는데 두다리가 쭉 펴젿꼬 소경도 《어디?》하면서 금떵이드를 보려 할때 두누니 번쩍 띄여젿씀니다.
그들은 너무도 좋은김에 얼싸안고 빙빙 돌아갔습니다.	그드른 너무도 조은기메 얼싸안꼬 빙빙 도라갇씀니다.

3) 《나의 조국》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알지 모태라 언제부터 나에 가스메 긷뜨런는지 아마도 그거슨 나에 첟쌈과 함께 이미 조용이 자리자븐거시리 언제나 나에 심장에 가득차이써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걷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긍지로 부풀고 눈굽은 쩌릿이 젖어드는것이냐	조구기여! 너는 무어시기에 가마니 네 이름 부르면 가스믄 터질뜯 긍지로 부풀고 눈꾸븐 쩌리시 저저드는거시냐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냐	어찌하여 때로 이구게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솓꾸치는 그리우메 마으믄 한다르메 달려와 너를 안는거시냐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구근 고향마을 정든 지비라더라 동구박 오리나무숩 그 정겨운 설레임 새병녁 들까에 피는 녀인드레 우슴쏘리 송아지떼 푸를 뜯는 언더글 너머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쏘리

조국은	조구근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그리운 얼굴드리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다시마신 고향어머니
모래불에 딩굴던 어릴적동무	모래뿔에 딩굴던 어릴쩍똥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물껼치는 이랑쏘게 벼따늘 안꼬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따믈 씬는 처녀에 그으칸 눈낄…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눌려	지난날 네 그리 가나나고 엉눌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슬픔과 고통마늘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너에 운명으로 내 가스미 아팓꼬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살낄 차자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눈물쏘게 도라보고 또 도라보안꺼니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조구기여, 너는 무어시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저 눈더핀 이구게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비내리는 타향에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러	두고온 네 하느리 그리도 푸르러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사라서 너를 떠나가니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주거서도 도라오길 소원핻떠냐
한번 너를 잃으면	한번 너를 이르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네게로 도라가는 길 그리도 머러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했고	피로써 눈보라 말리끼를 헤쳐야핻꼬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했거니	주금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핻꺼니
조국이여,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조구기여, 진정 너는 무어시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너에 한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처럼 졌고	애어린 청춘들 우스며 꼳처럼 젿꼬
쓰러지면서도 못 잊어	쓰러지면서도 몬 니저
두팔가득 너를 그러안고 갔더냐	두팔가득 너를 그러안꼬 갇떠냐
한줌 흙속에	한줌 흑쏘게
너를 싸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너를 싸안꼬 간 투사들도 이썯떠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한떨기 진달래꼬턍기에
눈감고	눈감꼬
너의 모습 그려본 녀대원도 있었더라	너에 모습 그려본 녀대원도 이썯떠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아마도 조구근 어머니…
그렇다, 조국은	그러타, 조구근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더업씨 신성하고 숭어만 그 무얻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겨레에 살미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주거서도 안기여사는 영워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그거슨 그대를 바라보는 기픈 눈똥자
맑은 거울앞에서처럼	말근 거우라페서처럼
부끄럼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부끄럼업씨 그아페 서기 쉽찌 아느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오직 그에 영광쏘게 그대에 살미 읻꼬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그를 저버리믄 곧 그대에 주그민
조국이란 그러한것	조구기란 그러한걷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뜨거운 심장업씨 아늘쑤 업꼬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진시란 사랑업씨 부를쑤 업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구글 사랑한다고 마라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 전에는!	조구게 그대에 심장을 주기 저네는!
오, 조국이여 조국이여	오, 조구기여 조구기여
너는 손이 닳도록	너는 소니 달토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쓰다듬꼬시픈 우리에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시픈
우리의 푸른 하늘	우리에 푸른 하늘
조국이여	조구기여
그때문이 아니냐	그때무니 아니냐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하고싶어	이를 해도 이를 해도 더하고시퍼
하루를 십년으로 살고싶은 이 갈망은	하루를 십녀느로 살고시픈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쩡을
있는껏 다 쏟아바치며	인는껃 다 쏘다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바치는거시 기쁘민 이 아름다운 살믄
가는 곳마다 들끓는 생활과	가는 곤마다 들끌른 생활과
끊임없이 탄생하는 환희의 노래	끄님업씨 탄생하는 화니에 노래
강토를 굽이치는 철의 흐름우에	강토를 구비치는 처레 흐르무에
소용돌이치는 열풍을 안고	소용도리치는 열풍을 안꼬
조국이여, 너는	조구기여,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나래쳐오르는	세기에 하늘노피 나래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세찬 퍼더김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그 아드칸 노피에 비빨
찬란한 우리의 미래	찰라난 우리에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잊은 얼굴들이	온갇 시르미즌 얼굴드리
로동의 기쁨안고 돌아오는 락원의 거리	로동에 기쁘만꼬 도라오는 라궈네 거리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해살과	무수한 배우메 창무늘 비쳐드는 해쌀과
보육원들이 지켜선 애기들의 고요한 숨결…	보유권드리 지켜선 애기드레 고요한 숨껼…
그렇다, 조국은	그러타, 조구근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차자주신 우리에 삼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에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영워난 영워난 그이에 품
그 품이여라!	그 푸미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조구기여 나에 조구기여

문화어발음상식

집필 박사 부교수 리승길, 최광훈, 궁정식, 한명길
심사 박사 부교수 방린봉
편집 한경희 장정 조근호 편성 리주향 교정 리혜영

낸 곳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주체104(2015)년 9월 10일 발행 주체104(2015)년 9월 20일

ㄱ-56042

우편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장경2동
전화번호 572-5107

© ISBN 978-9946-1-0218-4
DPR Korea